



7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7 호

(루계 393)



◇◇◇◇◇◇◇◇◇◇

차 례

◇◇◇◇◇◇◇◇◇◇

인민의 첫 무장을 든 날에	4
봉화산의 바위터	5
노래하자 이 기쁨 이 행복	6
사랑의 전파가 날은다	7
언제나 그리운 고장	8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	9
일편단심 그 마음 따라배우립니다	10
희곡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12
높은 요구	17
산간역	24
《평양시간》을 쓰던 때를 더듬으며	31
당에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의지를 진실하게 노래하자	39
락원의 금수강산	43
인간의 힘	44
다듬은 말	46
무성하라, 숲이여 외 1 편	47
새 별구로 떠나며	48
기쁨 외 1 편	49
숨은영웅!	50
항구도시	51
산천의 새봄	52
미더운 사람	59

청춘들이 가꾸는 땅	60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60
농장숙소의 창가를 바라보며	61
병사의 가정	63
전사는 돌아왔다	71
내 사랑하는것 증오하는것	72
전시가요를 들으며	73
그 마음 불보다 뜨거운 사람들	75
푸른 꿈 피어나는 들이 좋아	77
앞날을 축복한다	78
영화문학현상모집 심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80

인민의 첫 무장을 든 날에

장윤길

하늘도 푸르른 여름하늘
땅도 푸르려 설레는 계절
바라봐도 언제나 아름답고
거창한 숨결로 들끓는 나라

흰구름 스치는 철골우에
나래펼친 은빛지붕을 없으며
아득한 풍년벌에 기계를 몰아가며
사람마다 뜨거운 마음속에 그려본다
저 멀리 백두의 기슭에서 태어난
조선혁명군

산천은 푸르려도
준엄한 시절이었다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어 긴긴 세월
몸부림 치며 참을수 없는 나날이었다

캄캄한 하늘에 솟아오른
찬연한 새별을 바라보며
희망에 부풀던 가슴가슴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쳐부셔야 한다
힘차게 울린 위대한 장군님의 선언이어

황토길 밀림길을 헤치시며
한사람 또 한사람
몸소 키우신 청년전위들의 가슴에
장군님께서 무장을 안겨주실 때

산비탈 돌쪼박을 굶으며
피멍이 든 손에 총을 든 젊은이
토스레웃을 걸친 어깨를 들먹이며
굵은 눈물을 떨구었다
감격과 충성의 맹세로 목메어-

얼마나 갈망하던 민족의 념원이었던가
얼마나 잡고싶던 혁명의 무장이었던가
포악한 일제의 총탄에 쓰러지는 의병들이

험준한 산밭에 화승대를 묻으며
가슴을 치던 우리의 겨레

아 진정한 인민의 첫 무장을 든
조선혁명군
영광의 그 대오는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온 나라
온 세상을 격동시키며 태어났거니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그 대오는
조국땅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고
투쟁의 총성을 울리며
삼천리 강산을 일떠세웠다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쳐부시자!

하늘땅에 메아리친 그 총성과
투쟁의 불씨를 안은 가슴가슴
조국해방의 서광을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신심에 넘쳐 일떠서지 않았던가

아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태어난
조선혁명군
인민의 첫 무장을 든
력사의 대오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거창한 흐름으로 굽이쳤고
침략자 미제를 쓸어버린
강철의 영웅대오로 조국을 지켜가거니

영광 끝없어라
인민의 가슴에 자위의 총검을 안은
빛나는 반세기
혁명의 무장으로 찾아 지킨 조국은
아름다운 강산으로
영원히 수호되리라!

봉화산의 바위터

윤좌근

숲을 이룬 살매나무
울바자처럼 둘러서고
설레이는 소나무
푸른 지붕되어 드리였구나
여기 봉화산의 바위터

조용히 다가서니
못잇을 그날을 불러주는가
산언덕에 스치는 바람
은방울 굴리는 산새들의 노래소리

여기로구나
김형직선생님
이 나라의 운명을 한품에 안으시고
지원의 뜻으로
조선국민회원들의 가슴에
힘을 주시고 새벽길로 이끄신곳은...

이 나라 곳곳에서 모여온 국민회원들
선생님의 품 그토록 따사롭기에
찬서리 돌친 여기 바위우에서도
후더움을 느끼였고
선생님의 말씀 그토록 절절하시였기에
만나뵈옵는 한순간에도
애국의 뜻 뜨겁게 받아안던 바위터여

빛나는 사적지
온 나라의 애국의 숨결이

하나로 모이고 해불로 타올라
수많은 반일투사들이 자란곳

여기서 불가슴 안고 떠나간 투사들
총검의 숲속에서도
독립의 해불을 강산에 지펴갔더라
억눌린 겨레들의 가슴에
재생의 맥박 높뛰게 하며

짓밟힌 이 땅에
자유독립의 불길을 지피시며
선생님께서 념원하신 해방된 새날
오늘의 조국이
위대한 수령님 손길에 일떠섰거니

세월은 흘러 수십년
비바람에 씻기고 이끼는 덮였어도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하여라
봉화산, 봉화산의 바위터여!

력사의 산
유서깊은 봉우리
조국땅 빛나는 자리에서
너는 선생님의 높은 뜻을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에 새겨주어라
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 투쟁의 한길로 불러주며-

노래하자 이 기쁨 이 행복

리금녀

거리의 가로수
밤새 더 푸르러지고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 젊어진 아침

어린것을 품에 안고
탁아소 프락에 들어서는
너인들의 그 눈길
온 세상을 향한듯
궁지에 빛나고

수도를 떠나는 아침철차들
뜨거운 사연 차량에 넘쳐
봄노래인양 맑은 기적소리
하늘가에 남기며
이 땅의 한끝으로 달리어가라

아, 이 시각
사는곳은 서로 달라도
조국은 우리의 오늘과 래일
우리의 온 생애를 축복하는
위대한 사랑의 법전을 선포했거니

태어나는 아이들을 기다려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의사가 찾아오는 나라
공장과 마을사람들 사는곳 그 어디나
무상치료의 해빛 밝은 지붕이
먼저 솟는 나라

인류가 생겨
언제 어느때
외진 등대섬의 환자를 위해
온 나라가 밤을 지새운적 있었던가
당중앙이 보내는 불사약을 싣고
사랑의 비행기가 날은 때 있었던가

약 한첩을 구하러
피를 팔고 눈을 팔고
몸마저 팔아야만 하는 자본세계에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우리 나라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한 사회주의보건법

이 나라 그 어디서나
한사람 한사람
그 이름을 짊어가며
한생의 건강을
나라의 법으로 보살피는 고마움이여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
흐르는 한줄기 강물도
들에 피는 한떨기 꽃도
인간송가로 높이 올리고
자주적인간의 삶을 위하여 만발하는
위대한 사랑의 나라

아버이수령님 한평생을 바치시며
근심걱정 없는 나라 마련해주셨기에
나날이 기쁨과 웃음은 넘쳐
사람마다 룽심청춘, 구심환갑
무병장수의 행복한 노래 넘치는 나라

주시고 주시고도
더 좋은 래일을 주시고싶어
우리 수령님
푸른 강반에 산원을 세워주시고
인민의 건강을 위한 새 법전을 펼쳐주셨나니
아버이 그 은정에 목메이며
수수천만년 사람이 바라만 오던
행복의 강산
인류리상의 상상봉에 높이 올라서는
인민의 궁지여
민족의 영광이여

그 무슨 말로
오늘의 이 기쁨
다 노래할것이나
산천초목도 목소리 합쳐
아버이수령님께
감사의 노래 축원의 노래 드리여라

노래하자, 이 기쁨 이 행복
인민의 건강을 법으로 선포한
인간에 대한 장엄한 송가를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를!

답시

사랑의 전파가 날은다

권용일

함박눈 내리어 내리어
하늘땅은 눈발속에 묻히고
저 멀리 포성은 은은한데...

전쟁의 거창한 흐름을 안고
강철의 음향이 메아리치던 강산도
깊어가는 이 밤 모두 잠들었는가
끝없는 정적속에 흘러가는 전선의 밤

싸우는 전사들을 고무하시며
밤깊은 전선길에 계시는 최고사령관동지
산기슭에 자리잡은 반토굴초소에서
새어나는 한점의 불빛을 보시고도
차창으로 그저 흘러보내실수 없으시여선가
잠시 차를 멈추시여라

무수한 전파를 받고 보내며
잠들줄 모르는 전선의 통신초소
전신수들의 재빠른 손길이
빛나는 승리의 또 하루를 아로새기는데
키낮은 토굴문이 열리는 소리
뒤미처 울리는 우렁우렁하신 목소리
-반갑소
동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아,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뜻밖에 받아안은 영광이어서
너전사들은 크나큰 감격에
그만 눈시울만 젖어드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나아린 전신수의 손을
자신의 두손으로 감싸주시여라

목이 메어 목이 메어 말을 못하고
어버이수령님 품에 얼굴을 묻은 전신수
소리없이 어깨만 들먹이는데
수령님께서 그의 손을 이끌어
전신기앞에 앉히시여라
전신을 보내는 숨씨나 좀 불가

어디 한번 쳐보오

아 더없는 영광을 지닌 이 순간이여
해빛같은 미소를 안으시고
함박눈을 맞으시며 찾아오신 그이께
무슨 말을 테프에 새기면 좋으랴

방금 화선에서 들어온
습격조의 빛나는 위훈을 담아볼가
아니면 화선입당의 영예를 지닌
크나큰 영광을 테프에 새겨갈가
꿈결에 어버이수령님을 뵈왔다는
너전사의 뜨거운 마음을 아뢰일가

자애로운 수령님의 눈길을 받으며
기쁨과 흥분으로 가슴은 두근두근
전신수는 높뛰는 심장의 고동을 안고
다시 또다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네

걸어오신 자옥마다
전선과 후방을 하나로 이끄시여
위대한 승리의 길 펼쳐가신
뜨거운 은정을 베푸신 사랑 길을 더듬으며
그이의 로고에 가슴 뜨거웠네
들먹이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싸우는 전사들의 소원을 담아
너전사는 전신테프에 글발을 새겨갔네

-최고사령관동지
우리들은 오직 한마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찰칵거리며 돌아가는 전신기에서
줄줄이 풀려나오는 전신테프
두손에 펼쳐드시고 읽어가시던 수령님
너전사의 등을 정답게 쓰다듬어주시며
은정어린 목소리로 힘있게 말씀하시여라

-고맙소

싸우는 전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온 전선에 전신을 보내주오

아 감격과 흥분으로 뿔어번지는
키낮은 반토굴 전선의 통신초소

위대한 사랑에 받들린 통신초소에선
목메여 흐느끼는 전신수들의 손길이 나래쳤네
일제히 전신기는 돌아갔네
싸우는 고지마다 환호성을 불러오며
원췌에겐 죽음의 비수로 꽃히며
영웅조선의 불타는 밤하늘에는
위대한 사랑의 전파가 날아갔네

언제나 그리운 고장

김정길

나서자란 내 고향과도 같이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웁던 고장아
떠났던 아들을 맞아주듯
걸음걸음 들어서어는곳마다
옛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 다가와라

잊을수 없었노라
산천이 타버지던 전화의 날
멸적의 총포탄을 깎아내며
태어나 내 로동의 첫삶이 시작되고
태어나 처음으로 수령님을 만나뵈온곳이어

추억속에 걸어가는
승엄한 마음
감격도 새로워라
무기를 만드는 로동계급 보고싶으시여
어버이수령님
눈내리는 밤 먼길을 찾아오신 그날이-

오 잊지 못할 그날 그 밤에
우리의 기름문은 손을 잡아주시며
동무들이 있기에 전선은 넘려 없다고
가슴가슴 신념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그 음성 뜨거이 울려와라

크나큰 그 믿음에
숫구치는 감격
사랑하는 선반기를 그려잡고
흐르는 눈물을 옷자락으로 훔치며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충성을 다짐한 나의 정든 일터

얼마나 공지에 차넘쳤던가
조국의 한치땅을 목숨으로 지키는
최전선의 전호속에 있는 전사가 되어
포신을 꺾고 화약을 재우고
투쟁의 노래를 부르며-

기대앞에 쪽잠이 그리웠어도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밤을 새웠고
원췌의 폭격에 전기줄이 끊어지면
촛불을 켜들고 기계를 돌리며
수령님 만나뵈온 그 감격속에
얼마나 보람찬 나날을 보냈던가

정다운 고장 혁명의 사적지여
못잊을 그날의 그 시각을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안겨주어
나서자란곳보다 더 가까운
너는 내 로동의 고향집이여라!

충실성의 빛나는 구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나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었습니다. 동지들은 나의 건강을 넘려하여 자기들은 통강냉이를 먹으면서도 나에게 **좁쌀**을 구해주느라고 무진 애를 썼으며 온갖 성의를 다하여 나를 보살피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

아버이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한 해발이 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빛나게 형상한 혁명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1부)를 나는 참으로 커다란 감동속에 읽었다.

감격과 흥분 없이는 읽을수 없는 이 소설은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고 오직 장군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는 충성의 한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를 생활적인 화폭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행복이 더욱 커질수록 모두의 가슴속에 새별로 빛나며 자욱마다 충성으로 아로새겨진 위대한 한생으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김정숙동지.

소설의 한페이지, 한페이지를 눈물을 머금으며 번져나가는 나의 눈앞에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형상이 그대로 안겨왔고 금방 곁에 계시면서 인자하신 미소를 보내시는듯 끝없는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김정숙동지께서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으나 원썬들의 만행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배고픔과 추위에 쪼들리고 마음이 거칠어지는것을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술선 그들을 한품에 안아 가장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장면은 열번, 스무번 다시 읽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커다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망국노의 쓰라린 설움을 이겨내시고 상춘근거지에 돌아오신 김정숙동지는 스스로 충성의 한길에서 힘있게 첫걸음을 떤 나 어린 혁명가이시였다.

당시 상춘근거지에는 일제놈들의 《토벌》을 맞고 찾아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 먹을것도, 집

도 부족했고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더우기 부모 잃고 거칠어진 아이들은 한지에서 잠을 자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감자를 캐서 구워먹었다. 강가에는 잃어버린 《아빠, 엄마》를 찾는 어린이들의 슬픔의 눈물이 뒤덮이였다.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는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일제원썬들에 대한 분노가 치받쳐올랐고 가슴찡기는 비분을 참으실수가 없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스스로 거친 들판에 휘뿌려진 수십명의 고아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한아이, 한아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뜨거운 사랑으로 어린 녀들의 상처를 다심히 가셔내시며 굳세게 키워가기 시작하시였다.

이때로부터 불행한 아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총명한 어린 《어머니》가 생겨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힘을 모아 집터를 닦으시고 갖은 신고를 다해가며 산에 가지여 나무를 찍어나르기도 하시고 구들돌을 이여날라오기도 하신다. 그리고 피어린 싸움속에서 억세게 새생활을 창조해나가신다.

폭풍에 휘몰리어 한곳으로 모여든 아이들에게 언제나 깨끗한 옷을 입히시기 위해 불에 타고 주먹이 드나들게 찢어진 옷가지들을 빨고 기우며 지새우신 밤은 그 얼마이며 나무에 치여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결연히 일어나시여 학교를 세우고 집을 지으시며 혁명의 후비대인 아이들을 위하여 바쳐오신 날과 날은 그 얼마였던가.

싸움판을 찾아 돌아다니는 애들을 찾아 해종일 산과 들을 헤매기도 하시고 죽물이나마 아이들에게 배불리 먹이기 위해 망질도 하시고 밤을 지새우시며 친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김정숙동지.

진정 그토록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모지라지고 멍들었던 어린 가슴들이 해별을 받아안았고 상춘근거지에는 엄마, 아빠를 잃은 고아집단을 중심으로 한 규모가 큰 아동단조직이 공청과 무장대오의 후비군으로 억세게 자라게 되였다.

이 과정에 일부 협대한 일군들은 그 투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별로 관심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들을 거두는것이 혁명인가고, 왜 자기의 계급적처지를 생각못하고 하찮은 일을 하는가고 나무람까지 하였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굵힘없이 아이들을 보살피나가신다.

벌써 여기에는 혁명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시는 혁명가로서의 가장 고귀한 품성 즉 인민을 위해 한몸을 바쳐가실 혁명정신이 빛나고있다.

이러한 김정숙동지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억압받고 착취받는 근로대중을 해방하려는 혁명사상을 나아린 몸으로 체현하고있기에 것처럼 간고한 환경에서 고아들을 품에 안아키워낼 수 있었다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조선혁명가들의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하시는 뜨거운 고무와 믿음을 주신다.

수난의 피바다에서 너무나도 뼈아프고 피어린 생활을 체험하시면서도 오로지 장군님의 품에서 희망을 찾으시고 그이를 따르는 길에 참된 삶의 길이 있다는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신 김정숙동지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는것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영예는 없으시였다.

위대한신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르시며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나가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참다운 삶에 대한 대답-사람은 한평생 우리의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진리를 찾으시게 되시였다.

《우리 누나》, 《우리 정숙이》-다정하고 친근한 그 이름을 다시금 조용히 불러보느라니 피바다속에서 살아남은 불쌍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밤이고 낮이고 시중을 드시며 찬비내리는 진창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김정숙동지의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고 자신이 직접 그 아이들속에 끼워 김정숙동지를 몸가까이 뵈옵는 것만 같다.

진정 어버이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길에서 빛나는 한생을 바치신 김정숙동지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구감으로 높이 받들며 따라배우는것은 우리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기쁨이다. 책을 덮은 나의 가슴은 주체의 조국에서 배우며 자라는 영예와 행복감과 함께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충성의 한길을 빛나게 걸으신 김정숙동지처럼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될 굳은 결의에 차고 넘쳤다.

김형직사범대학 4학년 리수향

일편단심 그 마음 따라배우렵니다

혁명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한몸 바쳐오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영상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저의 가슴에 끝없는 격정과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켜주고있습니다.

저 하늘에 위대한 태양이 있어 이 세상의 별들이 빛을 뿌리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광휘로운 해발이 있었기에 어머님께서는 이처럼 빛나는 충성의 별이 되시여 내 조국과 인민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충성의 탑을 높이 쌓으신것이 아닙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그들을 혁명선렬들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적리관주의로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까.》

소설의 전과정에 맥맥히 굽이치고있는 위대한신 장군님에 대한 김정숙어머님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은 혁명하는 시대에 태어나 살며 일하는 저와 같은 새세대들에게 있어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며 부닥치는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의 생동한 모범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투사들이 헤쳐온 성스러운 자욱우에 인민의 락원이 솟아난 이 복받은 땅에 태어나 행복과 기쁨밖에 모르고 살아온 20대의 젊은 대학생인 저에게 있어서 이 소설은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될 것입니다.

오직 한마음 장군님을 받들어 그이께서 이끄시는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겨가시는 어머님의 그토록 숭고한 모습을 그런 화폭들은 저의 가슴에 끝없는 감동과 더불어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켜줍니다.

특히 저의 가슴을 뜨겁게 흔들어주는것은 김정숙어머님께서 혁명을 위함이라면 온갖 불행도 간난신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진정을 깡그리 바치시여 혁명에 이바지하시는 고귀한 희생성과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완강한 투쟁정신이였습니다.

풍파사나운 술기막골, 기아와 싸우시며 씨앗을 묻으시고 반혁명분자들과 싸우시면서 그 어느 한시도 어머님께서는 자신을 생각하신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장군님을 따라 싸우는 길에 행복도 희망도 기쁨도 있다는 굳은 신념을 안으시고 걸을

걸음 닥쳐드는 가혹한 혁명의 시련들을 역센 투지로 이겨내시면서 군중의 힘이 되시고 기발이 되시여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는 김정숙어머님!

진정 어머님께서서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그 시련을 이기는것이 바로 혁명승리를 향하여 한걸음한걸음 다가가고 장군님 계신곳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가는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철석같은 혁명승리의 신심을지니셨기에 종파분자들의 간악한 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면서 군중을 승리로 이끄시는것이였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을 잘하기 위한것이 라면 자신의 그 무엇도 돌보시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고결한 희생정신은 파란 많은 혁명의 고비 고비마다에서 꽃처럼 피어나 저의 가슴속에 커다란 여운을 불러일으키며 숭고하고 생생한 모범으로 안겨옵니다.

귀여운 동생 기송이를 생각하시며 가슴가득차 오르는 슬픔의 파도를 억누르시는 불같은 마음, 조카애를 잃은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시며 혁명과업수행을 재촉하시는 강의한 의지, 더우기 것처럼 귀중한 사랑하는 오빠의 비보를 들으시고 그 크나큰 슬픔을 의지의 힘으로 누르시는 어머님의 고결하신 혁명가적풍모앞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견잡을수 없었습니다.

... ..

울창한 산림과 눈덮인 벌판은
우리의 피땀에 젖어있는데
물갈고 눈갈고 앉아서 잘 때에
동지들 생각에 가슴은 불탄다

그제야 김정숙동지의 눈가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혁명의 아아한 높은 봉우리위에 올라서는것인가. 부암에서 혁명의 첫걸음마를 땀 이 작은 하나의 물방울이 장군님의 해빛에 뛰며 반짝이며 수없는 우여곡절을 겪고 겪으며 급기야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 우여곡절도 오늘에 이르노라고있는 마지막 곡절인가, 죄다 바치는, 깡그리 바치는 그 슬픔, 그 피눈물속에 드는, 덕지를 크게 남길 마지막 곡절, 마지막 상처인가.

아 영광의 길, 충성의 길이어! 장군님께 바치는 이 가슴속 붉은 마음이 없다면 내 어이 이 술한 피눈물을 이겨낼수 있을가!

... ..

정녕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장군님 모시는 영광속에 사는 혁명전사의 높은 긍지와 자각을 안으셨기에 장군님을 모시고 혁명의 한길을 힘있게 걸어나가시기 위하여 온갖 불행과 고통도 꺾듯이 이겨나가는것입니다.

어머님께서서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이라는 거창한 사업을 풍파 많은 생활의 체험속에서 뜨

겁게 절실하게 굳건하게 심장으로 받아안으셨기에 오직 이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그 어떤 슬픔도 묵묵히 이겨나가는것입니다.

어머님께서서 내두산에 도착하신 날 밤 술기막골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상하시며 가슴속에 다지는 드높은 혁명의 결의는 또 그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불타게 합니까!

...술기막골, 그 땅을 어찌 잊는단말인가. 거기엔 혁명의 시련이 가져다 안긴 진폭이 큰 랑만의 노래가 있고 정열을 불태운 영광의 력사가 있다. 나의 경우에도 부암이나 상촌은 아득히 흘러간 너무나 작은 마루턱, 술기막골은 그에 비기면 높디 높은 준엄한 고개, 넘고나니 후련도 하고 벽차기도 하다. 인제 혁명앞에 그것보다 더 높은 고개가 있을가, 더 험한 고개가 있을가. 어찌 없으랴. 그에 몇갑절 값음할 조국해방이라는 찬란한 무지개가 다가오는데 그만정도의 고개만이 있을가. 더 높고 준엄한 고개인들 없으랴. 하나 오라 고개여, 내 인제 웃으면서 오르고 웃으면서 넘어보자! ...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시면서 간직하신 혁명에 대한 드높지 않는 포부와 결의, 그 길에 어떤 시련의 언덕이 앞을 막아도 기어이, 뚫고 조국의 해방을 찾으려는 어머님의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와 기백은 그 무엇도 막을수 없는 뜨거운 진정이 되여 저의 가슴에 영원한 혁명의 노래를 불러주고있습니다.

장군님을 따라서 혁명하는 다함없는 영광, 그래서 그 길에서 아까울것 없고 두려울것 없어 그 리도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어머님이십니다. 그 뜨거운 진정이 바로 혁명의 난바다길이 무수히 다가서는 시련의 암초들을 것처럼 과감히 헤치고 나가 승리를 안아올수 있게 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었던것입니다.

저는 장군님께 충성하고 혁명에 충실했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모범을 본받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는 견결한 혁명정신과 강의한 혁명적의지를 지닌 주체형의 참된 혁명전사로 자신을 준비하겠습니다.

복판은 세대, 행복한 세대로서의 진정한 본분을 다하는 길은 바로 투사들의 피땀이 스민 이 땅의 전취물들을 더욱 귀중히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충성 다했던 선렬들의 뜻을 계승하여 참답게 꽃피워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이 길우에서 빛나는 어머님의 생애를 따라배우며 오직 한마음 경애하는 수령님을 받들고 내 조국과 우리 당을 받드는 길에 빛나는 새별이 될 심장속의 충성의 결의를 굳게 다집니다.

평양의학대학 5학년 박은심

희곡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리대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연극은 관중들이 이해하기 쉽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좋은 예술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투쟁에서 연극예술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심오히 밝히시고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연극의 불멸의 본모기를 창조하시어 연극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우리당은 혁명연극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독창적인 《성황당》식혁명연극리론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다.

혁명연극리론에서 일대 혁명으로 되는 《성황당》식극문학리론을 창시한 우리 당은 최근에 또 다시 연극예술발전에서 극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희곡창작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이 내놓은 방침은 희곡작가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작적력량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조치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의 거대한 생활력이 현실적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연극예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희곡문학을 선행하여 발전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희곡은 연극예술창조의 첫공정이며 연출, 연기, 음악, 무대미술 등 연극에 참가하는 모든 예술의 창작적모체이다.

희곡문학이 좋아야 훌륭한 연극을 만들어낼수 있다. 형상집단이 아무리 훌륭한 창조적력량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좋은 희곡작품이 없이는 연극예술창조는 불가능하다

연극의 사상예술성은 극문학의 질에 의하여 중요하게 규정되며 따라서 연극예술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희곡을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켜야 한다.

현시기 희곡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하는것은 또한 극문학자체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절실히 제기된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18~19 세기의 낡은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는 지난날의 희곡은 로동계급의 문학예술이 발생하여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왔으나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었다.

종래의 희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의 벽찬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 지난 날의 희곡의 제한성과 낡은 틀을 허물어버리고 혁명적인 새형의 연극을 창조하는것은 근로인민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

희곡문학을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극을 기본으로 하는 형상의 특성으로부터 이 예술형태가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며 문학예술의 사상교양자적기능의 수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희곡은 극을 기본으로 하는 문학이기때문에 극을 필수적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문학형태의 발전을 적극 추동하면서 그 전반적발전을 떠밀어준다.

따라서 희곡문학의 새로운 양양과 그 발전은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더욱 높이며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우리 혁명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다시금 연극무대에 올려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완벽하게 형상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혁명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 있다.

우리는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준 독창적인 혁명연극의 창조원리에 맞게 원작들의 심오한 사상예술적내용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그 거대한 감화력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희곡문학을 발전시키고 그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성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화폭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중요한 주제의 희곡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하는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 극작가들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높은 덕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념비적작품들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창작하는것이다.

극작품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직접 모시는 사업은 우리 극작가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는 영광이며 숭고한 사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사업은 인류문화예술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주체적인 문화예술건설에서 근본문제로, 초미의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혁명력사를 정중히 형상하는것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신념으로, 생활의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혁명하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이며 현시대와 혁명이 우리 문학 예술앞에 제기하는 가장 절박하고 영예로운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우러러모심으로써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몸가까이 뵈올것을 그토록 열망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있으며 만사람의 가슴가슴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충성의 뜨거운 열정으로 차넘치게 할수 있다.

희곡작품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정중히 모실때 그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충실성교양에서 비할바없이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게 될것이며 그들을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다.

우리 극작가들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에 주체시대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완벽한 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여야 한다.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면서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은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한없이 뜨겁고 경건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희곡작품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정중히 모시는 여기에 우리 희곡문학을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강위력한 무기로,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되게 하는 근본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희곡작품에 형상하는것은 우리 극작가들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과 함께 혁명적가정을 정중히 형상함으로써 대를 이어 혁명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 잘 배울수 있고 깊은 감명을 받을수 있는것이다.

우리 극작가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형상한 희곡들도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희곡문학이 창조하여야 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전형들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구감이다.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발휘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가슴을 끝없는 충성

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 높은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하며 배워나가도록 무한한 힘과 정열을 북돋아주고있다.

이와 함께 극작가들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인민군대와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희곡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구체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는것 이다.

그래야 우리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다.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투쟁의 치열한 결전장에서 발휘된 인민군용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그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가장 고결한 혁명정신이였으며 그것은 자기 조국과 인민, 고향과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였다.

미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보여줌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포화속에서 항일의 혁명정신을 이어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하였는가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는것 이다.

우리 극작가들은 희곡작품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수많은 영웅전사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면모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창조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기본분야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 주체시대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가장 시적이며 광대한 정서로 충만되어있을뿐만아니라 극적인 생활도 가득차있다. 실로 현실생활은 무궁무진한 극적인 생활소재의 기초이며 풍부한 원천이다.

희곡문학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장엄한 투쟁과 보람찬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3대혁명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일편단심 변함없이 충성의 한길을 걷고 또 걷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을 깊이있게 탐구하는것이다.

무엇보다 숨은 영웅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여야 한다.

숨은 영웅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벽찬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우리 희곡문학앞에 나선 중요한 창작과제의 하나이다.

지금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비약과 양양이 일어나고있다.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감화교양방침을 구현한 사상개조운동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대중적혁신운동이다.

우리 극문학분야에서는 그 어떤 보수도 명예도 바람이 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 기 위하여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친 숨은 영웅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며 충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혁명전사들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조화하고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있는 오늘의 벽찬 현실과 숨은 영웅들의 투쟁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은 우리 극문학으로 하여금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철저히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극문학은 또한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여야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 지시를 그 누구보다먼저 받아안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 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의 선두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당일군이 서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과 행동으로 대중의 모범이 되고있으며 높은 조직력과 비상한 전개력으로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면서 사람들을 끌었다는 위훈과 혁신으로 불러일으키고있다.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닌 그들은 사업에서도 생활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사색하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그들의 모든 사고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그들의 한걸음 한걸음은 당의 결정, 지시를 집행해나가는 그 한길에서 추호의 드림도 없이 옮겨지고있다.

그러므로 희곡문학은 당일군의 생활을 깊이있게 반영하여 공산주의적인간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만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그 위력을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생동하게 구현할수 있으며 당적문학으로서의 자기의 근본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현시기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는것도 우리 문학의 중요한 형상적과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문학이 로동계급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여 령도계급으로서의 그의 사상정신적면모와 고상한 인간적품도들을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우리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문화성있는 계급으로 그리고 가장 혁명적이고 문명한 계급으로 자라났으며 3 대혁명이 수행되고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고 당이 가슴아파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로동계급이 서있었고 로동계급이 자기의 불굴의 의지와 완강성으로 부딪친 난관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김으로써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 기쁨과 민족을 드리는 더없는 영광과 행복을 지니었다.

우리 희곡문학은 이러한 로동계급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희곡작품창작에도 계속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생동하게 형상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투지를 안겨주고 새로운 승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킬것이다.

우리 극문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성스러운 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려면 그 형식과 예술적형상수준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현시기 극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에 의하여 창시된 《성황당》식극문학 창작원리와 그 기본요구, 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우리 극작가들앞에는 낱은 극작술을 타파하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희곡창작의 제반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성황당》식극문학의 본보기들을 따라배우며 창작과정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성황당》식극문학은 무엇보다 사상에술적내용에서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한 극문학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과 그 생활을 통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참다운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준다.

우리 극작가들은 인간과 생활을 공산주의인간학의 높이에서 진실하게 그림으로써 생산공정과 기술적문제들을 내세우고 사건의 뒤꼬리를 쫓아가는 편향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생김새가 서로 다르고 사상감정과 그 표현도 다른 비반복적이며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할수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함께 그것을 표현하는 구성형식에 있어서도 극작술상 새로운 본모기를 창조하였다. 극적묘사방식에 기초한 희곡문학에서는 막과 장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어떤 원칙에서 전개하는가 하는것은 언제나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었다.

넓은 구성형식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생활을 몇개의 극한된 장면에 무리하게 끌어들여 무대의 뒤생활을 지루하게 설명함으로써 생활의 진실을 파괴하고 생활을 다양한 시점에서 반영할수 없게 하였다.

때문에 극작가들은 종래의 넓은 틀을 마스고 극을 생활발전의 논리에 맞게 화폭을 펼쳐보임으로써 관중들을 극세계에 깊이 끌어들여가게 하는 극작기교를 부단히 련마하는것이 중요하다.

희곡의 고유한 특성의 하나는 뜻이 깊고 성격에 맞는 대사창작에 있다. 극의 기본형상수단인 대사창작을 제 1 차적과제로 제기하고있는 희곡은 작가들에게 생활적인 대사구사의 명수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사가 명대사라는것을 가르치고있다. 대사의 뜻이 깊어야 작품의 정치사상적내용이 깊어지고 사람들을 생활정서적으로 공감시킬수 있는 견인력을 견지할수 있다.

희곡의 언어는 생활적언어의 단순한 재현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작가에 의하여 선택되고 다듬어진 언어라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의 대사들은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리게 하는 뜻이 깊은 명대사의 불멸의 본보기이다.

우리 극작가들은 이러한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명대사창작의 모범을 따라배워 희곡의 대사형상에서 혁신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성황당》식혁명연극을 따라배우는데서 중요한 다른 문제의 하나는 가사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연극음악창작의 방침에 의하여 가사는 현대희곡의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된것만큼 우리 극작가들은 극의 발전과 인물성격의

정서적개방을 위하여 가사를 적중하게 리용함으로써 주체적인 혁명연극의 새로운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척된 《성황당》식극문학의 극작법원리들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희곡창작에 빛나게 구현하여야 한다.

희곡문학을 발전하는 현실과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형식에서도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극작가들은 시대를 폭넓게 반영한 장막, 중막 희곡과 함께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형식인 단막희곡을 창작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단막희곡은 하나의 의의있고 절박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간지게 풀어내어 강렬한 사상정서적충격을 안겨주는 전투적인 짧은 극형식의 하나이다. 이 형식은 비록 간단한 생활자료에 기초하여 인간관계가 명료하고 뚜렷하게 얹혀나가지만 그 반면에 현실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생활국면과 절실한 당정책적요구를 제때에 민감하게 반영하기때문에 전투적인 극형식으로서 당당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극작가들은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한 단막희곡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당 제 6차대회를 앞두고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극문학창작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와 양상의 극형식을 대담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극창작에 기본을 두면서도 경희극과 풍자극 등 다양한 양상의 극문학을 창작하여야 한다.

그것은 주체시대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풍부성, 인민들의 미학적기호의 다양성과 관련되기때문이다.

사상에술성이 높은 희곡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극작가들의 준비정도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오늘 문학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은 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 작품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무엇보다먼저 그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관련되어있다.

사상적내용의 심오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종자의 철학적무게이다. 종자의 철학적무게는 종자가 안고있는 인간문제와 생활의 본질

및 그 진리가 얼마만큼 심각한것인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의의있는것인가 하는데 따라 규정되는 문제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는 또한 사상적내용의 깊이에서뿐만아니라 예술적형상화의 전과정에 보장된다. 생활의 새로운 탐구와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 언어구사는 희곡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이다.

생활을 새롭게 탐구하는것이 희곡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되는것은 바로 거기에서 작가의 인간과 생활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찾아볼수 있으며 사상미학적리상의 높이를 볼수 있게 되기때문이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도 희곡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중요한 형상적요인으로 되고있다.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는 종자와 주제사상적과제에 복종되면서도 그것자체로서 작품전반의 철학성을 심화하는데 직접 작용하게 된다. 희곡에서는 매개의 장면과 장면들에 다 깊은 뜻을 담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희곡에서 주인공들의 행동 하나 대사 한마디는 무의미한 움직임이나 사건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시대와 생활, 인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철학적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희곡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데서 언어구사는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사를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하는 희곡의 특성인 그것을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한다.

대사에서 하나의 문장도 그것을 어떻게 엮어나가고 하나의 어휘도 그것을 어떻게 끌라쓰는가에 따라서 표현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질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심도가 깊어질수도 있고 깊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언어표현의 심도는 곧 관중과 독자들에게 안겨지는 생활적본질의 심도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짧은 단어결합이나 문장속에도 거대한 생활의 진리가 담겨질수 있고 하나의 단어, 하나의 토에도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줄수 있다.

희곡작가들은 대사형상을 잘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우리 인민의 오랜 생활의 교훈이 집약되어 있는 성구, 속담들을 적절하게 탐구선택하여 쓰는것은 대사에서 철학성을 심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속담들은 그것자체로서도 벌써 철학적내용이 담겨져있는것이 많다.

명백하고 형상적으로 표현되고있는 우리의 많은 성구, 속담들에는 참으로 깊이있는 생활의 철학이 담겨져있다.

우리 극작가들은 희곡작품창작에서 대사형상을 더 잘함으로써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적심도는 깊이있는 창작적사색을 전제로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사색의 빈곤은 작품의 철학적빈곤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 극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는 여기에 바로 희곡작품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가 있다.

창작적사색은 그 어떤 우연적인 《경감》이 아니다. 그것은 작가의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탐구과정이며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의 반영이다.

때문에 우리 작가들이 창작적사색을 깊이하여 희곡작품의 철학적심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정치학을 잘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이며 혁명적독서기풍을 세워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것이다.

문학작품은 현실생활의 반영인 동시에 작가의 사상의식의 산물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자신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의 사상의식이다.

작가의 사상의식의 수준과 그 준비정도에 의하여 작품의 사상적내용의 질이 규정되며 사회교양적기능과 역할이 좌우된다.

우리 극작가들은 주제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한다. 작가들의 현실체험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현실에서 벌어지고있는 거창한 사변들을 리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도덕적특질을 옳게 밝혀낼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극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예사상과 당의 주체적인 문예리론을 깊이 학습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현실에서 배우며 현실에서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당 제 6 차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주체적근문학건설에서 빛나는 해로 되게 하기 위하여 《성황당》식극작법의 요구가 완벽하게 구현된, 사상에술성이 높은 기념비적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승리자의 대축전에 충성의 선물을 마련하여야 할것이다.

높은 요구

류정옥

1

생필직장 공정기사 정세형은 발끝만 보며 걸었다.

그의 쪼프린 미간과 쌍가풀진 눈에는 생각이 매달려있다.

아닌게아니라 젊은 기사의 머리속에는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새로운 성능의 기계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있다혹시 뜻밖의 실패에 부닥치거나 앉겠는지? ... 어찌보면 간단한것 같아보이다가도 까다롭게 굴기 시작하면 아리송해지는것이 기계 속이다.

정세형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가만, 내가 어째서 여기로 왔나?)

그는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렸다. 빨갛고 파란 줄이 돌아가는 유리원통이 눈에 마주쳤다.

리발소다. 정세형은 덩수룩해진 뒤통수에 손을 가져갔다. 동무들이 《숲이 무성했다》고 하던 우스개소리가 생각났다.

리발소 대기실에 들어선 정세형은 끝자리를 찾아 앉았다. 맨첫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정세형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목공직장 김석준아바이였다.

《정기사, 일이 잘돼가나?》

아직 대학생티를 가지지 못한 정세형이었으나 석준은 언제나 깍듯이 기사라고 부르곤 한다. 기사라고 해서 존대하는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 사명을 깨우쳐주는것 같기도 하다. 《예, 그저...》

잘된다고 할수도 없고 안된다고 하기에 도 딱해서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정세형과 석준은 30 년간이라는 연령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생활은 그들 두사람을 가깝게 접근시켜놓았던것이다.

정세형이 생필직장에 배치되었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석준이다. 그는 미안스런 어조로 공구함을 부탁했다.

《일차비가 괜찮단말이야.》

석준은 정세형이가 마음에 들었던지 피나무단판까지 붙인 공구함을 제작해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후 정세형은 못이 하나 쓸 일이 생겨도 서슴없이 아바이를 찾아갔고 공장생활에 대한 선협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도 찾아가곤하였다.

은연중 그들은 속심을 털어놓을만큼 친숙해졌

다. ...

아바이는 또 물었다.

《그 기계가 완성되면 일용품생산이 열배나 높아진다면서?》

《그렇습니다.》

《음- 모두 자네를 쳐다보게 됐군.》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필직장에서 나오는 전기 일용품들은 시제품에 불과한것이었는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향상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공장에서는 그 종수와 생산량을 훨씬 높일것을 결의해나섰다. 이 결의를 한시바삐 관철하는 문제가 정세형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말할수 있다.

그렇수록 그의 머리는 걱정으로 가득차있다. 새 기계에서 나오는 부분품의 생산량은 열배로 높일수 있지만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분품들에 구멍을 뚫은 다음 공정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아바이앞에 궁색스런 기색을 보이고싶지 않아 짐짓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요.》

《잘 되겠다?! ... 그럼, 걱정도 해야지.》

정세형은 자기 속을 꿰뚫어보는듯한 시선에 은연중 긴장해졌다. 그러나 아바이는 눈을 쪼프리고 창밖을 내다볼뿐이었다.

그가 눈을 쪼프릴 때면 속내를 알수 없는 능청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곤하여 세형은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 마침 손님을 찾는 리발사의 목소리가 친절하게 울렸다.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분명 석준아바이 차례인데 그는 아무 소리도 못들은듯하다. 그 옆에 사람이 일깨웠다.

《아바이, 빨리 들어가십시오.》

《내가 왜 들어갈고!》

《? ...》

모두 석준을 의아스레 쳐다보았다.

《바쁜 사람부터 봐야하지. 저절 못봐.》

석준은 리발실안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턱으로 가리켰다.

정세형은 그쪽을 돌아보았다. 거기엔 전에없던 굴쭉지가 붙어있다.

《생필직장동무들에게 먼저 깎아드립니다.》

또박또박 정성들여 쓴 까만 글자들이 정세형을 또릿또릿 쳐다보았다.

그는 어쭙게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어디 가나 생필직장이다. 식당에 가도 사람들은 《어, 생필 이리로 오라구!》하며 앞으로 끌어내세운다. 전투속보에는 물론 기술협의회나 참모회에서도 빠짐없이 일정에 오르는것이 생필이다. 한편 사람들은 로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필직장 일용품생산을 지원해나섰다.

오늘은 여기 리발소에서까지 특별대우를 한다. 몇달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생필직장 공정기사로 임명된 정세형은 습관에 없는 이런 대우앞에 거북스럽고 미안하여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어서 들어가게나 기사.》

다른 사람들도 정세형의 등을 밀었다.

리발사의 목소리도 정세형을 안으로 끌어당긴다.

《생필직장에서 오셨으면 먼저 들어오세요.》

세형은 밀리우고 끌리우다싶이 리발의자에 가서 앉았다.

처음으로 이런 대우를 받으려니 한증탕에라도 들어간듯 이마에 땀발이 내솟았다.

(후-쉬운 일이 아니군.)

앞에 걸린 커다란 거울속에는 물부리를 빼금빼금 빨고있는 아바이가 보였다. 그 물부리는 쭉뽀리로 만든것인데 묘한 빨들이 울퉁불퉁하여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도개비뽀》이라고 뽀들을 하였다.

정세형은 그 물부리를 볼때마다 언젠가 기술학습회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한다.

그때 아바이는 학습이 끝나자 버릇처럼 담배를 물부리에 꽂아물었다. 눈을 쪼프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물부리를 들여다보며 느닷없이 입을 열었다.

《여보게 강사!》

정세형은 기술학습반 강사였다.

《이걸 좀 보라구. 불이 붙은 담배끝에서 피는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물부리끝에서 나오는 연기는 왜 아래로 내려가나?》

뽀박의 질문이여서 정세형은 얼머름하였다. 소뽀이 귀우에 있는가 귀아래 있는가 하는 물음을 받았을 때처럼 얼른 대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바이의 표정을 보아서 알면서 묻는것인지 몰라서 묻는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알고보니 아바이는 엉뚱한 질문으로 이따금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곤한다고 했다.

정세형은 톡톡히 쓴맛을 본때도 있었다. 그가 주형제작에 쓰는 여러가지 모래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을 때다.

아바이는 이렇게 물었다.

《여보게 강사, 주물은 왜 모래로만 하나? 모래 털기도 힘든데.》

《여러가지 기술적조건때문입니다. 이제껏 설명한게 그 내용입니다. 주물력사가 몇백년이지만 그건 어쩔수 없는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처음부터 바른손으로 밥을 먹게 버릇했으니 바른손으로 먹는게지. 아마 왼손으로 먹는 버릇을 붙였으면 모두 왼손으로 먹을게 아닌가?》

결국 정세형은 한फल 먹은셈이었다. ...

정세형의 옆의자에서 리발을 하던 리발사가 다 음손님을 찾았다. 아바이가 들어올 차례였다. 현대 거울속에 비친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또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느라고 저러는게 아닌가?)

아닐세라 잠시후 정세형이 리발을 끝내고 어색스레 뒤더수기를 문대며 나왔을 때 불쑥 말을 걸어왔다.

《기사, 거 요즘 온 공장이 생필을 지원하고있는데 이 목공은 좀 도와줄게 없겠나?》

《고맙습니다. 글썽...별로 ...》

《음- 없다는 말이로군.》

《뭘 걱정마십시오. 다 잘 될겁니다.》

정세형은 나가려고 했다.

《원 그렇게 바쁘다구야. 담배나 한대 태우고 가게나.》

(또 시작되는군, 순순히 놓아두는 때가 없다니 까.)

정세형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바쁘긴 일이 다 잘 될텐데.》

아바이의 쪼프린 눈에선 능청스러운 빛이 떠돌았다. 아무래도 그저 빠져나갈수 없을것 같다.

《정 그러시면 새 기계가 다 된 다음 기대공들이 올라설 발판이나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발판?!》

그는 마뜩지 않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왜 그러십니까?》

《기사 머리속에 있는게 발판따위는 아닐텐데?》

세형은 웃고말았다. 사실 그는 발판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리에는 새 기계에 대한 생각들로 꽉 차있었고 그 다음 공정인 구멍가공에 대한 걱정이 때때로 비껴들곤하였다.

그는 아바이가 자기의 속내를 뽀드름히 들여다보는것만 같아 조금전에도 무심중 떠돌았던 걱정을 털어놓고말았다.

《원, 아바이두 그럼 새 기계에서 나오는 부분

품들에 구멍 뚫는 기계라도 하나 만들어보지요.》

《기계를?!》

아바이는 리발사가 기다리는것도 보지 못한듯 덤덤히 말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뚫는 구멍들이 아마 복잡하지? 큰것, 작은것에 생김새두 죄다 다르겠다.》

《그렇습니다.》

정세형은 건승 대답하였다.

아바이는 일어나서 리발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복잡하군. 음- 복잡하다니까.》

2

기계란 사실 복잡한 물건이다.

새 기계는 생각대로 부분품들을 쏙아놓지 않는다. 어디에 병집이 있는가.

정세형은 뜯어놓은 기계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그옆에는 우그러든 부분품들이 주련이 놓여 있다. 처음것은 잘 굳지 못한 박처럼 뒹뒹하니 마감것은 처음것과는 대비할수 없을만큼 미끈하다.

그러나 굴곡부분들이 자기 형태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 현대 이제에는 그이상 더 전진이 보이지 않는것이 문제다.

여러가지 기계들에서 우점들을 따내어 성능높은, 그러면서도 생필직장 실정에 맞는 새 기계를 만들어내자니 기술조건들을 새롭게 찾아야 하였다.

성급한 사람들은 능률은 열배나 넘고 뿔뿔 나온 부분품들도 그만하면 《어른이다》고 하면서 빨리 생산에 도입하자고도 하였다. 세형이 머리를 젓자 생산보다 자기 창안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비난비슷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식당에 가면 《어, 생필, 앞으로 오라구.》하는 소리가 무슨 비난처럼 들리기도 하였고 리발소앞을 지날 때면 거기에 붙어있는 글썽지도 손가락질을 하는것 같기도 하다.

(정말 내가 자기만을 생각하는걸가?)

그는 정색하여 자신에게 물었다.

사실 마지막 부분품은 팬찮다. 퇴치못한 약간한 결함은 있지만 생산에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는것 같다.

(생산을 하면서 차차 완성할가?...)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기도 하다.

(사실 첫인상이란 중요하지.)

정세형이 어차피 생산에 도입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품을 여기저기 만져보는데 뒤에서 발자

국소리가 났다. 뒤이어 그 소리가 푹 멎으며 전등불이 깜빡 꺼졌다.

세형은 얼른 고개를 돌렸다.

《음, 밤을 새운게군.》

작업복차림의 석준아바이였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아파트건설장의 기증기는 벌써 머리위에 아침햇빛을 들쓰고 번쩍거렸다.

《아바이가 어떻게?... 벌써 출근하셨습니까?》

《뭘, 자네보다야 늦었지.》

석준아바이의 얼굴은 피로해보였고 눈가의 주름살은 더 깊어진것 같다.

《잘 주무시지 못한것 같습니다.》

《늦은것들 잠이란게 원래 그런게지. 자는듯 마는듯 날이 샌다네.》

석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바닥에 널린 기계부속들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하군. 음- 복잡하다니까!》

정세형은 이 수백여종에 달하는 부속들때문에 소재직장이며 가공직장, 자재창고로 뛰어다니며 애를 태운 자기의 수고를 아바이가 마치도 다 헤아리고있는듯이 느껴졌다.

문득 아바이에게 생산에 도입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싶어졌다.

아바이는 그의 심정을 알기나 한듯 주련이 놓인 제품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앉은걸음을 놓으며 처음것부터 마감것까지 살펴보았다.

정세형은 눈에 긴장을 담고 그의 뒤를 바라보며 무슨 말이 나오려나 하고 기다렸다.

《이게 맨마지막놈이군.》

《그렇습니다.》

석준은 부분품의 굴곡부분을 손으로 몇번 쓸어보더니 입술을 뽀주름이 내밀었다.

《말썽을 부리는군, 그렇지 기사?》

《예?》

《우그러졌단말이야, 기술혁신이란게 역시 쉬운일이 아니야.》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세형은 그만 약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성과를 볼대신 결함만 끄집어낸다.

《그래도 처음것보다야 펍 낫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

《생산량은 열배가 넘습니다.》

《그럴테지, 그것 참! ... 살짝곰보두 곰보는 곰보렸다. 그렇지, 기사.》

정세형은 미간을 찌프렸다.

언제나 깍듯이 기사라고 불려주는 아바이의 말투가 더 비위를 거슬렸고 자기의 숨길수 없는 기술적약점앞에 더욱 화가 났다. 그제야 정세형은

자기가 아바이에게 이만하면 대단한것이니 생산에 도입하자는 말을 기다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아바이는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그 유명한 담배물부리를 꺼내들었다. 그것을 입에 물고 한번 내불었다. 그러나 식-하는 소리가 날 대신 그의 불이 공처럼 불룩해졌다.

《어이쿠, 또 땃구만.》

그의 입에서는 탄식조가 흘러나왔다

그는 물부리를 쭈시면서 말했다.

《글쎄 내 산에 갔다가 이 썩뿌리를 하나 얻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놈을 만들었지. 그런데 그만 구멍을 잘못 뚫어서 이렇게 메군한다네. 몇대 피워보고 다시 뚫자했는데 어디 그렇게 되나. 래일 래일 하기만 하구... 늙은게 어서 빨리 물부리 자랑을 하고싶더라만말일세, 누가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이크 이제야 뚫렸군.》

아바이는 듣기도 시원할만큼 입으로 식- 불어 보고나서 담배를 꽂아물었다.

정세형은 멍해지고말았다.

아바이의 엉뚱한 이야기는 정세형의 속을 뻘히 들여다보고 하는 말같았다. 아마도 생산에 도입하고싶었던 속내를 털어놓았더라면 아바이는 반드시 제자랑을 하고싶어 그런다고 말했을지 모른다.

순간 씻을수 없는, 생각하면 지금도 수치감을 자아내는 대학실습때의 일이 떠올랐다...

실습기간 정세형은 단능탁상볼반을 자체로 설계하여 제작할 과제를 받았다. 아직 낮은학년이여서 학급적으로 이런 과제를 받기는 그가 처음이었다. 그는 자부심과 흥분속에 밤을 새며 서돌렸다. 일은 순조롭게 되어갔다. 헌데 볼반 회전축 소재에 가서 걸렸다. 필요한 규격강이 며칠 있어야 들어 온다는것이다. 며칠이라는것이 그에게는 몇달이라는 말처럼 들렸다. 한시바삐 기계가 움직이는것을 보고싶었고 정세형이가 만든 기계라는 소리를 듣고싶기도 하였으며 또 정말로 실수없이 기계가 돌아갈까 하는 호기심과 위구심이 뒤엉켜 어쨌든 빨리 그 결과를 보고싶었다.

생각던끝에 그는 후에 바꾸어맞추리라 마음먹고 강도가 좀 낮은 강을 리용하였다.

볼반이 돌아가고 그것이 쇠덩이에 구멍을 뚫을 때 무척도 기뻐다. 기계를 만들줄 안다는 쾌감과 불시에 자기가 그 무슨 보배로운 존재가 된듯 싶어 그저 행복하고 기뻐다.

그러나 그가 대학을 졸업할무렵에 와서는 그 볼반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낡아버렸다. 강의 재질과 가공 및 조립에서의 정밀도가 보장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다.

정세형은 자기의 조급성과 불성실성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였다.

(나는 저 파철과 함께 다시 용광로로 가야 한다.)

그는 자신이 오점을 땅속깊이 묻어버리려 했지만 그 저주로운 수치감은 잘 지워지지 않았다.

정세형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폐물이 된 기계, 파철이 된 볼반이 눈앞에 덩실 떠올라 눈뿌리를 아프게 질렀다. 그는 또다시 그 초췌한 물건이 자기의 물골처럼 보이기도 했다.

아바이의 쪼프린 눈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것만 같다.

(자기를 앞세우는건 좋지 않은 버릇이지.)

정세형은 점점 더 화가 났다. 모든것이 조금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기때문이다. 그는 어느 책에선가 본 글이 한구절 생각났다.

《...자네가 화를 내는걸 보니 틀림없이 죄가 있는게 분명하군...》

(완성해야지. 기어이 완성해야 해.)

석준은 정세형을 마주 쳐다보았다.

《여보게 기사, 내 한가지 물어볼 일이 있네.》

《무슨 일인데요?》

정세형은 이래저래 흥심이 나지 않아 시들하게 응했다.

《칼날이란게 잘라야 할 물건은 찌르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세형은 어이가 없었다.

《내참, 거야 날을 세워야지요.》

《날은 세울만큼 세워네.》

《그럼 힘을 더 주어야지요.》

《힘은 그만큼밖에 더 줄수 없는걸.》

어째서 이런 맹랑한걸 물어보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정세형은 통명스레 대답했다.

《그럼 못찌르지요.》

《기어이 잘라야 하겠는데 그것도 단번에...》

(아마 목선반에 무슨 지구를 창안하는게지.)

그는 투덜대듯 말했다.

《그럼 연구해야지요 뭐.》

《옳거니, 연구해야지!》

아바이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렸던것처럼 되받아 외우더니 물부리를 주머니에 밀어넣고 일어났다.

《연구해서야 안될게 있나. 일이라는게 그만하고 생각하면 안되고 어떻게든 하자고 마음먹으면 다 되는게지, 안그래 기사?》

《그렇습니다.》

아바이는 요구했던 대답이나 받은듯 흡족해서 출입문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던 그는 다시 돌아보며 눈을 끔벅거렸다.

《마음먹기탓이거던. 마지막고비가 제일 어렵단 말일세. 별로 높지도 않은게...》

문이 닫졌다.

정세형은 출입문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도모르게 픽 웃었다.

(참, 무슨 투시경이라도 쓴것 같다니까.)

아바이가 자기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어본것만 같았다. 자기 역시 아바이에게 모든 사연을 숨김없이 죄다 털어놓은듯싶어 어딘가 마음이 후련하였다.

(마지막이 제일 어렵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한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

이때 별안간 《그럼, 그럼, 그렇지!》하는듯한 우렁찬 소고소리가 쿵, 쿵-쿵다쿵하고 들려왔다.

정문쪽에서 유치원 꼬마대렬이 들어오고있었다. 진한 무대화장을 한것을 뽐내며 활짝 웃는 얼굴들이다. 매미나래같은 무용복이며 알록달록 꽃다발들로 하여 대렬은 말그대로 꽃물결이다. 사내애들은 채바퀴만큼씩한 소고를 메고 우쭐렁렁고 반장인듯 대렬앞에서 걷는 애너석은 소고대신에 제키 만한 종이두루마리를 한쪽 어깨에 둘러맸는데 거기에 《생필》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외로 찍혀있는것으로 보아 생필직장에 대한 속보가 분명하였다.

정세형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저 애들도 나를 독촉하는군》

아이들대렬은 생필직장쪽으로 꺾어들었다. 뒤이어 그의 시야에는 정문쪽에 있는 속보관 이마우에 붙은 커다란 구호들이 안겨왔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다그치자!》

처음 대하는 글발이 아니였으나 이순간 그것도 자기를 지켜보는것처럼 느껴졌다.

3

정세형은 마주치는 해살에 눈을 쏘프리며 직장 사무실에서 나왔다. 몹시 맑은 날씨다.

아카시아향기며 풀향기가 뒤엉킨 초여름의 싱싱한 대기에 취할것만 같다.

그는 코를 별름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맞은편 길옆의 버두나무며 방울나무들 사이에 유독 한그루 서있는 아카시아나무가 하얗게 되었다.

푸른 나무속에 둘러싸인 아카시아꽃, 그것은 록음속에서 설경을 보는것 같은 이채로운 정서를 주었다. 냄새도 좋지만 보는것 또한 그만 못지

않다.

넓은 이마밑에 깊어보이는 그의 눈에 기쁨이 가득했다.

(아, 참 좋구나! 어제든 분명 여길 지나다냈겠는데, 몰랐거던...)

그렇만도 하다. 어제 저녁에야 새 기계의 마지막 시험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생산에 도입한 정세형이다.

그렇게도 힘들어보이던 마지막고비는 아바이의 말과 같이 정말로 신비한것이 아니었다. 지어는 너무도 평범한데 실망할 지경이었다. 것처럼 풀리지 않던 문제는 소재가열온도와 기압이었는데 찾아놓고보니 어이없을만큼 간단한 수자들이었다.

과학이란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는 엄격한 심판관과도 같은 때가 있어 사소한 껌질속에 숨어있는 간단한 리치도 몹시 린색하게 드러내군한다.

정세형은 그 시점앞에 주춤했던 일을 생각하니 혼자서도 부끄러웠다. 아바이가 아니었다면 또 다시 수치를 면치 못했을것이 다. 그러고보니 그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새삼스럽다.

그동안 잠도 휴식도 죄다 바쳐온 그였으나 기분도 건강도 무척 좋았다. 창조라는 커다란 기쁨 때문인것 같다.

그는 진실로 기뻐다. 대학때처럼 허영과 자속에 도취된 그런 기쁨이 아니다. 자기에게 기술을 주고 힘을 주었으며 기술자의 량심, 성실성을 키워준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적은것이나마 이바지할수 있는 하나의 창조물을 낳았다는 그것이다. 자기의 첫 창조물이 아버지수령님의 교시 관철에서 은을 내게 된다.

인류가 달성한 크고작은 과학의 그 모든 산물을 고스란히 향유만 해온 자기가 이제는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 일정한 자리에 서게 된것이다.

정세형은 자기가 기술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한계단 우뚝 올라섰음을 스스로 느끼며 기뻐하였다.

어제저녁 완성된 시제품이 나왔을 때는 불만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며 이웃직장 사람들까지 하얗게 밀려들어 너도나도 손을 잡아 흔들어서였다.

헌데 그 많은 사람들중에 석준아바이가 보이지 않는것이 정세형은 어딘가 섭섭하였다.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찬사를 모아 아바이에게 인사를 하고싶었다. 또 정세형이 자기의 성공을 두고 만족해할 아바이의 모습도 보고싶었다. 그런가 하면 이러저러하게 아바이앞에서 실패만 당해온

정세형이도 이 순간만은 가슴펴고 나설수 있을것 같았다....

정세형은 다시한번 코를 벌름거리 아카시아향기를 욕심스레 마시며 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금 리발소로 가는길이다. 아직 별로 더부룩하진 않았지만 큰 일을 한 뒤끝에 생기는 안도감에서 머리까지 말끔히 깎고싶어졌던것이다.

《정기사동무!》

별안간 찾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공장속보원청년이다. 그는 길옆에 세워놓은 큰 벽체만한 속보판앞에서 소리쳤다.

《이걸 좀 도와주고 가지지 않겠소.》

정세형은 기꺼이 다가갔다그는 속보원이 들고있는 종이마리가 장대같이 긴데 눈이 커졌다.

《이건 무슨 속보가 이렇게 요란하오?》

《글쎄 뭐 별치 않은 소식같은데...》

청년은 싱글벙글 웃기만 하면서 뒤말을 잊지 않고 숨씨있게 풀칠을 하더니 두루마리를 짹 펼쳐붙였다.

거기엔 정세형이란 이름과 만능기계란 글자가 십리밖에서도 볼수 있으리만치 크게 박혀있었다.

《예끼, 사람두!》

《이것이 그저 보통 사나이 축하지요.》

두 청년은 즐겁게 꺾꺾거렸다.

리발소쪽으로 다시 걸음을 떼던 정세형은 그 맞은쪽에 붙은 속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목공 김석준아바이가 생필직장 일용품 구멍가공기창안을 완성중에 있다.〉 ... 저게 뭐요?》

그는 어리둥절해서 속보원을 쳐다보았다.

청년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다.

《대중적기술혁신이 벌어지는 때가 아닙니까.》

역시 속보제목과 같은 대답이었다.

《?! ...》

정세형은 이제야 어슴푸레 짐작되는게 있었다.

언젠가 아바이가 그 무슨 칼날에 대해 묻던 일이며 리발소에서 부분품구멍에 대해 쿵쿵히 묻던 일이 우연한것이 아니였음을 알수 있었다.

《호랑이 제소리 하면 온다더니 〈령험하신〉 아바이가 저기 오십니다.》

속보원은 눈을 꿈쩍거리며 싱글거리다가 가버렸다.

김석준은 청년이 방금 붙여놓은 속보에 눈길을 주다가 무심히 스쳐버리며 세형이앞에 와서 걸음을 늦추었다. 눈치를 보니 그는 이미 새 기계 완성에 대한걸 알고있는게 분명하다.

헌데 전혀 아무런 반응도 없는게 이상스럽다. 좀 서운한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구멍가공기라는 놀라운 소식앞에 그 감정은 눌리고말았

다.

《아바이,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강사가 나한테 숙제를 주지 않았나.》

정세형은 감동어린 눈으로 주름잡힌 아바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랜 목공경력을 가진 그가 온갖 재간이 다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기가 지나는 말로 한마디 스친 말을 이렇게 스스로 말아안을줄은 정말 몰랐다.

문득 전번에 칼날문제를 비치던 그를 푸점없이 대해준 일이 마음에 걸렸다.

《전번 일은 참 안되었습니다. 전 그런줄은 모르고...》

《일은 이제부터야, 고약하게도 그런 생각이 어제야 떠오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라니요? 아직 그 칼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기계는 다 된거나 같애. 칼날도 새 방법으로 개조했구 능률도 자네가 만든 새 기계를 따라갈 만 하지.》

(그런데 이제부터 일이 있다는건 무엇이람?)

정세형은 다음말을 조금히 기다렸다.

그러나 아바이는 전혀 판소리를 했다.

《어데로 가던길인가? 기사.》

《아니 뭐 일없습니다.》

《그럼 가세.》

아바이는 정세형을 구멍가공기가 조립되어있는 작업장으로 데려갔다.

기계는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각이한 형태의 술한 구멍들을 한꺼번에 뚫을수 있었다. 탐구와 고심의 흔적들이 보였다. 기계형태의 세련성이며 구조의 간편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족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어쩐지 오히려 그것이 이 기계의 장점이고 특성인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아바이, 정말 훌륭합니다. 헌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늙은 목공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응수도 없이 한쪽구석에 있는 작업대에서 부스럭부스럭 도면을 걸어두고 다가왔다.

《받게-》

세형은 얼른 도면을 받았다. 어쨌든 이제라도 아바이를 방조할수 있는게 그로서는 전번의 실책을 메꿀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 오히려 다행한 일이었다. 세형이 도면을 펼치려는데 아바이는 그것을 밀막았다.

《보는건 가서 보지 않겠나? 기사.》《가다니요?》

《자네가 만든 기계를 보잔말일세.》

(몹시도 급하겐 구시네. 갑자기 새 기계가 보고 싶은게지...)

하긴 아바이에게 새 기계를 보이고싶던 마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 같아 정세형은 마음이 즐거웠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듯한 기색을 지으며 도면을 둘둘 말아들고 앉았다.

두사람은 새 기계앞에 이르렀다. 우람한 기계는 큰 숨을 쉰채 서서리며 잠간사이에 부분품을 하나씩 뽑아냈다. 흠잡을데 없이 매끈하고 원만한 것들이다.

젊은 기사는 제품과 아바이를 번갈아 살폈다. 정확히 말하면 제품을 대하는 아바이의 기색을 살피는것이다.

그는 벌써 구멍가공기도면에 대해서는 감감 잊어버렸다.

그러나 아바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그는 참다못해 먼저 물었다.

《어떻습니까?》

《음-괜찮긴 한데 ...》

(무척두 린색하시군.)

《기사, 이젠 이 기계에선 손을 완전히 뎀셈인가?》

《예?!》

젊은 기사는 무슨 소린지 말귀를 못알아들은 사람처럼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보아하니 또 무슨 흠집을 잡으려드느게 분명하다. 그러나 10 점짜리 답안을 전 학생처럼 마음은 든든하였다.

《아바이, 저는 여기서 기계적원리로 보나 생산성으로 보나 크게 흠잡을데를 찾지 못했는데요.》

《글쎄, 기사말이 틀린데야 없겠지. 한데...》

정세형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내 욕심같아서는말이야. 아예 이 기계에서 제창 구멍까지 뚫려나왔으면 좋겠거던!》

정세형은 아바이의 말을 부정했다.

《이 기계는 부분품에 구멍이 뚫리면 바람이 새나가서 안됩니다.》

그는 이런저런 기술적조건들을 들어가며 불가능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늙은 목공은 아무 소리도 못듣는 사람처럼 기계의 복잡한 기구들만 살펴보았다.

《그럴테지..기사말이 다 옳겠지...》

그는 뒤집을 지고 창문쪽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거기에선 공장울타리밖에 일어서는 주택건설장이 보였다. 오래전에 지은 6 층짜리 아파트에다 2 층을 더 올리는 공사였다.

그는 얼굴을 돌리지 않은채 말하였다.

《기사, 거 공기가 새지 않게 할수 없을가?》

정세형은 안된다는 말이 혀끝에까지 나오려던 순간 피땀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무엇인가 또 지금 자기가 덜미를 잡히고있다는 예감이였다. 언젠가 《주물은 왜 모래로만 하나? 모래털기도 힘든데.》 하고 묻던 표정과 그 어조가 그대로 려나와있었다.

지금 또 그때와 같은 실패에 직면하고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바이는 아무런 대답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처럼 뜻밖의 말을 중얼거렸다.

《집우에 또 집을 덧짓는다... 집을 세워둔채 기초보강법이라! ...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그렇지, 기사.》

그는 창문에서 돌아섰다.

《남이 못하는걸 하는게 우리 노동자구, 기술자가 아닌가. 안그래? 기사.》

《! ...》

젊은 기사는 늙은 목공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알아들었다.

그는 아직 손에 들려있는 도면을 내려다보았다. 무엇때문에 그 도면을 자기에게 주었는지도 알수 있었다.

X

X

정세형은 발끝만 보며 걸었다. 그의 머리속에 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범벅이 되어 돌아갔다.

아바이는 자기의 발명품까지 서슴없이 넘겨주며 새 기계에서의 동시구멍가공이라는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있다.

자기의 창조물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만족해한 자기를 생각하니 아바이의 높은 자세와 요구앞에 절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동시가공방도를 찾아야 한다. 무거운 파제다. 근심되었다.

땡-땡, 정문을 들어서는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그는 머리를 들었다.

그는 큰 일을 한 뒤끝에 생기는 안도감에서가 아니라 크나큰 일을 앞에 두고 그 준비를 갖추는 심정으로 리발소로 들어갔다.

대여섯명의 유치원아들이 긴의자에서 엎치락뒤치락 장난을 하다가 정세형을 보고 오구구 모여들었다.

《생필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엇그제 정세형을 축하하러 왔던 애들이였다.

《오, 너희들이구나!》

그는 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기도 하고 사과알 같은 불을 다독여주고는 의자에 가서 앉았다.

유리간막이 저쪽에서는 리발사의 다정스런 목소(38 페이지에 계속)

산간역

서정호

1

구내밖을 벗어나가는 전기기관차의 목갈린 듯한 기적소리가 산밭에 메아리를 일으키며 저 멀리 구울러간다.

마지막 분기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내들었던 차장처녀의 기발도 내려지고 그가 탄 차장차의 모습마저 굽인돌이로 사라져가자 주위에는 꺼질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짹- 나무잎 설레이는 소리, 실개천의 소연한 물소리, 흐느끼는 듯한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까지도 이 산간의 정적을 깨치기에는 무력한가싶었다.

멀어져가는 렬차를 바라우며 역구내의 한가운데 그린듯이 서있던 지형섭은 자신도모를 긴숨을 후- 하고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서 돌아섰다. 어쩌면 그것은 이번에도 렬차를 정시로 떠나보낼수 있었다는 안도의 숨일수 있었다. 아니면 렬차를 련발시켜 자신의 짧지 않은 생애에 하나의 흑점을 남길번했던 방금전의 그 아짜아짜한 순간이 새삼스레 돌이켜진때문일수도...

철도제모빌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귀밑머리, 휘우듬한 등판, 다난하고도 곡절 많은 지난 생활을 말해주듯 얼기설기 주름이 잡힌 그의 길쭉한 얼굴에는 시름과도 같은 무거운 빛이 질게 어리여있었다.

지형섭은 여기 평원선의 한 중간역인 산곡역과 더불어 일생을 같이해오는 오랜 역장이다. 30 여년동안의 그의 역장생활에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하지만 그는 아직 단 한번도 렬차를 련발시키었거나 사고를 낸적이 없었으니 이것은 그의 자랑이요 기쁨이기도 하였다. 그렇던 그에게서 방금전에 있는 일은 분명 그의 심장을 놀래우기에는 충분한 하나의 사변으로 보아야만 할것이였다.

...렬차는 오늘도 정시로 구내에 들어왔었다. 오늘따라 부리우고 부치는 짐들이 많았다. 저기 오른컨꼴짜기에 자리잡고있는 탐사대마을사람들과 이곳 농장원들의 짐이였다.

부치는 짐들속에는 화물원 경찰이 《아량》을 베껴와 받아들이는 규정대로 포장되어있지 않은 몇 짹의 짐짝들도 섞여여있었다. 지형섭으로서는 그걸 못본척할수가 없었고 따라서 잘 묶을걸 요구하지 않을수도 없었다.

그러느라니 시간은 턱없이 흘러갔고 화물렬차가 들이닥친후에도 얼마간은 잔손질이 남아있었다.

예기치 않던 사태앞에서 승무화물원청년은 몹시 안달아했고 지형섭이 역시 땀을 흘리며 바빠돌아쳤다. 화물원인 경찰의 일을 그가 그렇게 서둘러 도와주지만 않았던들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노릇이였다.

정말이지 다행이였다. 운전지휘원은 때맞추어 기발을 흔들수가 있었고 차장의 신호를 받은 기관사는 한초의 어김도 없는 정확한 시간에 렬차를 출발시킬수가 있었던것이다.

사태는 이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지형섭이 이토록 마음이 무거워짐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런 엄중한 사태를 빚어낸번한 경찰의 그 무책임성때문이였고 이런것에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자신의 실책을 새삼스러이 의식한데서였다.

물론 지금껏 일을 괜찮게 해온 경찰이고보면 있을수 있는 하나와 실수라고 가벼이 치부해둘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형섭으로서는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지금은 그전날하고는 형편이 다른것이다. 그전날엔 렬차를 몇초 늦게 보낸것이 문제로 되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숫제 늦게 보낸번한 그 요소자체 부터가 벌써 하나의 사변으로 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그저 리해만 하고 무난히 넘겨버릴수는 없는노릇이였다.

경찰은 도회지인 함흥역에서 화물원을 지내다가 일년전에 이 역으로 조동되여온 청년이였다. 조동이라기보다는 실상은 그자신이 지망을 해서 온것인데 그가 굳이 이리로 지망을 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이곳은 그가 태어난 고향이였다. 정전이 되여 3년이 지난 어느날 련행중에 있던 그의 어머니가 이 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역장인 지형섭이네 집 아래목에서 몸을 풀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경찰이였다.

산모는 이 집에서 20 여일간 몸간수를 하다가 목적지였던 친정집이 아니라 도회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 돌아간후에도 두집사이에는

편지거래가 있었고 경찰의 첫돌때 찍어보낸 사진을 지형섭은 자기 자식들의 사진과 함께 액트에 넣어서 오래도록 벽에 걸어두기까지 하였었다.

그랬던 아이가 어느덧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것이다. 지형섭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마치 잃었던 제자식이 되찾은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향차 경찰은 자기가 태어난 이고장을 못잊어 제가 일하던 도회지의 큰 역마저 버리고 굳이 이 산간역을 찾아왔다지 않는가!

지형섭은 그 마음이 대견해서 몇번이고 그의 잔등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주었었다.

그때 그는 결심했었다. 경찰이를 이 산간역의 믿음직한 기동감으로 키우리라고.

그리하여 그는 당세포를 찾아가 자기 결심을 이야기했고 자진해서 그 분공을 받았으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남모르는 고심을 해오기도 하였었다.

그의 로력의 덕이었던지 아니면 경찰이 스스로의 자각때문이었던지 어떻든 그는 일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있었다. 이것 역시 지형섭의 기쁨이었다.

그렇던 그가 뜻밖에도 오늘 그런 예기치 않던 사태를 발로시킨것이다. 그저 하나의 실수라고만 보기에는 그 후파가 지내 엄중했다고 지형섭이에게는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는 어딘가 허전하고도 서운한 마음을 안은채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교대시간, 역장실외창문을 열어제낀 지형섭은 때마침 교대를 마치고 흠에서 서성거리는 경찰이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었다. 경찰은 웬일이냐는듯 어리뻑해진 눈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었다.

《게 없게.》

지형섭은 맞은편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경찰은 어느때없이 심각해진 역장의 얼굴을 의아한 눈으로바라보며 조심히 의자에 궁둥이를 내려놓았다.

《동문 아까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

《?》

눈을 둥그리는것으로 보아 경찰은 벌써 그 일을 까맣게 잊고있는 모양이였다.

《짐을 다시 묶느라구 차를 늦게 보낼번한 그 일 말이네.》

그제서야 생각난듯 경찰은 슬그머니 얼굴을 붉히며 손등으로 주먹교를 쑥 문다졌다. 난처한 일이 생기거나 흥분할 때마다 하는 그의 버릇이였다.

《어느때두 짐입자들한테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곤했나?》

지형섭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전 그쯤한건 받아뒀두 일없이 앉겠는가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으나 그래도 지형섭이에겐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생각이 굴렀거던. 규정과는 털끝만한 에누리도 해서는 안된다는걸 동무두 잘 알지 않나? 그쯤한거라니?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말하는 지형섭의 어조엔 노여움이 서리고 낮빛이 엄해졌다.

《옳지 않아. 동무의 관점이 그러하니 오늘과 같은 일도 생길수밖에 없지 않나. 난 그대두 동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줄은 몰랐구만. 가령 우리들모두가 다 동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보게. 그럼 우리 철도는 어떻게될텐가? 규정과는 인연이 먼 쓸데 없는 〈아량〉이 결국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구 나라에 손해를 주게 된다는걸 우린 언제나 명심해야 하네. 규정, 그건 곧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기도 하다는걸 잊지 말라구.》

경찰은 목을 끈채 푹푹 손가락매듭을 꺾으며 앉아있었다. 이따금 흘끔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였었다.

지형섭으로서의 어딘가 마음이 들떠있는것 같고 자기 말을 건성으로 들어넘기는것 같은 경찰이의 그 태도가 언짢게 생각되었으나 개의치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어떻든 그런 관점은 버려야 하네. 그걸 버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큰 파오도 범할수 있다는걸 알라구.》

경찰은 여전히 대답이 없다. 그는 슬며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또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보냈다. 정신을 판데 팔고있는게 분명했다. 얼굴엔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어리였다.

때마침 홀에는 화물렬차가 서서히 들어서고있었다. 때 역마다 서게 되는 정기화물렬차였다.

순간 지형섭에게로 머리를 돌린 경찰의 얼굴에는 어딘가 애원에 가까운 그리고 자기를 원망하는듯한 야릇한 표정이 비끼였다.

(허, 이너석이 왜 이렇가?)

지형섭은 얼마후 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이른 다음 허파에 바람이 든듯한 그를 놓아주었다.

경찰은 마치 놀리웠던 스프링에서 튀어나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주먹을 부르쥐고 흠으로 내달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흠에서는 화물렬차가 서서히 자국을 떼어놓고있었다.

경찰은 뛰던 걸음을 멈추고 이미 처편으로 사라진 렬차의 뒤편무니를 멍청하니 바라보며 서있었다.

(혹 누구와 만나자는 약속이 있었던거나 아닌지?)

지형섭은 느닷없이 마음이 불안해났다. 공교롭게도 그런 시간에 그를 불러들인 자신이 언짢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너석 그렇다면 말이나 할노릇이지.》

지형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때마침 책상위에 웅크리고있던 전화기가 자지러진 소리를 질렀다. 지형섭은 옷자락이라도 붙잡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 눌러선채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역장 지형섭이 전화받습니다... 예? 래일ियो? ... 알겠습니다.》

관리국으로부터 걸어온 전화였다. 래일아침차로 관리국에 올라왔다 가라는 지시였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만나서 나누자고 한다.

지형섭은 어딘가 마음의 긴장을 느끼며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2

소문이란 빨랐다. 지형섭이 도회지인 《ㅎ》역의 역장으로 임명되어간다는 사실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비밀로 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조동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축하하는 그들의 얼굴엔 기쁨보다도 서운해하는 빛이 더 짙게 어려있는듯 했다.

지형섭의 마음 역시 그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로서는 30 여년동안 정이 든 이곳을 떠나는것이,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침묵 하나 조약돌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것에도 애투한 추억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는 정든 이 역을 떠나는것이 어간만 서운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의 마음을 그러잡고 놓아주지 않는것은 이 역과 얽혀진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그 가슴저미는듯한 회고때문이었다.

지형섭은 워낙 전철초시기까지만 해도 화물렬차의 차장으로 일을 했었다.

한번은 군수물차를 싣고 가던 그의 렬차가 이 산곡역구내로 들어와서 그만 적기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화차광무니엔 불이 달리었다. 위기일탈의 순간이었다.

그때 이 역의 한 나이지숙한 전철원아바이가 불속으로 뛰어들었다. 아바이는 못빠기 겸용의 지레대로 화차를 분리시킨 다음 그걸 밀고 구내 밖으로 내갔다.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 달려갔으나 아바이는 마구 교환을 지르며 근방엔 얼씬도 못하게 했다. 하긴 그때 차도 이미 바람을 낸후여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없기도 했지만...

차를 몰아가는 아바이의 모습은 말그대로 불사신의 형상그대로였다.

얼마후 화차는 폭발했다. 그래서 결국 렬차는 구원되었지만 아바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폭풍에 날리었던 지형섭이 정신을 차린것은 그 화차가 폭발하기 얼마전이었다. 그것은 그가 살아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볼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지형섭은 입술을 깨물며 렬차를 출발시키

였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리별을 고하는 폭발소리를 뒤에 들으며 몸부림을 쳤다.

그후 지형섭은 관리국에 제기하여 아버지가 섰던 그 초소에 자기가 대신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버지처럼 이번엔 자기자신이 불붙는 화차를 몸으로 밀어내기도 했고 구내에 떨어진 시한탄을 가슴으로 안아내기도 했다.

전후에도 그는 렬차의 정시운행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에겐 다른 초소제로의 보다 희망찬 길도 열려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당에서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산간역을 곳곳이 지켜가려는 높은 뜻을 헤아려 그의 제기를 막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토록 사연깊은 이곳을 뜨라는것이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찌 서운하지 않을수 있으랴.

하지만 그것은 혁명이 요구하는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에서 언제한번 물러선적 없었던 그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있을수 없었다.

지형섭은 더 할 소리가 없었다. 그저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그득히 치밀어오를뿐이었다...

국에서 돌아온 그 다음날밤이었다.

급작스레 흐려진 하늘에선 비가 쏟아져내리고 때아닌 광풍이 휘몰아쳤다. 역이 자리잡은 좁은 골안은 온통 비소리와 바람소리, 소연한 물소리로 꽉 들어찼다. 외등과 구내의 모든 신호등들이 뿌연게 빛을 잃었고 전기기관차의 은은한 기적소리조차 어렴풋이 들려왔다.

지형섭은 역장실창문을 통해 비발이 드리운 역구내를 내다보며 우두커니 서있었다. 어쩐지 마음이 어수선했다. 그 마음에 키질이라도 하듯 저기 산너머에서 목갈린 전기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메아리를 일으키며 간간히 들려온다.

그로부터 얼마후 꼬리 긴 화물렬차 한대가 비속을 뚫고 숨을 헐떡이며 구내로 달려들어왔다. 들어와서는 우당탕쿵당 레루장을 구르며 달려오던 속도그대로. 역을 통과해서 형하니 날아지나갔다.

팔을 높이 들어 원을 그리는 차장의 푸른 신호등이 그의 시야에 가물가물 안겨든다. 구내의 무사통과를 알리는 신호였다. 그 위치로 보아 렬차가 구내를 채 벗어나기전에 보낸 신호다. 아마도 차장은 비바람을 맞으며 호젓이 서있는 운전지휘원의 처지를 동정해서 미리신호를 보냈는가싶다.

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듯 운전지휘원 역시 서둘러 화답신호를 보내고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

《으음, 저 사람이 규정을 위반하는군.》

지형섭의 입에서는 신음소리 비슷한 이런 소리

가 어망결에 튀어나갔다.

이것은 불과 몇초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건 규정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설사 차장이 미리 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역의 주인인 운전지휘원으로서 차가 구내박을 벗어나기도전에 그렇게 훌훌히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될것이였다.

지형섭은 그 운전지휘원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았다. 뜻밖이였다. 경찰이라고 하지 않는가?

운전지휘원 차동무가 잠시 자리를 뜨면서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기였다고 한다. 하긴 경찰은 그의 개별견습공이기도 했다.

《경찰이란말이지?》

지형섭은 얼굴에 무거운 빛을 띠운채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아무리 대리임무라고 해도 그 역시 철도사람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자신 그게 규정위반이라는걸 모를리가 없다. 그런데 저런 일본새가 나오다니?

물론 나타난 현상자체만을 놓고본다면 그건 불과 몇초사이에 벌어진 매우 작은 일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규정에는 경중이 따로 없다. 현상이 작다고 해서 그 본질마저 작은건 아닌것이다.

만약 작다고 저런 일을 흘시한다면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해질것이다. 사고란 큰데서만 나는것이 아니라 저런 작은데서도 나기마련이다. 항차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말아야 할 새세대인 경찰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역의 주인으로 되여야 할 그에게 있어서는 결코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묵인되어서는 안될것이였다.

지형섭은 이 순간 자기가 그를 옮겨 이끌어주지 못했고 따라서 자청해서 받은 당적분공을 옮겨 수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하여 가슴이 몹시 쓰러났다.

그는 담배를 붙여문제 깊은 생각에 잠겨 두뼉 두뼉 방안을 거닐었다.

만약 내가 전날 쓸데없는 《아량》을 베풀어 열차를 런탈까지 시킬만한 그 일을 두고 그에게 좀더 따끔한 자극을 주고 채심을 시키었더라면 오늘 또다시 규정을 어기는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수도 있었을것 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믿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가 맡은 사업의 빈구석들을 미리 알고 메꾸어주어야 할것이다. 그 빈구석들을 메워주는것으로써, 그것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것으로써 그를 채심케 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다음날 지형섭은 역 한켠, 자재창고가 있는 그옆의 모래담는가마로 찾아갔다. 아닐세라, 여기서도 역시 빈구석은 눈에 띄였다. 가마옆엔 못쓰게 된 침목 몇대가 쌓였을뿐 패놓은 장

작같은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형섭의 마음은 저으기 허전했다.

이 역의 북쪽 장내신평기박은 경사가 급했다. 그래서 겨울이라든가 비온 뒤끝엔 기관차의 바퀴들이 헛돌기가 일쑤고 심한 경우에는 뒤걸음질을 할때도 있었다. 기관차에서 모래를 뿌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산사관(기관차옆에 붙은 모래 뿌리는 관)이 습기를 받아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수도 있는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이 역에서는 지형섭의 엄격한 요구하에 이곳에 비상용으로 가마를 걸어놓고 모래담는 일을 정상화해왔었다.

그런데 요즈음 조금 방심을 했더니 이런 빈구석이 생겨났것이다.

지형섭은 제복웃도리를 활 벗어붙이고 나무무지에서 파침목 한대를 끄집어내리였다. 그리고는 도끼자루를 거머잡고 도끼를 휘둘러대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세계 답새겨대는지 몇번 조기지 않아서 그놈은 썩 두족이 나고말았다. 그중의 한쪽을 나무토막우에 얹어놓고 잘게 패나갔다.

그가 이런 식으로 한참동안 일에 정신을 쏟고 있는데 때마침 옆을 지나가던 경찰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경찰의 얼굴에는 어딘가 당황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는 역장에게 수고를 끼치는 일이 안됐던지 아니면 모래담는 책임자라는 자신의 직분을 생각해서였던지 지형섭이에게로 다가가며 민망스런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만두십시오. 그런 저희들이...》

그러거나말거나 지형섭은 헹헹 코바람을 내뿜며 더 무섭게 도끼질을 해댔다.

경찰은 그만 난처해졌다. 그렇다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버릴수도 없다. 그래 하는수없이 패논 장작을 나무무지옆에다 쌓는 일이나 도울수밖에 없었다.

장작무지가 꽤 높아졌을 때 드디어 지형섭이 허리를 폈다. 이마에는 질퍽하니 땀이 내솟고 가빠진 숨때문에 어깨가 한발씩은 오르내리였다.

그는 주먹으로 허리등을 가벼이 두드렸다. 역시 나이는 속일수가 없나보다.

《그래 인젠 모래치는 일을 그만두려나?》

어딘가 씨까스르는듯한 어조로 지형섭이 물었다.

그만 대답에 궁해난 경찰은 얼굴을 붉힌채 눈길을 떨구고 허둥거리였다.

《힘이 모자라나보군. 그게 그렇게 힘이 뽑히는 일일가?》

지형섭은 후들후들하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여물었다.

《이젠 날씨도 번덕스러워지는데 예비를 만들어 놓지 았구 어쩔려구 그러나? 다들 탕개가 풀렸

거던.》

그는 입이 쏸지 더 말을 잊지 않고 푹썩푹썩 담배만을 피울뿐이었다.

경찰은 속이 썩기였다. 이제 이삼일후이면 인계를 하고 떠나가야 하는 그의 마음을 편안치 않게 해주어 안되었다는 죄송스러운 생각이 치밀기도 했다.

그는 짐작들을 실은 손달구지를 흠으로 밀어내 가면서도 내내 마음은 그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차있었다.

오늘도 어느때 못지않게 보낼 짐이 많았다. 그레 지형섭이 옆에서 그의 일을 거들었다. 정기화물렬차가 들어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것이다.

짐작에 걸터앉아 담배 한대씩을 태우며 기다리는데 드디어 화물차가 역으로 달려들어왔다.

렬차가 와서 멎고 어느 한 유개차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승무화물원처녀가 동실한 얼굴에 생글미소를 지으며 문앞에 나타났다. 정기있는 눈, 도도룩한 입술, 웃음샘이 움푹 패인 볼, 무척 귀엽성스럽게 생긴 처녀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얼굴이기도 했다.

《경찰동무, 짐을 받아요. 세짜이예요. 부칠 짐은 몇짜이나요?》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맑은 목소리로 처녀가 물었다.

《여덱짜이요.》

부러 지어낸듯한 경찰의 똑한 대답이다.

그들은 화물원처녀가 전하는 짐을 받아내리고 보내는 짐들을 들어올리었다. 인계인수를 마치고 필요한 문건교환을 끝내자 경찰이가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하나 능청스레 한마디 묻는것이었다.

《저 봉녀동무, 함흥에 있는 동무 만오빠에게 편지를 내두 일없을가? 동무 생각엔 어때?》

《아이, 난 몰라요.》

처녀는 귀밀을 살짝 붉히며 어리광치듯 몸을 흔든다.

(허 엉큼한 녀석이거던, 저래서 전번에두 정신은 창밖에만 가있을걸, 저런 꽃같은 처녀를 후려내느라니 오죽했을까.)

지형섭이에겐 그 처녀가 그저 남처럼 보이질 않았다. 꼭 점찍어둔 자기 머느리감으로만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는 흐뭇한 눈으로 봉녀의 예쁜 얼굴을 몇번이고 훑쳐보았다.

어느덧 기적소리가 울리고 차가 천천히 자국을 떼여놓기 시작했다. 봉녀가 다시 채 달기지 않은 문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경찰동무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겠어요?》

《말하요.》

《이 역엔 고운 꽃들이 많은데 다음번 지나갈땐 말이에요. 제일 아름다운 꽃으로 한포기만 떠주세요. 호실에 갖다놓으려고 그래요.》

경찰은 알겠다는듯 가벼이 머리를 끄덕였다.

어느덧 렬차의 모습은 기적소리와 함께 장내신호기가 있는 저쪽 굽인돌이로 사라져갔다.

3

경찰은 공간시간을 리용하여 역 한켠에 부리워놓은 모래무지에 가서 바깥으로 모래를 퍼다가 가마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아궁에 장작을 쓸어넣고 불을 지피었다.

그는 어제 장작을 때는 지형섭의 태도에서 은연중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수가 없었다. 가책을 받은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수도 없는 일이었다.

모래란 어지간히 열을 받아서는 잘 닦아지지 않는다. 그는 한가마를 닦아내는데만도 적지 않은 장작을 써버리었다.

두가마째 닦아내고보니 꽤 높이 쌓아졌던 장작더미가 푹썩 꺼져내리었다.

그는 닦아낸 모래를 쇠절구에 넣고 잘게 뺨았다. 그리고는 채로 쳐서 정히 한켠에 무쳐놓았다. 일단 일을 끝낸 그는 화끈 달아오른 이 가마를 효과있게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역에 가서 비품제작 한구석에 처박아두었던 작업복을 꿇쳐가지고 돌아왔다. 삶아서 강에 나가 빨 심산에 서었다.

그는 가마에 물을 부은 다음 옷에 비누칠을 해서 그속에 집어넣고 다시 불을 지피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남은 장작 한아름을 안아다가 아궁에 쓸어넣었다.

빨래가 물속에서 한참 빌렁거리며 끓어번질 때 지형섭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경찰은 어쩐지 몸가짐이 불편스러워났다. 지금껏 손을 털고 나갔었다가 역장자신이 힘들게 팬 장작을 마지막 한가치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써버렸다는 이 사실이 새삼스레 미안하게 생각된것이 다. 향차 그 나무들을 이따위 작업복이나 삶는데 쓴다는것을 안다면 그는 얼마나 노엽게 생각할것인가?

경찰은 저으기 마음이 웅색해져서 공연히 아궁만 쭈시며 앉아있었다.

이때 지형섭의 웅근 목소리가 옆에서 울려왔다.

《이걸 동무가 뺨았나?》

경찰은 그렇다고 허아래소리로 대답했다.

《음, 수골 했군. 모래알이 굵어서 여간 힘들지 않았을텐데 ...》

오금을 꺾고앉아 채로 친 보드라운 모래를 손으로 주무르며 지형섭이 사뭇 감동에 젖어 하는 말이였다.

《아주 잘 뺏았어. 만점이야!》

이렇게 증얼거리리는 그의 어조엔 기쁨이 실리고 얼굴엔 흐뭇한 미소까지 떠올랐다. 뜻밖이었다.

그는 이쪽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가슴이 죄여졌다. 문제는 이제부터가 중요한것이다.

이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것인지? 경찰은 묵묵히 그 말을 기다리며 몸을 웅송그리고 앉아있었다.

《빨빨 삶나? 비누칠을 좀 더 할걸 그랬군. 동무 두 인젠 합숙신세를 면해야 할텐데...》

지형섭은 장작무지같은것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도대체 거기에 그런것이 있었던가나실게.

순간 경찰은 어쩐지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무언가 한마디 사죄라도 하고싶은 절절한 심정에 휩싸여들기도 했다. 참말 역장은 얼마나 웅심깊은 사람인가!

봉녀가 탄 정기화물렬차가 들어올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 서둘러 빨래를 해치운 경찰은 꽃밭쪽으로 급히 발길을 돌리었다. 봉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

이 역의 정원엔 꽃이 많았다. 고산지대인 이 지방에서만 피는 류다른 꽃들도 더러 있었고 우리 나라 그 어느 지방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고운 꽃들도 적지 않았다.

절기를 따라 피는 이 꽃들은 이름도 각이했고 색깔도 다양했다. 서로서로 앞다투어 피어나는 이 많은 꽃들로 하여 여기 산간역의 정취는 더 돋우어지는가싶었다.

경찰은 꽃밭속으로 들어가 꽃을 고르기 시작했다.

봉녀의 부탁대로 제일 아름다운것으로 골라야 했는데 도대체 어느 꽃을 골라잡았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이것도 고와보이고 저것도 고와보이고 다 저마끔 자기나름의 특징과 미를 가지고있어 선풍 손대기가 저어되었다.

그러는데 때마침 지형섭이 그에게로 다가와 그를 곤경에서 구해주었다.

《그 화물원처너 부탁을 들어주자는거겠지? 하긴 그게 어떤 부탁이라구. 청춘시절의 약속이란 보물을 주고도 못바꾸는것이렷다.》

사뭇 정색해서 하는 지형섭의 능청스러운 말에 경찰은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참, 역장동문 언제 그 소릴 다 귀담아들었을까?)

경찰이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형섭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사람, 기왕이면 이 꽃을 고르라구.》

지형섭은 키낮은 붉은꽃 한포기를 손으로 가리다. 작고 소담해서 화분에 옮겨심기엔 안성맞춤일것 같다.

《어느 꽃에 대면 좀 덜 고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이고장에서만 피는 특이한 꽃이라네.

기왕이면 그걸 보내는게 옳지 않을까?》

경찰은 그 말에 공감이 되었다. 이고장에서만 피는 꽃이기때문에 오히려 봉녀에겐 더 아름답게 느껴질수도 있지 않을까?

경찰은 곧 꽃모 뜨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에겐 여념이 없었다. 어느 사람도 아닌 봉녀의 부탁을 받아 뜨는 꽃모를 정성껏 떠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지형섭이 옆에서 그의 일을 거들었다. 그들은 꽃모를 떠서 화분통에 옮겨심었다.

얼마후 정기화물렬차인 《850 대》가 역구내로 들어왔을 때 경찰은 봉녀에게 이 역에서 보내는 세작의 짐과 함께 꽃을 심은 그 화분도 동시에 전했다. 기쁨에 넘친 봉녀의 얼굴이, 오히려 꽃보다도 더 환한 그의 동심한 얼굴이 차가 떠난후에도 오래도록 경찰의 눈앞에서 어롱거리었다...

그날 밤이 퍼그나 깊어서였다. 밤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은 어디선가 먼곳에서 꿈속에서처럼 아슬푸레하게 울려오는 기적소리에 저도모르게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새벽 3시 15분, 이 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평양행급행렬차가 들어올 시간이다.

통과하는 렬차이니 화물원인 그가 할 일이란 따로 없었다. 그러니 구태여 자리를 뜨지 않아도 될것이다.

하지만 철도일군으로서의 의무감과 그 어떤 본능적인 충동으로 하여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순간 그는 흠칫하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사위는 온통 몽몽한 안개의 바다속에 잠겨있어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한치 눈앞도 대중해볼수가 없었다. 장내신호기며 전철기의 표식등이며 줄고있는 구내의 외등조차도 망각의 심연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는듯하였다.

전기기관차의 은은한 기적소리가 저 멀리 골짜기쪽에서 울려왔다. 아까보다는 퍼그나 가까워진 소리다.

굴속같이 어두운 이 길은 안개때문에 혹 기관차에서 장내신호기의 통과불빛을 알아보지 못할수도 있지 않을까?

부지중 경찰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장황히 방안으로 뛰어들어가 상호등을 들 고나왔다. 그리고는 북쪽 장내신호기가 있는 그편을 바라고 허둥지둥 달리었다.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 얼마나 달려왔는지 그는 잘 몰랐다. 다만 그의 머리속엔 차가 장내신호기가 있는 그 굽인돌이에 들어서기전에 가닿아야 한다는, 그래야 차를 멈춰세우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킬수 있다는 그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문득 그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굽인돌이를 예돌

아서 나오는 전기기관차의 여윈 불빛을 보았다. 차는 불시에 속도를 늦추는가싶더니 다시금 잦은 가락으로 기적소리를 울리었다.

그러니 기관차에서는 장내신호기의 불빛을 보지 못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떻게 하든 열차를 멈춰세우게 해서는 안된다. 서기전에 가닿아야 하고 가서는 이 상호등으로 통과신호를 보내주어야 한다.

경찰은 두주먹을 부르치고 정신없이 달리었다. 그의 발밑에선 조약돌들이 놀란 소리를 지르며 미끄러져 달아났다.

그때였다. 경찰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우뚝 그 자리에 굳어졌다. 누군가 철길옆에 똑 뻗치고서서 머리로 상호등을 높이 추켜들고 푸른 신호를 보내주고있는것이다!

자기보다 한발 먼저 달려온 사람, 아니 진작부터 여기에 서있었을지도 모를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전철원동무일까? 옳아, 그럴수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언제나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오는건 전철원동무였으니까. ... 말이 없고 실천이 앞서는 사람, 자각성과 성실성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나이...

경찰은 그가 놀랄가 저어하듯 조심조심 그에게로 다가갔다

일순 경찰은 또한번 자기 눈을 의심했다. 아니 저게 누군가? 지형섭역장동무가 아닌가?! 지금 좁 집에서 잠에 취해있어야 할 그가 여기에 와있다니?!

경찰은 불시에 가슴이 몽클해나면서 저도모르게 눈썹리가 화끈했다. 아, 역장동문 어찌면 저리도 극성일까. 항차 그는 인차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마지막날까지 저로써 수고를 하니 ...

급행열차는 그대로 통과했다. 한시도 쉬는 날이 없이 언제나 바빠 뛰는 열차였다.

경찰은 지형섭에게로 달려가 그의 한손을 덥석 잡아쥐었다.

《역장동지!》

불러놓고도 목이 꺾 메여 아무런 말도 나가지 않는다.

《경찰인가? 허 신호때문에 나왔겠구만.》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지형섭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사실 그로서는 경찰의 일이 고마왔다. 실상 화물원인 그로서는 구태여 오지 않아도 될 일이다. 철도일꾼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굳은 량심만이 이런 행동을 낳게 할수가 있는것이다.

정말이지 전번 비바람치는 날 운전지휘원 대리 임무를 수행하던 그때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그사이 이토록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지형섭의 마음은 무어라 말할수 없이 기쁘고 반가웠다.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한쌍의 석상처럼 안개속에 거연히 서있는 그들의 가슴속에선 불덩이같은

뜨거운 정이 오가고있었다.

그날오후 봉녀가 탄 화물열차가 구내로 들어왔다

봉녀는 세쌍의 짐과 함께 화분 하나를 전했다. 전번 경찰이가 준 그 화분이였다.

경찰은 얼결에 화분을 가슴에 받아안긴 했으나 어리둥절해진 그 눈만은 감출수가 없었다.

의혹을 풀어주려는듯 봉녀가 입을 열었다.

《살구어보려구 애를 쓰는데두 왜선지 자꾸 시드는구만요. 그래 화초원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고산지대에서만 피는 꽃이기때문에 그런다지 않아요.》

미안한듯 변명처럼 하는 그의 말이였다.

옆에 서있던 지형섭이 시치미를 떼고 한마디 곁들었다.

《허, 우리가 미쳐 그걸 타산하지 못했군. 까짓거 화분을 안고 다니느라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동무가 님따라 이리로 오는게 옳지 않을가.》

《어마나!》

봉녀는 그만 귀밀을 활짝 붉히며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돌아섰다.

경찰이 역시 어색한지 몸둘바를 몰라하더니 갑자기 생각난듯 그 인상적인 주먹코를 손등으로 쓱 문다졌다.

지형섭이 자리를 뜨자 봉녀가 정색하고 입을 열었다.

《동문 옳지 않아요. 듣자니 저 역장동지는 동무때문에 얼마나 속쓰는지 모른대요. 동무가 정말... 그런줄 몰랐어요.》

《뭐요?》

경찰은 두눈마저 둥그래지며 놀란 목소리로 반문했다.

《역장동진 동물 이 역의 주인으로 키우자고 했는데 ... 미워죽겠네.》

처녀는 눈을 꼭게 흘렸다.

경찰은 냇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진채 피기 가신 얼굴을 들지 못했다. 무엇에 한대 얻어맞기라도 한듯 머리가 멍해지기도 했다.

그는 봉녀가 탄 화물열차가 언제 떠나가버렸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가슴이 쓰러나고 눈앞이 흐려왔다. 그런것도 모르고 지내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래도 자기판엔 제가 태어난 고장이래서 이 산간역에 뿌리를 내릴 좋은 의도를 안고 이리로 찾아왔다. 그런데 결국 자기는 조동되어가는 역장동지의 발을 엮어매는 제동기의 역할을 했을뿐이다. 과연 세상에 나같은 사람도 있을까?...

지형섭이 야속했다. 차라리 터놓고 욕을 하고 채찍으로 후려갈겼던들 이토록 가슴이 아프지는 않을것이다.

그래도 그가 돌보였다. 당원-인간으로서의 그의 성실성과 높은 정신세계앞에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기도 하였다.

경찰은 지형섭에 대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그에게로 발길을 돌리었다.

《평양시간》을 쓰던 때를 더듬으며

최학수

1. 출발점

내가 위대하고 장엄한 평양건설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운 기적을 창조한 사람들에 대한 큰 소설을 써야 하겠다는 창작적충동을 받은것은 1969년 말경이었다.

그해 12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0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발표하신 불후의 교전적로작 **《청소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적교육교양의 몇가지 문제》**에서 청소년들을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가지고 널리 교양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는 소설들의 주제방향과 소재들까지 친히 골라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건설에 대해서뿐만아니라 도시건설에 대해서도 소설을 쓸것이 많습니다. 다른것은 그만두고라도 평양시 보통벌이 건설된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쓸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통벌에 오막살이집들만 있었으며 그곳은 어지럽기로 소문난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통벌에 다층문화주택들이 준비하게 짝 들어차고 현대적인 거리가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어지럽던 보통강도 아름다운 강으로 면모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감정이 다 무디여졌는지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현실, 약동하는 우리의 천리마 현실에 대하여 깊이 감동되지 못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작품을 쓸줄 모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간곡한 심려의 교시를 전달 받았을 때 나는 몹시 가슴이 찢렸다.

작가라면 예민하고 강렬하고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들로 알려져있고 또한 시대정신에 민감한 지성인으로 인정되어있다. 그러나 위대한 천리마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감동할줄 모르며 자기의 살갓에 시시각각으로 와닿는 시대의 호흡과 맥박도 감수할줄 모르며 자기의 동시대인들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화폭에 담아 력사에 길이 전해 주어야 할 작가적책임감도 느낄줄 모르고 자기가 사는 이 위대한 시대의 가치와 력사적지위도 깨달을줄 모르는 둔감하고 지각없고 지성도 모자라는 사람을 어찌 작가라 말할수 있으랴.

이것은 정말 나 자신과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였고 면목 없는 일이었다.

벌써 오래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시대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우리 작가들에게주시였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대화폭을 창조한 좋은 작품들을 얼마

내놓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작가들이 쓰지 못하면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없으며 후대들이 도대체 어떤 투쟁을 거쳐 자기들에게 차례진 행복이 마련되었는가를 잘 알수 없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그 당시 갓서른을 넘은 젊은 아버지였지만 나에게도 벌써 세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평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였다. 그 아이들은 이미 평양거리에서 단 하나의폭탄웅덩이조차, 단 한편의 파편조각조차, 단 한그루의 불탄 나무조차 볼수 없이 되고 거리마다 고층건물들이 짝 들어차고 뒤골목까지 죄다포장되고 유원지와 공원과 가로에 심어진 애어린 나무들이 어느덧 거목으로 자란 때에,온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킨 **《평양속도》**의 신화같은 이야기도 어느덧 옛말로 되기 시작한 때에 태어난 아이들이였다.

그 아이들이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 자기들이 태어난 수도 평양이 전쟁을 겪은후 어떻게 건설되었는가를 알고 한다면 나는 몇마디 옛말만 하고 말것인가?

나는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파히 멀지 않아 닥칠수 있는 그 장래의 자기 처지를 생각해보았다.내가 옛말이나 하고 앓았다면 작가로서 얼마나 그 꼴이 궁하랴?

나는 벽찬 현실을 글로 재현하여야 할 작가이다. 더구나 천리마시대에 작가로 자라났고 이 시대의 정신과 호흡과 맥박을 감수하며 살아오는 작가이다. 우리가 자기들이 살고있는 시대의 화폭을 창조하여 력사와 후대들 앞에 남겨줘야 할 시대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를 먼 먼 력사로 알게 될 후세작가들이, 오늘의 시대정신과 호흡과 맥박을 직접 감수해보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들만큼 알수 없는 뒤세대의 작가들이 수월치 않을 이 의무를 결머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렇게 되어 나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친히 골라주신 그 소재를 가지고 장편소설을 창작할 결심을 다졌다.

2. 수령님의 교시는 창작의 기초

두말할것도 없이 나는 보통강에서 일어난 천치개벽의 력사를 쓸 계획이였다. 그런만큼 취재와 현실체험 방향은 명백했고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았다.

그것은 보통강과 보통강사람들의 과거생활, 력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변혁된 생활과 자연을 료해하고 파악하는것

이었다.

그중에서 중심고리로 되는것은 이 강반사사람들의 운명에서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룬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첫삽을 뜨시였던 역사적인 보통강개수공사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나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의 초시기 평양시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연구하면 할수록 새라새로운것을 발견하게된 나는 전후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빠짐없이 연구했다.

나는 그 과정에 가슴에 큰 충격을 받으며 아주 중대한 한가지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조국땅우에서 일어난 세기적 변혁과 기적은 하나부터 열, 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고심분투하시여 친히 마련해오신것이라는 심장의 느낌이였다.

《평양속도》가 창조되였던 1958년 그 한해동안에 평양시의 건설부문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와 교시만 하여도 평균 사나흘에 한차례씩 되었다.

그해 3월부터 《평양속도》가 나온 6월초까지는 거의 매일, 어떤 날은 하루동안에 평양건설을 위해서만 무려 아홉차례의 지도와 교시를 주시였다. 평양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이 어떻게 되어 일어 났는가를 나는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대하여 써서 먼먼 후대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불같은 욕망이 치솟아올랐다.

(그렇다, 작품에 담아야 할 이야기는 바로《평양속도》의 창조이다. 보통강개수는 《평양속도》의 서막이 아닌가?)

이것이 그때 내 머리속에 불꽃처럼 번쩍인 생각이였다.

나는 앞으로 쓰려는 작품의 소재와 함께 주제방향을 제시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1969년 12월5일 교시를 다시 연구해보았다. 거기서 나는 주목해야 할것은 바로 비약이라는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진수는 비약에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그 일대 비약을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고 나타난것이 1958년의 《평양속도》였다.

그러므로 내가 홀려간 평양력사에서 취하여 작품에 옮겨놓아야 할 나무는 1946년에 보통강변을 출생지로 삼고 태어난 애나무인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넓은 평양땅 가득히 튼튼한 뿌리를 내리면서 푸르청청 하늘높이 자라올라 그 장엄한 위용과 싱싱한 기개, 풍만한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펼치게된 1958년의 아름답드리나무였다. 즉 보통강개수를 그 기원으로 삼고있는 평양건설에서

의 일대 비약, 일대 혁명이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하고 영웅적인 우리 인민이 천리마를 타고 남들의 열흘길을 한시간길로 맞잡아 내달리면서 력사의 한순간에 채더미속에서 화려한 수도를 일떠세운 그 경이적인 기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에 주신 현지교시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무엇을 작품에 담아야 하겠는가 하는것이 차츰 명백해지게 되자 곧 머리속에서는 형상의 첫싹들이 서물거리며 돌아나기 시작하였다.

장편소설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은 그때 벌써 나의 취재수첩에 자기의 성격적특질들과 조상의 첫 그림자들을 남겨놓았다. 그중 몇몇 인물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간관계도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움트기 시작한 인물들은 벌써부터 나에게 자신들에 대한 형상화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부터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창작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우리당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다시한번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3. 일기는 어디에서?

어느것을 가지고 장편소설을 꾸려야 되겠는가 하는것이 알려지게 되자 취재와 현실체험, 자료연구 대상은 애초에 예견했던것에 비할수없이 범위가 넓어졌다. 보통강과 보통강반의 력사만 알아서는 안되였던것이다.

나는 여러 시기에 걸치는 생활과 자료들을 연구해야만 하였으며 비단 건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대한 확고하고 자신있는 지식도 소유하여야 했다.

과거에 토성랑에 살던 사람들, 력사적인 보통강 개수공사의 전모를 알수 있는 사람들, 그후 평화적로동을 하다가 전선에 나가 싸운 사람들,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도에서 전란을 겪은 사람들,

전후복구건설자들, 조립식어로의 전환기에 수도건설장에 있었던 사람들, 《평양속도》의 창조에 참가했던 건설자들, 당시 대동강과 보통강과 대성산유원지 건설에 참가한 사람들, 해주-하성의 철도건설자들, 파란곡절을 겪은 설계가들, 건축박사,

교원, 의사, 장님, 천문학자, 력사학자, 남반부출신의 의용군들, 지방에서 수도건설을 지원한 사람들, 기상전문가들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릴수 없을만큼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만나보아야 했다.

그리고 여러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상들과 전문적인 기술실무지식에 대한 리해를 얻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사람들을 찾아내고 자료들을 들춰내는 일은 수월치 않았다.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가서

머칠씩 일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만날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진척과정을 전반적으로 체계있게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었다.

어느날 나는 건축학과 건축사에 대한 지식을 줄만한 책으로서 어떤 책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우리 나라에서 해방후 출판된 도서들의 목록집을 들추었다. 그러다가 그속에서 1946년 7월에 나온 《보통강》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게 되었다.

책이 나온 때가 보통강개수공사의 완공시기와 일치된다는것때문이었던지 나에게는 그 책에는 내가 애써 찾는것이 적혀져있을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여러날 탐문한 끝에 결국 한 과학기관 도서관에서 아주 희귀한 그 책을 찾아냈다. 그것은 보통강개수공사완수경축준비위원회에서 역사적인 공사의 완공을 기념하여 특집으로 낸 책이었다.

그 얇팍한 책을 손에 들었을 때 나는 참말로 하늘의 별이라도 판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바로 거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1946년 5월초에 친히 보통강을 답사하시고 보통강개수공사를 즉시 착수하도록 지시하시였다는 귀중한 자료가 적혀있었다.

그리고 또한 그 책에는 여러장의 사진들과 연설문들, 개수공사참가자들이 김일성장군님께 올린 편지들을 비롯하여 당시 그 공사에 몇천자루의 삽과 메와 정대들이 들었는가 하는것까지 공사의 전과정을 상세히 알수 있게 하는 풍부한 자료들이 있었다.

나는 취재연구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여러가지략도들을 그리고 일람표를 만들고 1946년과 1957~1960년의 아주 상세한 일력도 자기나름으로 만들어보았다.

이렇게 제판으로 공을 들여 취재하는 한편 나는 자신이 직접 기적을 창조한 사람들처럼 살아보기위하여 들끓는 천리마거리건설장에 들어갔다.

그해에 마침 토성량의 마지막 흔적들을 밀어내는 천리마거리건설이 진행되었다. 그곳에서는 《평양속도》를 창조했던 인간들의 기상을 감수할수 있는 생활이 약동하고있었다.

나는 웅근 낙달동안 천리마거리건설장에 붙어있었다. 두달동안은 지원돌격대원으로 일해보았고 나머지 두달동안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만나보고 듣고 적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

건설장에서의 생활체험은 나로 하여금 머리로써는 느낄수 없는것을, 즉 건설장사람들의 체취를 자기의 피부로 감수할수 있게 해주었으며 내가 그들의 체취를 감수하지 못하였을 때에 머리속에서 고안하였던 생활을 바로잡아주었다. 그리고 구상을 빨리 무르익혀주었다.

그것은 훌륭한 학교였다.

건설장에서 돌아온 뒤에 나는 구상을 더욱더 무르익히면서 보충 취재와 체험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오래 하지 않았다. 웬일인지 어서 원고지에 마주앉고싶어진데다 그만하면 별로 막힐것 없이 써나갈것 같이 생각된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기만족이였는가 하는것을 나는 그후 집필과정에 들어가서 통절히 깨달았다.

레를 들어 나는 수십차나 조립장에 가서 지내보았지만 맨우에 조립하는 층을 조립공들이 만장이라고 말한다는것을 몰랐으며 담배가치의 길이는 7센치메터이며 건설장에서는 그것이 때때로 짧은자를 대신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나는 작품의 초고를 거의 끝내갈무렵에 건설장에 잠시 나갔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또 나는 장님을 만나서 몇시간이나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도 영화를 보며 낚시질도 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어느 한 영화관에 갔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것을 모른채 지나갔더라면 보통강에서 성준로인이 낚시질을 하는 장면은 씌여질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레를 들자면 얼마든지 많이 들수 있다.

나는 작가에게는 적당히 알아도 될것이란 없으며 몰라도 될 생활이란것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작가는 캐고 또 캐서 밑창이 드러날 때까지 알아야 하며 또 그래야 작품에 재현하는 생활도 보다 완전한것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취재와 현실체험이란 언제나 불만족스럽기마련이다. 작가가 아무리 생활을 깊이 파고들리 《수집》한다 해도 작품에 그려질 인물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걸어모을수는 없으며 꼭 들어맞는 생활자료나 세부를 찾아내기는 더구나 어렵다. 어디서 얻었거나 빌려온 의복이 주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 법은 거의 없다. 작가는 자기 작품의 인물들에게 꼭 맞아떨어질수 있는 의복을 지어 입혀주지 않으면 안된다.

창작준비단계에서 채 《수집》해오지 못한 생활은 어디에서 《언어울》것인가?

생활은 도처에 있다. 생활연구, 그것은 곧 인간연구이다 인간이 있는 모든곳에 생활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연구한다면 많은 소득을 얻을것이다.

나는 제대군인청년건설자들의 생활을 써야 했으나 나에게는 군대생활의 체험이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 작가들가운데는 군대에서 풍부한 생활 체험을 쌓은 동지들이 적지 않았다.

나는 작품에 나오는 제대군인청년건설자들이 그들다운 체취를 풍기는 사람들로 그리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속에 있는 군대생활체험자들을 그전과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세심히 관찰했다. 그들

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생활을 제공해주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얻을수 없는 것은 어디서 가져올것인가?

나는 그것을 작가자신에게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가자신도 인간이며 작가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풍부한 정신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잘 알아맞추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잘 분석할줄 아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작가는 자기자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남을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문학작품의 모든 인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그 저자라는 말도 그런 사정때문이 아닌지?

작가는 자기가 그리려는 인물의 성격에 맞게 자기자신을 《변형》시킨 상태에서 이런 또는 저런 정황속에 처한 소여인물이 체험할수 있는것을 자신이 정서적으로 체험해보면서 인물을 형상해나가는것이다.

4. 은혜로운 손길

나는 집필하기전에 작가가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될 창작의 공정들을 다 거치지 않은채 조급성에 사로잡혀 서둘러 집필에 착수했다. 머리속에서 인물들이 살아움직이고 당시의 생활화폭들이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시바삐 쓰고 싶어졌는데 그것을 마침내 억제하지 못하고 원고지와 마주앉은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의 초고는 제목조차 없이 씌여지게 되었다.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작품의 제목을 보고해야 할 요구가 제기되었을 때 나는 무어라고 달지 몰라서 가제로 《보통강》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였다. 작품에서 하려는 기본이야기가 보통강에만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립시제목은 달수밖에 없었던것은 그만큼 내자신이 자기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를 명백히 의식하고 걸어쥐지 못하였던탓이었다. 나는 집필에 들어서기 전에 충분한 탐색작업을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허술한 준비작업의 후파를 나는 쓰디쓰게 맛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빨리 쓰고싶었던 욕망과는 달리 초고집필은 매우 굼뜨게 진척되었다. 나는 몹시 갑자르면서 한줄한줄 써나갔다. 어디에 모를박고 써야만 그 거창한 천리마시대의 대화폭을 뜻대로 그려낼수 있겠는지 점점 더 막연해지기만 했다. 초고매수가 늘어갈수록 이야기는 계속 결가지를 치면서 잔뜩 벌려지기만 하였지 엮어지지도 매듭지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자 나는 차츰 큰 작품을 다룰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주체넘게도 거창한 시대와 체험의 거인적형상들을 예술적으로 재현해야 할 매우 어려운 작품을 감히 말아나섰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후회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당시의 나로 말하면 아직 청소한 작가로서 작은 형식의 소설작품도 그닥 많이 써보지

못했으며 큰 작품을 다루어본 경험도 얼마 없었던다.

나에게는 수도건설에 대한 그 장편소설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여낼수 없을 커다란 바위돌처럼 여겨졌다.

(이제라도 경험 많고 능력있는 작가가 말아쓰도록 내놓는것이 망심적이 아닐가?)

나는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을 못가지고 써나가다보니 초고를 시작한지 1년반이 나마 지나도록 초고를 끝맺지 못하였다.

바로 이렇무렵에 나는 당의 따뜻한 지도를 받게 되었다.

잊을수 없는 1972년 9월 6일, 그날은 그후 우리 작가들의 정치조직생활과 창작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우리들은 이날 우리 작가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문학예술창작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매우 귀중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특히 나에게 큰 충격을 준것은 젊은 작가들에게 돌려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였다.

젊은 신인들이 로동당시대에,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신진작가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작가적위치를 차지할때가 되었다고 한 고무적인 가르침은 도저히 점령해낼것 같지 못한 장편요새의 위엄에 기가 놀려동요하면서 퇴각을 꿈꾼 신진작가였던 나에게 있어서 재생의 빛발이었으며 전진의 기치였다.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새로운 용기를 가다듬었다.

이날의 고마운 당의 지도는 장편창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모진 마음의 진통을 겪으며 동요하고있던 나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신진작가로서의 자기의 작가적위치를 똑바로 자각하고 그 위치를 고수하도록 옳바른 정신적자세를 잡아주었을뿐아니라 작품이 진척될수 없었던 근본요인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는 방도까지 깨우쳐주었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품창작에서 본질적결함을 없애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소설창작에서 종자를 똑바로 줘야 한다.

종자의 발전, 이것은 문학작품에서의 핵의 발전이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문학사상에는 수많은 걸출한 작가들과 문학리론가들이 있어 그들마다 새로운 문학적범주들을 찾아내고 문학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문학작품의 모든 요소들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 핵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밝혀내지 못하였다.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제시된 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잡을데 대한 방침에 접하는 순간 나는 눈이 번쩍 뜨이는것만 같았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섬광같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우선 작품의 종자부터 명백히 찾아쥐지 못하였기때문에 작품이 제대로 씌여질수가 없었다는 생각이였다. 그리고보니 온전한 제목조차 달지 못한채 1년반을 골머리만 앓아왔던것도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것이 명백해졌다.

실로 그날은 나의 심장속에서 큰 소설을 창작해낼만한 작가적담이 처음으로 태어난 날이었을 뿐아니라 자기 작품의 종자를 발견해낼수 있는 작가적눈이 처음으로 트인 광명의 날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눈이 트인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작품을 쓰기 전에 찾아쥐어야 했을 종자를 뒤늦게나마 찾게 되었다.

작품에 담고자한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를 타게 된 수도건설자들이 평양건설에서 창조한 경이적인 기적이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수 있는가? 그 광범한 내용과 심오한 의미를 담고있는 본질적알맹이는 무엇인가?

오래동안의 탐색과정에 찾아낸것이 《평양시간》이었다.

평양시간, 거기에는 세상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아버지로, 태양으로 모신 우리 조선사람, 평양사람들만이 가질수 있었던 우리 식, 조선식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깃들어있으며 남들의 머리와 남들의 생활속에서 공고화되고 관습화된 신념과 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것을 모방하고 답습하려고도 하지 않는 도고한 우리 인민의 자기류의 신념과 의지, 자기류의 기준과 척도가 내포되어있는것이다.

평양시간, 거기에는 또한 《평양속도》로 비약하는 우리 인민의 기상이 있으며 천리마를 타고 세월을 앞당겨나가는 위대한 시대의 시대정신이 있으며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한 이 땅과 이 나라 인민의 얼굴이 있고 그들의 숨결과 호흡이 있는 것이다.

나는 종자를 명백히 건어권 뒤에 구성을 새롭게 짜고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작품의 초고는 끝을 맺지 않은채 개작하게 되었던것이다.

나에게 광명을 준 은혜로운 그날이 없었더라면 이 작품의 운명이 어찌되었을지 모른다. 참으로 우리 작가들에 대한 당의 현명한 지도의 손길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작가적성장에 대해서도, 그 어떤 작품의 완성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5. 녀주인공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작품의 초고가 순조롭게 씌여지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원인은 작품을 쓰기전에 머리속에서 짜낸 인물들이 원고지우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펼치기 시작하자 처음의 구상을 뒤엎기 시작하는데도 있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작품의 구성안이 비교적 면밀하게 검토되고 잘 조직된것이라고 믿었었다.

그러나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 차츰차츰 굳건히 조직된것 같던 구성안이 버그러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나를 특히 당황하게 한것은 각별히 중요한 자리에 서있기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잘 세워놓았다고 생각했던 한쌍의 기둥이 서로 버그러지면서 애초에 예상치 않았던 조그마한 다른 기둥이 그 사이에 끼여들기 시작한것이였다.

구성안에서는 주인공과 녀주인공이 상철이와 진숙이로 되어있었다. 오월이라는 인물은 잠깐씩 삽입될수 있는 부차적인물들의 명단표리에도 없었다.

상철이와 진숙은 어렸을 때 보통벌에서 연고관계를 가지게 된 다음 다시 전선에서 그 관계를 잇게 되며 1958년시기에는 한사람은 건설로동자, 한 사람은 의학대학 학생으로서 만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도록 구상되어있었다.

남녀주인공의 이러한 설정은 로동을 신성한것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주의사회의 청년들의 애정륜리에 대한 관점을 부차적인 한 주제로 밝힐 가능성도 줄것이며 독자의 흥미도 끌것이라고 생각한데로부터 온것이였다. 그밖에 보다 중요한 다른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작품은 써나가는 과정에 웬일인지 이 두 남녀주인공의 관계가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작가는 집필을 시작한 작품의 서두에서는 자기 주인공을 이런 또는 저런 정황속에 세워놓고 그 정황에서 움직여보라고 떠밀어놓을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주인공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가 제발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부터는 주인공의 체험을 뒤따라가며 묘사하기마련이다.

상철은 건설장에 왔다. 그때는 아직 조립식건설로 넘어가지 않은 때였으므로 건설장에서는 벽돌로 집을 짓고있었다. 처음 건설장에 배치되어온 무기능공이 할수 있는 일은 벽돌을 운반하거나 물 또는 몰탈따위를 섬겨주는 일같은 심부름을 듣는것밖에 없다. 건장한 체대군인청년한테는 물론 벽돌운반이 차레질것이다. 그는 벽돌을 지어나른다. 누구에게? 물론 벽돌공이다. 당시의 벽돌공의 대다수는 녀자들이였다.

그러면 그 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되어 이름도 없는 한 벽돌공처녀가 상철이앞에 나타났다.

기계공장에 가지 않고 우겨서 건설장에 온 상철이에게는 이곳 사람들의 일본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나 벽돌을 다루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지태설반장한테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벽돌공들에게서도 느낀다. 그의 비위를 거슬리는 벽돌공은 누군가?

이리하여 두번째로 다시금 또 그 벽돌공처녀가 상철이앞에 나타난다.

정 비위가 상해버린 상철은 자신이 벽돌 쌓는데 손을 붙였다가 오히려 화를 당한다. 반장은 그의 엉터리없는 솜씨밖에 보지 않았지만 그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는 벽돌공이 없을수가 없다. 그 벽돌공이 고맙게도 상철이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는 누군가?

이리하여 이번에도 통성 없이 지내오는 벽돌공 처녀가 상철이앞에 나타난다.

이제는 작가도 그 처녀에게 이름을 주지 않고서는 불편해서 더 써나갈수 없다.

주인공과 함께 정서적체험을 해나가던 나는 오월이라는 처녀를 만나지 않을수 없었다. 상철이를 따라 앞으로 더 나갈수록 오월은 더욱더 중요하고 귀중한 존재로 자라나면서 진숙이를 더욱더 멀리 밀어제끼고 상철이와 가장친밀한 사이로 되어갔다.

그러나 나는 구성안대로 떠밀어보자고 억지를 쓰며 천매, 천오백매를 썼었다. 그무렵에 이르렀을 때는 버그러질대로 버그러진 상철이와 진숙이의 사이가 수습할수 없게 되었다. 그러더니 종내 진숙은 상철이의 곁자리에서 뛰쳐나고말았다. 그는 손월석에게로 갔다.

작품을 개작하면서 구성안에는 그림자조차 없었던 오월이를 녀주인공으로 삼자 모든것이 순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작가의 머리속에서 만들어진 구성단계의 인물은 공고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며 작품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대강 세워놓은 막대기이지 뿌리를 내린 산 나무가 아닌것이다. 원고지우에서 인물들이 살아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인물들이 발을 붙인 생활속에서 솟아난 인물이 작가의 구상을 뒤엎어버릴수 있다.

지배인 림도식은 구성단계에서 늦게나마 교양 개조될것으로 예상한 인물이였다. 그러나 그는 《제발로》 걸어 생활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갔다.

소설에서 숨쉬기 시작한 인물들은 작가가 구성단계에서 죄다 예상할수 없었던 자기류의 독특한 생활들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그렇기때문에 실재한 사실도 소설에서는 주인공들에 의하여 변형된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취급된 사건들과 이야기들중에서 어떤것이 사실이고 어떤것이 허구의 산물인가 하는데 대하여 질문해온 독자들이 있

다.

이것을 몇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나는 많은 사실적자료에 엄격히 의거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허구를 가하였다.

그러나 일단 작품을 완성해놓은후에는 종종 내 자신이 어느것이 사실이였고 어느것이 허구에 의해 빚어진것이었던지 구별하지 못하여 얼떨떨해지는 때가 있다. 아마 다른 작가들도 이런 기분상태를 체험할 때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은 작가들이 창작과정에 자기가 그려놓은 생활을 사실처럼 믿어버리기때문인것 같다. 사실처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쓸수 없다. 작가는 창작중에 주인공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체험하며 글을 쓴다.

장편을 쓰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그와 같은 체험을 거친다. 그렇게 오랜 체험을 거치고나면 집필에서 손을 떼고 나았을 뒤에도 작품에 그런 생활은 자기 주위의 어디에선가 실지로 벌어졌던 일 이었던것 같은 생각이 들곤하는것이다.

문화권을 제외한 장편의 모든 인물들은 원형인물이 없이 창조되었다. 개별적인 표상들과 세부들이 당시 실재했던 사람들에게서 취해졌을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사람 한사람은 그 성격적특질에 있어서는 내가 가까이에서 오래 지내보았던 사람들, 건설장에서 낮익힌 사람들과 매우 류사한것이다.

나는 인물들을 성격화하면서 자주 그 성격의 모체로 삼고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눈앞에 그리곤하였다.

6. 중시한것은?

자기의 작품이 명이 긴 작품으로 되기를 바라지 않을 작가란 있을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변변치 못한 작가인 나도 그런 욕망에서는 남만 못지않다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장편소설 《평양시간》은 원래 그 창작동기부터가 평양의 기적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를 후대들에게까지 전해주자는 데 있었던것만큼 어떻게 하나 생명력있는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이 처음부터 내내 간직해온 나의 생각이였다.

그런데 작품의 생명력은 어느 작가의 욕망만으로 달성되는것은 아니다. 생명력있는 작품으로 될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작품은 스스로 명이 길어질수밖에 없을것은 당연하다.

생명력있는 작품이란 어떤 작품이겠는가?

나는 짧은 나의 소견으로 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결국 나는 독자들의 버림을 받지 않고 계속 읽히우며 훌륭한 인상을 남기여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작품이 바로 생명력있는 작품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면 생명력있는 작품은 예술적흥미와 강

하고 훌륭한 인상이라는 두가지의 속성을 가져야 할것 이라고...

흥미와 인상, 명이 긴 작품들이 레외없이 가지고있는 이 속성을 어떻게 해야 작품에 부여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문학예술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진실을 쓰는것입니다.》

진실을 쓰는것, 그것은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본질적요구에 대한 정식화이며 창작에 대한 우리작가들의 근본자세에 대한 정식화이기도 하다.

진실을 보지 않고 진실을 반영하지 않을 때 작가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고 생활을 미화분식하며 가식할때 독자는 작가의 말을 믿지 않는다.

독자들이 생활속에서 본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독자들이 현실속에서 느낀 바로 그것을 작품의 인물들도 느끼고 독자들이 생각한 바로 그것을 인물이 생각할 때 독자와 작품의 인물사이에는 마음이 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인공과 독자가 서로 마음이 통할때 곧 공감의 생김새가 생기며 공감되기 시작할 때 독자는 주인공들에게 이끌리기 시작할것이다. 그리고 공감을 주는 주인공이 강한 인상적인 충격을 안길때 독자는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게 될것이다.

흥미와 인상을 주는 열쇠는 진실에 있다. 진실이 바로 작품의 생명이다. 어디까지나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인물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호상관계를 맺어주고 갈등을 설정하고 사건을 물려주고 성격들을 발전시키면서 형상해나가는 창작과정에 나는 시종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고 노력하였다. 그 어떤 꾀임새나 효과를 노려 생활의 진실을 제멋대로 외곡하면서 진실을 비틀어버리거나 생억지로 깎아맞추는 일이 될수록 《많지 않도록》 하자고 애썼다.

나는 작품의 주제적과제와 사건운반의 기본집을 주인공 한사람에게 실어주는것이 통례이며 합리적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시간》을 쓰면서는 작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물을 리상철이 한사람만이 아니라 문화린이까지 두사람으로 삼았다. 이 두 인물은 립도식이와의 갈등관계의 견지에서는 한사람이나 다름없다. 《평양속도》의 창조자라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나는 이른바 《기본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두사람을 무리하게 합쳐 한인물로 형상할수 없었다. 왜냐 하면 생활자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58년 평양건설에서 일어난 일대 비약에 대

한 뚜렷한 수자적징표는 16분에 한세대씩 조립했다는것뿐이아니라 7천세대본의 자재와 자금과 로력으로 2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어냈다는데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평양속도》를 이루는 2대수치이다. 하나는 비약의 순간속도수치이며 다른 하나는 년간에 이룩한 기적의 량이며 내용적수치다.

7천에서 2만을 얻어낸것은 설계가들이였다. 16분에 한세대씩 조립하는 기적을 시공자들이 이룩하기전에 설계가들이 그 거대한 기적을 산출해냈다. 즉 설계가들은 머리로써 이러한 기적이 나올수 있다는것을 계산했으며 건설시공자들은 손으로써 그것을 이룩했다.

평양건설에서 기적을 이룩하여 우리 인민들을 하루빨리 반토굴에서 끌어내려 현대적인 문화주택에서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먼저 받들고 또 먼저 받아안은것은 문화린이였다. 상철은 자기의 생활상 위치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하고 웅건하고 심오한 사상과 의도 그리고 평양건설의 폭을 작품에 옮겨줄만한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문화린이도 또한 리상철을 대신할수 없었다. 머리로 일하는 그가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속에 와서 16분에 한세대씩 조립해낸 영웅들의 선봉자로 될리 만무한것이다.

한때 나는 두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보려고 건설현장에서 로동하면서 공장대학에 가서 설계를 배운 《리상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을 생각해낸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인위적인 만능자는 7천에서 2만도 찾고 16분에 한세대씩 조립하기도 했지만 그밖의 다른 문화린의 모든 지위를 하나도 대신해주지 못하였다. 문화린의 유원지설계, 립도식이와의 관계, 해방직후의 보통강설계... 특히는 10월전원회의를 전후로 하여 심각한 번뇌와 우여곡절을 겪는 지식인의 운명과 그의 형상적 위치를 대신할수 없었던것이다.

합칠수 없고 합쳐서도 안될 두사람을 만약 무리하게 합쳤다면 생활의 진실은 외곡되고 자연스럽던 구도는 오히려 파괴되고 위대한 사상과 령도를 형상할 가능성은 비할바없이 적어지고 작품은 허위적인 기초우에 올라서고말았을것이다.

자연스러운것, 그것이 아름다운것이 아닌가!

구성은 생활의 진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는가 하는것때문에 필요한것이다.

나는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작가에게 부여되어있는 《만드는 권리》를 행사하였다. 문화린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원래 주택설계가와 도시계획설계가는 분업화되어있다.

그러므로 분야를 달리하는 설계가들 일반의 규범에 따른다면 작품에는 주택설계가와 유원지설

계가 두사람의 설계가를 내외야 했을것이다. 작품에서 보통강개수에 대하여, 락원으로 변하는 보통강유원지건설에 대하여, 대성산과 대동강을 포괄하는 평양건설의 웅대한 전망에 대하여, 공원도시로서의 평양의 새로운 도시특성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7천에서 2만을 찾은 새형의 건축설계의 성과에 대해 말하는것보다 못지않는 중대성을 띠었다. 그러므로 그중 한 설계가만 취급할수 없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한끝에 분업화되어있는 두명의 설계가를 합치기로 하였다.

실제로 내가 취재중에 잘 알게 된 한 설계가는 원래 건축설계를 전문하던것이 도시계획설계가로된 사람이었다. 그는 분업화되어있는 량쪽 일을 다 할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하여 남보다 두배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를 원형으로 삼아서 문화린이라는 한 인물형상을 창조하였다.

서로 성격을 달리 하고 다른 운명의 길을 거쳐왔으나 《평양속도》창조자들의 대렬에서 주축을 이루면서 림도식과 갈등의 한선상에 놓인 리상철 - 문화린은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나가는데서 하나의 공통된 특질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충실성이다. 이 공통성으로 하여 그들은 한덩어리가 되어 림도식형의 인간과의 갈등관계를 가지는것이다.

로골적으로 당의 건설정책을 시비하고 반대하면서 집행하지 않았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제거되었던 1958년에는 우리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다른 형태의 인간들이 나타났다.

보수주의, 신비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소극분자, 파괴압해분자 등 여러 형태의 훼방군들이 있었다. 그 각종 훼방군들중에서 (파괴압해분자들을 제외해놓고) 작품의 기본갈등선에 끌어내어 전형화해야 할것은 어느것인가?

나는 그런것이 림도식형이라고 인정하였다.

(23페이지에서 계속)

리가 올렸다.

《다음 어린이 들어와요.》

《아니예요. 생필아저씨가 오셨어요.》

애들은 한마디씩 조잘거렸다.

《아니다. 아저씨 좀 있다가 나중에 깎을테다. 너희들 먼저 들어가거라.》

《이것 봐요. <생필직장동무들에게 먼저 깎아드립니다 > 하고 쓰잖았어요.》

속보마리를 둘러뻐던 애녀석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며 장한듯이 정세형을 말뚱말뚱 쳐다보았다.

그 애의 맑은 눈동자와 목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자극하였다.그 글썽지가 여느때없이 새로운

얼핏 보면 그런 인간은 《충실》하고 《당성》도 강하고 《일욕심》도 있고 《아량》과 《원만한 작품》도 소유하고있었다. 그러나 교묘하게 위장한 출세주의자이며 요령주의자이며 상급에는 아첨하고 하부에는 내려먹이며 벗에게는 위선적인 이런 형의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찢러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숭고한 지향과 아름다운 열정을 모독하고 인간적존엄을 모욕하였다.

바로 림도식형의 가짜 충실성을 가진 인간들이야말로 비약의 날개가 되고 기적의 신비로운 바람이 되는 대중의 불타오르는 열의와 창발성에 찬물을 끼얹어대는 주범이었다.

성실과 위선, 진실과 가식, 진지성과 요령주의, 당성과 초당성... 한마디로 진짜충실성과 가짜충실성... 이 량자대립이 《평양시간》의 기본갈등으로 되게 된 까닭이 바로 이와 같은데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당시 생활의 진실의 가장 본질적으로 체현하고있는 갈등이라고 인정하였다.

나는 이 작품창작의 모든 긍정들에서 할수 있는것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반영하려 하였다. 그런만큼 생활을 미화분식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명심하느라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이 작품을 창작할 때처럼 진실성에 대하여 중시해본적이 이전에도 거의 없었다.

그것은 특히 이 작품을 창작하는동안에 당에서 생활을 미화분식하고 외국하는 경향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주었기때문이다.

당의 지도는 우리 작가들로 하여금 참다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가다운 자세를 확립하게 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었다.

당의 지도에 각성하고 고무되어 진실을 쓰려고 애는 썼지만 아직 부족점이 많다.

나는 당의 의도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겠다.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마치 봉사기관 어데서나 흔히 볼수 있는 《영웅, 영예군인들에게 먼저 봉사하여드립니다.》 하는것처럼 보여 가슴이 뭉클하였다. 거기에 담긴 기대가 너무도 큰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글자들은 역세고 두툼한 석준아바이의 손으로부터 나근나근하고 죄꼬만 유치원애들의 손까지 합쳐서 쓴것처럼 보였다.

《아저씨, 빨리 들어가세요.》

애들이 팔을 잡아끌었다.

《그래, 그래, 들어가자.》

정세형은 천천히 일어섰다.

크고작은 손들이 합치여 떠밀어주는 저 멀리 높은곳을 향하여...

당에 충성다하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의지를 진실하게 노래하자

김상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당 제 6 차대회를 앞두고 지금 온 나라에 일만가지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다. 용광로의 출선구에서 쏟아져나오는 쇠물이 뿌리는 찬란한 창조의 불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월을 앞당기며 고속도로 돌아가는 충성의 기대들의 쇠칼끝에서 튀는 불꽃이며 나라의 번영을 하늘높이 쌓아올리는 건설장의 용접불꽃의 아름다움은 그 어느 정원에 핀 꽃의 아름다움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꽃은 그러한곳에서만 피는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꽃으로 피는것이다. 그들의 눈가에, 그들의 뜨거운 심장속에 붉디붉은 충성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있다. 년간계획을 당대회전으로 앞당겨끝내기 위한 로동계급의 역세고 줄기찬 투쟁속에, 950 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펼쳐나선 농민들의 심장속에 꽃들은 피어나고있다. 이 꽃들은 당과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이며 의지이며 절절한 념원과 심정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이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우리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태어나고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세계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향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참으로 행복하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기치를 고수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역세계 전진하는 백전백승의 주체형의 당,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인민대중을 따듯이 보살피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당,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체인민을 철통같이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을 혁명의 전위대로 가지고있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인민은 없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조국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끝없이 룡성변영하며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으며 당

국노로서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던 우리 인민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가장 긍지 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인민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당을 따라 나아가는 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어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하기에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싸워나가는것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이것은 우리 로동당시대의 시대정신이며 곧 우리 시대의 철학이다. 이 벽찬 시대정신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불태우며 사는 우리 시인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정신을 우리의 심장속에 더 세차게 불붙게 할수 있을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시문학의 철학성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겠는가.

시문학에 있어서의 철학은 추상적론리로써가 아니라 산 인간의 뜨거운 심장으로써만 체득할수 있다.

우리 문학속에 구현되는 철학성은 자주적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당과 수령을 모신 우리 인민의 영생하는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의 충성의 열도와 그 깊이에 관한 문제이며 그 진실한 체험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 하면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에게 모든 운명을 맡기고 그를 높이 우러러 끝까지 따르는것은 당이 우리의 어머니이며 삶의 근원이며 우리 행복과 휘황한 미래의 창조자이기때문이다.

우리 시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노래를 자기 창작의 첫자리에 놓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자애롭고 세심하신 지도밀에 당의 가수로 급속히 자라난 우리 시인들은 그이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령도로 하여 일대 양양기에 들어선 우리 조국의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당을 높이 받들고 따르며 당에 모든 충성을 다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 그들의 념원과 절절한 심정을 더욱 진실하게 반영해야 할것이다.

지금 온 나라에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는 공산주의적혁신운동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다.

시대정신의 나팔수인 우리 시인들도 응당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우며 그들의 숭고한 충성심을 진실하게 노래해야 할것이다.

그뿐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충실성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반영해야 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당에 대한 노래를 직선적으로 써서는 안된다는것과 당원들과 인민들이 당에 충성다하려는 신념과 의지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옹게 반영되도록 가사를 써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이는 작품의 예술적형상에 관한 가르침이며 또 한편으로는 작품의 철학성에 관한 가르침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문학작품에 있어서 사상성과 철학적성, 예술성과 철학적성은 서로 떼어놓을수 없는 련관관계에 있다.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적형상성은 깊은 철학적성을 전제로 하고 깊은 철학적성은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적형상에 의해서만 작품에 구현된다.

그렇기때문에 한편의 시나 가사가 그 문장을 풀어서 써놓으면 강연제강이 될만큼 직선적으로 썬여졌다면 그것은 작품의 예술적형상성이 높지 못하다는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작품의 사상성과 철학적성이 깊지 못한것을 의미한다.

시인의 사색이 깊지 못하며 당원들과 인민들이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자기의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작품을 쓸 때 그는 일반적이고 직선적이며 빈소리만으로 작품을 엮을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거기에서는 그 어떤 철학적성도 예술성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다.

시에서는 큰소리가 필요한것이 아니라 큰 감정이 필요하며 크고 깊은 뜻이 필요한것이다.

시에 정치적표현을 직선적으로 쓴다면 사상이 깊이 담겨져있을수가 없다. 도대체 몇줄 안되는 서정시에 직선적인 표현만 라렬하고 그뒤에 련상되거나 느껴지는것이 없게 된다면 시처럼 묘사표현적가능성이 적은 문학형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어떤 시들은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일반적인 사상을 정치적표현으로 설명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시구절이 독자에게 특별한 감명을 주지 못하고있는것 이다.

이런 시들은 큰 말로 큰 감정을 노래한것 같지만 그것은 일반적인것에 머무르고있으며 시인이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쉽게 짜낼수 있는 생각과 말들인것이다.

일반적인 개념을 일반적인 정치적술어로 개괄하고 서술하는것은 정치적구호나 강연제강의 분야이다.

그러나 시는 일반적개념을 직선적으로 표현해서는 안될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말뒤에 말이 있어야 하며 말뒤에 큰뜻을 담을줄 알아야 하는것이다.

시인에게는 하나에서 하나를 헤아리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에서 열을 헤아리게 하는 언어가 필요하며 크고 현란한 말로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가 아니라 소박한 말로 생활의 진실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진실로 시적인 언어가 필요한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는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고안해낼수가 없다.

최근 공장의 기대결에서나 협동농장의 밭머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감격과 영광을 노래한 시들과 가사가 많이 나오고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며 또 웅당한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눈오는 밤, 비내리는 새벽에 걸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몇만 몇십만리이며 다정히 잡아주신 손길은 또 얼마이신가. 그 영광, 그 감격을 우리 시인들이 어찌 자기 창작의 첫 자리에 놓고 소리높이 노래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우리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아직 한번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서있는 땅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과 하나로 잇닿아 있는 우리 조국땅이라는 그 감격, 그 영광으로 하여 한시도 집에 앉아있을수가 없어 밭머리에만 나가 사는 그런 인간의 충성심도 노래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내세워주신 숨은 영웅 백설희동무의 심정이 바로 그렇지 않았는가.

자나깨나 시험포전에만 마음이 가있고 어쩌다 평양에 갔다가도 그 포전생각에 다정한 동무들이 기다리는 아늑한 합숙방에도 들리지 않고 밤차로 내려가는 백설희동무, 그는 어느날 밤, 천막을 친 포전의 우등불곁에 앉아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초급당비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늘 이런 생각이 들군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 작물을 시험재배하신 저택정원과 이 시험포전이 하나로 이어져있다구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심으시고 가꾸시던것과 우리가 심고 가꾸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집보다 여기가 더 좋구 마음두 편해요.》

우리 시들에는 바로 숨은 영웅들의 이러한 승

고한 정신세계가 진실하게 반영되어야 할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당에 대한 관점과 신념은 또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백설희동무에게 입당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는 온밤을 뜬눈으로 새운끝에 결국 그것이 20 여년동안 어느 하루도 잊은적 없는 절절한 소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문제를 뒤로 미루기로 결심한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아무런 기쁨도 드리지 못한 자기로서는 아직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의 대오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한성원으로 될수 없다고 생각한것이다.

백설희동무는 당을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고있으며 그때문에 당앞에 그렇게 겸허하고 진실한것이다.

우리 시대의 인민들은 바로 그렇게 살고있으며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있다. 그러한 생활과 사색과 신념이 집중적으로 나타난것이 숨은 영웅들이다.

우리 시인들이 당에 대한 시와 노래를 많이 썼지만 당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이렇게 깊은 심정, 그 눈물겨운 경건한 감정을 진실하게 자기의 시에 담은적이 있는가.

숨은 영웅들, 그들은 그들자신이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로, 자기들의 심장으로 시를 쓰고있다.

백설희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날을 위해 자기의 청춘도 행복도 다바쳤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쁨속에 자신의 청춘을 보다 빛나게 꽃피운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가령 《청춘》이라고 제목을 달수도 있는 그가 반생을 바쳐, 원고지우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지우에 쓴 시이다.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렇게 자기들의 심장으로 시를 쓰고있다. 그들의 심장의 뜨거움, 그들의 사색의 깊이, 그들의 신념의 높이에 이르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대한 철학적깊이가 있는 그 어떤 시를 쓸수 있겠는가.

우리 시인들은 당에 대한 노래를 몇마디의 정치적인 술어로 직선적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요구를 심장에 새겨야 할것이다. 만약 시인이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근로인민들의 생활과 당에 대한 그들의 신념과 의지와 그들의 심정을 자기자신의것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을 뜨거운 심장으로 쓰지 않고 차거운 잉크로만 쓴다면 시대 정신을 구현한 철학적깊이가 있는 시를 쓸수 없으며 철학적깊이가 없는 시는 한번 읽고 나면 곧 잊혀지고말것이다.

철학적깊이가 있는 시를 쓰기 위하여서는 시인의 현실체험과 함께 또한 부단하고 깊은 사색이 필요하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작가란 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쉽없이 체험하고 사색하고 창작하여야 한다.

시인이 사색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시대와 현실을 깊이 파악할수도 없으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적이며 구체적인 감정과 정서를 찾아내어 그것을 자기의것으로 체험할수도 없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서 태성할머니는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돌아와서 남들과는 달리 몹시 격정스러운 기색으로 눈물을 흘린다. 마을사람들과 집안사람들모두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유독 태성할머니만이 피로운 낫색을 하고 조용히 우는것이다. 의아해서 왜 그러는가, 어디 편치 않은가고 묻는 며느리에게 그는 가슴이 쓰리다고 하면서 나쁜놈들이 얼마나 쏘라닥질을 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안색이 그렇게도 좋아졌겠는가, 그것이 가슴아파서 운다고 대답한다.

이 장면은 확실히 영화문학작가의 발견이며 사색을 거쳐 얻어진 생활의 진실이라고 할수 있다.

이 예술영화에는 또 하나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태성할머니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나 가실 길을 정성껏 쓰는 장면이다.

소박한 할머니의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역시 소박하고 말없는 정성과 충성심은 그것만으로도 실로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깨끗이 해드린다는 정성뿐이 아니라 그이께서 가시는 앞길에 널려있는 허접쓰레기들—도농산국장과 같은 인간쓰레기들을 쓸어버리는 심정이기도 하다고는 생각할수 없겠는가? 물론 지금 그것을 태성할머니에게 물어볼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든 말든 그것은 이미 시인들자신이 사색할 영역이 아니겠는가.

시인의 사색은 시의 철학적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전제인만큼 시인의 사색의 빈곤은 언제나 시의 철학적빈곤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시인들은 언제나 사색하고 탐구하며 창조해야 한다. 여기서 사색이란 높은 정치적안목과 결부된 사색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창작적사색이란 사회현실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태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엄격히 기초한 그러한 사색이어야 한다.

당정책에 대한 깊은 파악과 높은 정치적안목이 없이는 백설희동무가 어떻게 하여 그 누구도 그것의 성공을 믿지 않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연구과제, 자신도 그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수 없었던 새품종의 연구과제를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자진하여 맡아나섰는지를 이해할수 없을것이다.

박영철동무는 주물에서 혁명으로 되는 새로운 주물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를 완성하고도 이에 만

죽하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바가 새 주물방법의 연구,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거기에 있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진하여 혁명소조기간을 연장하고서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달라붙는것이다.

숨은 영웅들의 이 모든 심정과 행동들은 우리들의 시적사색, 철학적사색을 낳게 하는 훌륭한 소재들이다.

그러나 그 사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에 대한 깊은 파악과 그것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현상을 내다보고 분석할줄 아는 높은 정치적인안목이 안받침될 때야만 비로소 뜻깊은 철학적인의를 지닐수 있게 될것이다. 레를 들어 간석지 10 만정보를 개간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만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얼른 생각하면 이에 대한 리해는 단순하여 아무런 깊은 사색이 필요한것 같지 않게 생각될수도 있을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부침땅을 그만큼 늘구어 알곡을 더 많이 내리는 순 경제적인의의 측면에 국한하여 리해한다면 아무런 깊은 사색도 필요치 않을것이며 따라서 또한 그 어떤 시다운 시도 창작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가서 당정책을 단순한 경제적측면에서가 아니라 인간을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측면에까지 심화시켜 파악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및 시적 사색의 심도는 그만큼 깊어질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서 당정책에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바다를 정복하여 새로이 얻어내는 부침땅으로 하여 넓어진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 우리 조국에 대한 더 깊은 긍지와 사랑을 심어주려는 당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다는데까지 우리의 사색과 파악이 심화된다면 여기서는 이에 대한 한편의 시가 탄생할수도 있을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철학성문제가 작품의 종자문제와 깊이 관련되어있다는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을 깊이 깨달을수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깊은 철학적사색이 없이는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알수 없으며 당정책에 대한 높은 정치적인안목이 없이는 의의있는 작품의 종자를 찾아낼수 없기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의의있는 종자에서만 깊은 철

학적사색이 전개될수 있으며 아름다운 형상의 꽃도 피어날수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당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와 파악에서 얻어진 종자, 높은 정치적인안목과 결부된 깊은 사색, 거기서 피어나는 풍만하고 아름다운 형상의 꽃—이것이 우리의 시문학을 당이 요구하는 질적수준으로 비약시키는 지름길로 될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해야 할것은 그 현실침투와 체험이 단순한 현실관찰이나 로동과정의 체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인들의 현실체험은 비상히 높은 우리 시대 정신의 체험이어야 하며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심장속에 불붙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뜨거움을 그대로 자기의것으로 받아안은 그러한 현실체험이어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시인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통한 사색이며 체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인은 논리로써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로써 형상적으로 사색하고 체험해야 하는것이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감정과 정서자체를 체험해야 할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깊은 사색과 체험으로 얻어진 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서정의 날개를 잃어 버릴것이며 결국 시는 죽어버리고말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우리 시인들이 한가지 확고한 립장과 태도를 견지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을것인바 그것은 며칠밤을 새워 종자를 골라놓고도 다시 생각하여보고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 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보고드리는것을 또다시 미루는 백설회동무와 같은 티없이 맑은 충성심이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순결한 량심이다.

우리는 절대로 책상우에서 걸만 번지르르하게 망탕 시를 써서는 안될것이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 6 차대회를 맞이하는 해에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대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고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시인들은 무엇으로써 영광스러운 당대회를 맞이해야 할것인가. 두말할것도 없이 당에 바치는 무한한 충성심으로 불붙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심정을 그대로 담은, 진실로 철학적깊이가 있는 시의 풍만하고 커다란 꽃다발을 우리의 어머니당 제 6 차대회앞에 드려야 할것이다.

락원의 금수강산

리계심

우리 나라를 두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금수강산이라고 일러왔다. 이 말에는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공지가 시적으로 함축되어있는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꽃피워주신 우리 시대에 와서 금수강산이라는 말에 락원이라는 말이 덧붙여 어느 사이엔가 락원의 금수강산이라고도 불리우고있는데 오늘의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이보다 더 적중한 표현은 찾기 힘들지 않겠는가고 생각한다.

어느 사이엔가 달라진 그 표현! 어느 사이엔가 달라진 그 내용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우리가 흔히 외우는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산천 경개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에 대한 레찬에 머물렀다면 락원의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에서는 보다 많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세상에서 으뜸가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송가의 감정이 흘러넘치고있는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은 락원이라는 말을 꿈나라에서나 쓰는것으로 생각해왔었다. 그것은 끼니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사시장철 단벌 누데기로 몸을 가리워가며 세상 만사를 오직 걱정속에 파묻혀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락원이란 한낱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꿈아닌 락원의 현실에서 살고있는것이다.

입을 걱정, 먹을 걱정, 아이 공부시킬 걱정, 병나도 치료할 걱정을 모르는 천만 시름을 다 털어 버리고 그저 행복이라는 생활의 흐름속에서 살고 있는것이다.

길가에 설레이는 가로수에도 하늘높이 솟아난 아파트 창가에도 황금이삭 설레이는 들판에서도 행복한 락원이 춤추고있는것이다.

세상에 부럼없는 이 락원의 금수강산에서도 가장 행복한것은 우리 녀성들이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날 가장 설음 많고 가장 천대받던 우리 녀성들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며 사람답게 살도록 온갖 사랑과 극진한 배려를 들려주시고계시기때문이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옷감으로 온 나라를 휘감아가며 밤낮으로

직기바다를 날아도는 방직공들의 충성스런 그 마음에 받들려 락원의 금수강산은 날이 갈수록 더 더욱 아름다와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직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공들을 찾아 자주 평양종합방직공장에 간다. 이 공장은 녀성로력영웅을 10여명이나 내고 수많은 로력혁신자들을 키워낸것으로 자랑높은 공장이다. 공장안에 탁아소와 유치원이 제일 많은것도 이 공장이다.

그리고보면 우리 나라에서 무엇이나 첫자리에 손꼽아야 할 자량이 너무나 많다고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첫자리에 꼽아야 할것은 이 방직공장에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덕의 력사라고 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우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동강변의 제일 좋은 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전후의 재더미속에서 선참으로 복구건설의 삽을 박아주신것도 이 방직공장 이였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고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믿음직하게 떠밀어가는 부대로 키워주시기 위하여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시고 각별히 배려해주신 어버이수령님!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저녁 합숙에 찾아오시여서는 손수 이불솜의 두터이를 만져보시고 여름철에 오시여서는 얇은 모포를 덮여주라시며 친히 직포공들의 식사까지 맛보시며 친어머니도 미치지 못할 극진한 사랑을 기울여주신 어버이수령님!

전후의 그 어려운 때에도 공장구내를 공원같이 꾸리라고 설계해주시였고 작업장은 해빛이 잘 들고 시원하게 꾸려 즐겁게 일할수 있도록 자주 돌봐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러시고도 직포공들이 춤 추듯 순회길을 달려가는 그 수고를 두고 못내 심려하시여 점심식사까지 미루시며 의사와 더불어 직포공들의 건강문제를 의논해주신 수령님!

철이 바뀌고 해가 갈수록 그 사랑 그 은정 깊

어만가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에 보답하고 싶은 직포공들의 충성의 마음 또한 해와 달이 갈수록 더더욱 뜨겁게 타오르는것이다.

직포공들은 전해에 비하여 훨씬 늘어난 올해 생산량을 영광스러운 당대회전으로 끝내여 우리나라 전체 인민들을 더 아름답게, 온 나라가 눈이 번쩍 뜨이도록 환하게 입히겠다는 꿈을 안고 고속도회전의 기대사이를 환희에 넘쳐 새처럼 날아들고 있는것이다.

그것은 마치 가장 뜻깊은 명절날에 사랑하는 아들딸들에게 제일 좋은 새옷을 입혀 세상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내세우고싶어 힘든줄 모르고 일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 그대로이다.

실 한오리한오리 곱게 물들여 짜는 선염 고급 양복천으로부터 날염꽃천에 이르는 천수백종의 천을 짜는 직포공들의 마음은 꽃불같이 아름답게 타 오르고있는것이다.

조국의 모습을 한층 더 아름답게 단장하여 어

버이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구슬같이 맑은 마음이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녀성들, 이런 어머니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떠받들고있는데 어찌 우리 나라가 아름다와지지 않으랴.

인민들의 차림새를 스스로 말아나선 그 열정, 그 높은 헌신성을 끝없이 흘러내리는 비단천에 비껴담아 노래부르는 내 가슴에도 충성의 나래가 돋치는것만 같다.

여기는 하나의 공장이라기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포공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키워주신 살뜰하고도 정다운 사랑의 집이다.

방직은 예술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뜻을 한가슴 모자라게 받아안고 환희에 넘쳐 랑만에 넘쳐 춤추며 일하며 충성을 꽃피워가는 여기가 바로 락원의 금수강산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행복의 락원이며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락원의 금수강산의 한쪽 그림이라고 나는 자랑스럽게 노래하고싶다

수필

인간의 힘

김우경

별들이 도글도글 끓는 여름밤, 청아한 풀벌레 소리가 여름의 정취를 한껏 돋구어주는 이런 밤이면 우리는 마당가에 피워놓은 모기불곁에 둘러앉아 구수한 쑥내를 맡으며 주인집아바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하였다.

아바이의 이야기는 매양 번덕스러운 날씨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시작되곤하였는데 그것은 의례히 올해의 풍년농사작황에 대한 화제로 번져나갔고 그 다음에는 결가지를 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것들이 엇갈리어 오르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온갖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것입니다.》

어느날 저녁, 불밝은 농장문화회관의 창가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마을의 이집저집에서는 아낙네들이 저녁밥을 지어놓고 장난에 취한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아바이가 피워놓은 모기불곁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이날 아바이의 이야기는 《번덕스러운 날씨》나 《풍년농사작황》에 대한 말로 시작되지 않았다.

아바이가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나서 방금 막 입을 열려는데 갑자기 프락프르발동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읍으로 비료를 실으러 가는 프락프르가 발동을 건 모양이었다. 그 소리는 어찌나 큰지 마을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리고말았다.

아바이는 프락프르소리가 즈음해지기를 기다리며 초물부채로 피여오르는 쑥연기를 헤쳐놓으면서 발동소리를 듣고있었다. 발동소리가 멀리로 사라져갈 때야 아바이는 우리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프락프르가 참 못하는 일이 없수다. 발을 못가나? 짐을 못신나? 물을 못푸나? 또 탈곡기를 못돌리나? 정말 프락프르는 힘장수지요.》

이렇게 되어 프락프르에 대한 말로 꼭지를 댄 이야기는 어느덧 장수에 대한 옛말로 번져나가 흥을 돋구었다.

롱마를 타고 훨훨 하늘을 날아다니며 외적들을 쳐물리쳤다는 장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큰 바위를 들어 몇백리씩 집어던졌다는 돌장수이야기 등 그 어느것이나 다 환상적인것들이었다.

나는 어느덧 옛이야기에 손쉽게 끌려들어가곤 하던 그 동요시절로 되돌아간듯싶었다. 아니 어른이 되어 듣는 옛말은 왜서인지 더욱 웅심깊게 들렸다.

먼 옛날, 인류가 발생한 아득한 그때로부터 태

고의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왔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센 장수를 그려 보았으며 여러가지 신화와 옛말, 전설과 민화들에 장수이야기를 창조하였다. 고조선건국신화인 단군 신화에도, 설암리전설이나 절부암전설 그리고 회랍이나 애급의 고대신화에도 바로 인간의 이 념원이 비껴있는것이다.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한 유산중의 하나인 《룡을 낚는 사나이》란 그림을 봐도 그렇다.

《룡을 낚는 사나이》는 오랜 옛날부터 신격화되고 신비화되어 숭배의 대상으로 되고있던 환상적인 동물인 룡을 낚시로 낚아내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세상조화를 다 부리기때문에 감히 범접할수 없었던 룡을 이겨내는 인간의 힘에 대한 긍정이 이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이루고있다.

한쪽의 그림에도, 예로부터 전해오는 하나의 구비전설에도 인간의 무한한 힘에 대한 리상이 어려 있다.

돌이켜보건대 아득한 그 옛날, 태고인들의 힘은 얼마나 보잘것 없었던가.

그러나 그들은 로동을 통하여 부단히 생산도구물 개선하였으며 힘을 키워왔다. 그들은 지레대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힘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들수 있었으며 굴레바퀴의 원리를 발견하여 자기들의 힘을 더욱 증대시켰다. 야생동물이었던 소와 말, 코끼리들을 길들여 사람의 힘을 그만큼 더 보태었다.

이처럼 사람들의 힘은 구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력사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장성하여왔다.

그러나 자연과 사회 앞에 너무나 무력했던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

내가 이런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데 아버이는 이야기를 푹 끊쳤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방안으로 들어가 편지 한장을 들고 나왔다.

《임자네들 이 편지를 좀 읽어보게. 광산에서 일하는 내 손녀한테서 온 편질세.》

나는 무심결에 봉투에 쓴 주소와 이름을 보았다.

《...윤선옥 올림》

나는 놀랐다. 생활이란 얼마나 묘한것인가?

윤선옥이, 나는 그 처녀를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지난해 광산에 취재를 갔을 때 만났던 단발머리 애어린 벨트콘베아운전공처녀를 어찌 잊었으랴. 붉고 푸른 신호등이 별처럼 빛나는 장거리벨트콘베아의 자동조종탁앞에 앉아있던 선옥이의 그 귀여운 모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그럼 아버이가 그 처녀의 할아버지란말인가?

나는 아버이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선옥이의 편지에는 벨트콘베아로 매일 5 만여톤의 버력을 실어서 멀리 바다에 처넣는다는 자기 일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랑이 넘쳐흐르고있었다.

아버이는 자랑이 섞인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선옥이가 장수인셈이지요. 하루에 커다란 산 하나씩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던지니까요. 옛말에두 이런 장수는 없수다.》

그때에야 우리는 아버이가 왜 편지를 읽으라고 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지금세상엔 모두가 장수지요. 모두가 장수니까 미처 자기들이 장수란것도 모르고있지요. 저 앞집 쌍가매네 둘째 딸은 용해장에서 탄산수를 운반하더랬는데 지금은 그 체내 혼자서 용광로를 움직이고 쇠물을 뽑는다질 않소. 이런 장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아버이의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장수들이 사는 나라지요.》

장수들이 사는 나라! 이 말은 우리들의 가슴을 한껏 부풀게 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사람들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가? 자기들의 힘이 너무도 크기에 그 힘이 얼마지를 모르고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장수가 되었던가!

아버이의 얼굴은 흘러간 한토막의 과거사를 더듬는지 이그러져있었다.

《지난세상엔 우리 조선사람들이 힘이 제일 없었지요. 난 지금두 왜놈세상에 선옥이 애비가 일 자리를 얻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주먹으로 눈물을 흠치면서 울던 그때를 생각하면 입에서 신물이 막 남네다.》

그때 선옥이 아버지 웅석은 열다섯살이었다.

모진 세상에서 가난을 씹으며 살아오던 웅석이네는 말할수 없는 불행에 빠졌다. 아버지가 부두에서 짐꾼으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친 인줄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앓아누웠던것이다.

어느날 웅석은 몰래 아버지를 대신하여 부두로 나갔다.

털보왜놈감독은 독사같은 눈으로 웅석이의 아래 우를 따먹지 않게 훑어보더니 턱으로 50 키로 그람짜리 쇠덩이를 가리켰다. 그것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웅석은 쇠덩이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몇끼를 굶었는지 모르는 열다섯살 어린 웅석은 아등바등 힘을 쓰며 겨우 그 쇠덩이를 무릎까지 들어올렸다.

이것을 보고있던 왜놈감독놈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히히닥거리면서 웃어댔다.

웅석의 두눈에선 불씨가 튀겼다. 다시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 쇠몽치를 쳐들지 못했다.

그날밤 웅석은 너무나 원통하여 앓는 아버지의

이불깃에 눈물을 떨구며 소리없이 울고 또 울었다. 인간을 50 키로그램의 저울로 다루는 사회,

50 키로그램을 들면 쓸모있는 인간으로 되고 50 키로그램을 못들면 쓸모없는 인간으로, 마소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당하는 그 저주로운 사회를 원망하며 자기의 무력함을 얼마나 통탄했던가.

오직 착취자들의 리윤추구로만 사람을 보는 사회, 인간의 힘이 통락되고 유린당하는 그 사회에서 과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논할수나 있는가,

그러나 오늘은 50 키로그램도 겨우 쳐들었던 그 아버지의 딸이 5 만여톤의 산을 들어 바다에 집어 던진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이 살고있다.

그러기에 남들이 수백년동안 걸쳐 수행한 공업화의 위업을 단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전쟁으로 재더미로 된 조선은 100 여년이 걸려도 소생하지 못한다 했지만 불과 십여년이 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섰다.

세계가 한랭전선의 파괴적인 영향하에 해마다 흉년의 아우성이 높아갈 때 풍년포성을 만천하에 울리고있으니 이 기적을 두고 세계는 놀람과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 기적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위대한 령도의 해발속에 자라났고, 자라나고 있는 수천수만의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무궁한 힘이 있다.

한계가 없는 무궁한 인간의 힘에 대한 위대한 사상을 밝혀주시고 주체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만 인간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무궁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런 인간들이 새시대를 개척하고 그들의 힘의 역사를 전진시키며 무한한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락원을 건설하고있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인민으로 되었다.

어제날 50 키로그램의 쇠덩이를 들지 못하여 허리를 굽히고있던것이 우리 사람들의 자세였다면 오늘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주체형의 새 인간들이 조선의 모습이다.

무궁무진한 인민의 힘을 금지높이 자랑하며 온 우주를 향하여 거연히 서있는 장수들-주체조선의 새 인간들의 힘을 어찌 저울로 다룰수 있으랴!

나는 프락포르에 대한 말로 시작된 이날의 소박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웨침이 가슴을 쿵쿵 울려주어 온몸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금할수 없다.

다듬은 말

본래말
래방하다
랭각
랭국
랭동
랭동선
랭동실
랭대하다

랭수
랭수마찰
랭수욕
랭습지
랭차
레스

다듬은 말
찾아오다
식힘, 식히기
찬국
얼구기
얼굽배
얼굽칸
푸대접하다, 차게대하다,
쌀쌀하게 대하다
찬물
찬물수건질
찬물미역
찬진펄
찬단물
보통일, 흔히 있는 일

본래말
레스
레코드
레테르
레파토리
레쁘르파즈
레알리즘
레상사
뢰성
뢰우
마다라스
마멸되다
마모되다

다듬은 말
무늬그물
(축음기)소리판
이름표
울림종목
보도문학
사실주의
보통일, 흔히 있는 일
우뢰소리, 우뢰
우뢰비
침대갈개
닭아없어지다
닭다, 닭아지다, 닭아 없
어지다

무성하라, 숲이여 외 1편

윤병규

저 멀리
백두산계곡 어디선가
얼음장 터지는 소리
장쾌하게 들려오는
북방의 한여름

림산마을
여기, 양묘장을 찾아오신
아버이수령님
무더위속을 걷고걸으시여
벌써 몇시간

그리도 기쁘시여
소담한 나무모들을 쓸어주시고
봄 여름 가을 내내
더 많은 나무를 심으자시며
우리 할일 환히 밝혀주시고도

깊으신 생각
아득한 수림을
근엄히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서계시는가

이윽고 승엄한 고요를 흔들며
뜨겁게 울리는 수령님 말씀
-우리가 나무씨를 뿌리던
조국진군때의 산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오!

수난에 찬 세월의
잊지 못할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밀림도 목메여 한 가슴 헤치는가
근엄하신 눈길 달리시는 수해천리에
좌아 - 일어난지는 숲의 물결이여

아 물마른 장강의 돌바닥처럼
빈그루터만 남았던 백두밀림
칼부림이 휩쓴 혈벗은 산야를

조국의 깊은 상처로 안으시고
대원들 이끄시여 손수 씨를 뿌리셨거니

하늘같은 그 은혜 그 축복속에
싹이 트고 뿌리내려 몇십년
아지치며 씨를 날려 몇백리
울울창창 하늘을 가린
조국의 영원한 기쁨아

하많은 사연 다투어 아뢰이듯
소리쳐 달려오는 밀림의 파도우에
봄별같은 미소를 보내시며
수령님 뜨겁게 하시는 말씀이여

-한대를 베면 열대를 심고
열대를 베면 백대를 심어
끝없이 무성할 조국의 숲을
후대들에게 넘겨줍시다!

아, 일찌기
만경대고향집 트랙에서부터
조국의 푸른 숲을 가꾸시여
기나긴 한평생
우리 인민모두를
락원의 푸르른 공원속에 세워주시고
온 강산을 보물숲으로 뒤덮어주시고도

무궁토록 번영할 금수강산
미래의 푸른 숲도 오늘에 안아 키워가시는
아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이여

온 지구상의 모든 나무와 수풀은
한가로운 바람의 조화로 씨뿌려지고
덧없는 정적속에 우거져도
폭풍을 헤쳐온 조국의 숲은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태어나 무성하기에
떨치는 푸른 기상

저렇듯 기쁨에 넘쳐 설레이는것이여라
발밑에 이 나라의 억만숲을 거느리고
승엄하게 펼쳐진 백두산밀림아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 사랑의 역사를
너의 년륜으로 새겨안고
천만년 길이 전하라
물결치라

새 벌구로 떠나며

새 벌구로 가는 아침
저녁이면 돌아올줄 알면서도
몇해나 멀리 헤어지는 길인듯
온 마을이 떨쳐나와 바래이고있소

경적 높이 울리는 뻘스안에서
나도 차창너머
벌목공의 목수건을 기발처럼 흔드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모두 기뻐하오

산을 따라 멀리 집을 떠나
깊은 산 귀틀막에 청춘이 시든 우리
푸른 숲 새 산관으로 떠날 때이면
그 옛날 시든 젊음이 되살아나오

아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 산관에까지 찾아오시여

대대로 자리잡았던 처서군의 자손들을
순환식채벌의 새날로 이끌어주셨소

산마다 층층 자래운 푸른 밀림을
터발처럼 트랙까지 잇대어놓고
웃음속에 노래속에 젊어사니
정든 예가 하늘아래 제일인가싶으오

보오! 번쩍이는 저 학교의 창문을
꿈많은 너인네의 밝은 얼굴을
숲과 함께 무성하는 생활의 뿌리를
세상 한복판에 깊이 내렸소

다 자란 나무라고 망탕 찍겠소?
몇해후를 내다보며 후대들을.생각하며
아껴두고 예돌아 떠나가는
이런 작별 이런 먼길이야 얼마나 좋소!

기쁨 외 1편

송명근

홍분속에 산다
자고 깨면 또다시
새로운 환희가 찾아들듯
울렁이는 가슴으로 창문을 열어 젖히는 마음이어

진정할수 없구나
출근전 서둘러 당보를 펼쳐드는 순간도
달리는 렬차의 차장가에서
이름모를 방직공처녀의 맑은 목소리에
은근히. 귀기울여도.
레사로이 주고받는 말조차
눈곱 뜨거이 되새겨보는
나날이어, 즐거움이어

오늘은
그 어느 기대결에서나 만날수 있어라
어버이수령님 몸소 찾아주시어
온 강산을 잠못들게 한 숨은 영웅들
농장벌의 긴 발이랑우에서도
흙문은 손을 툭툭 털고 내앞에 다가서라

한아빠트 이웃의 젊은 기사도
엇갈리며 앞을 지나는
나이 지숙한 처녀도
남모를 큰뜻을 품고있는듯
다시 또 바라보고싶노라
아 그 언제나
온나라가 흥성이는 나날이어

흘러가는 그 어느 하루도
아니여라, 뜻없이 가는 시간의 흐름이
먼 앞세대의 신비롭던 비밀도
주체형의 인간의 신념앞에
보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아라
모래알처럼 이름없이 묻혔던 열매도
뜨거운 숨결안고 부풀어
거창한 재부로 내앞에 안겨져라
마치 옛 전설의 이야기와도 같이 ...

기빠라!
신문을 펼쳐든 할머니의 안경너머
날마다 숨은 영웅들의 새모습을 익히며 자라는

소녀의 구슬같이 맑은 눈빛도
손이 닳도록 쓸어만지고싶은 하나의 쇠덩이
묵묵히 이 땅을 안아 더웁히고 살지우는
영웅들의 숨결에 마음 뜨거워짐도 ...

하나의 발걸음
순간의 사색도
아버이수령님 바라시는
그곳에만 놓여지고 번뜩이고
숨은 영웅들의 심장에 심장을 잇대이며
아, 온 나라 인민의 마음도 맑아져
충성의 한줄기로만. 굽이치나니

인류 천만년
가고 온 년대와 력사여
그 언제 이렇듯
온 나라 인민이 영웅으로 자라는
열정의 시대를 맞이한적 있었던가

오너라, 나날이어
환희여 즐거움이어
어버이수령님 뿌리시였고
안아가꾸신 사랑의 씨앗들이
주체의 빛발을 한껏 받아안고
꽃으로 열매로
소리치며 설레이며 솟아오르는 명절들이여

강철의 재부와 함께
부푸는 새 열매와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기쁨 된다면
청춘도 한생도
묵묵히 바쳐갈 각오와 신념이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여무나니

아-
래일엔 또 얼마나 많은 숨은 영웅들이
이 땅에 태어날것인가
노도치는 주체사상화의 행군길우에
얼마나 더 강대한 조국이
얼마나 더 좋은 앞날이
오늘에 다가서고있는것인가!

숨은영웅!

우리의 심장속에
세찬 불길로 타번저갈.
한점의 불꽃
그 열정의 삶은
-숨은 영웅!

은혜론 당앞에 우리 인민앞에
검히히
거대한 재부를 두손으로 받들어
내놓는 그 시각
우리는 비로소
놀라움속에 바라볼수 있었으니
아, 그 모습은
우리 지녀야 할 아름다움
우리 따라야 할 숭고함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한점의 꽃가루를 붓끝에 묻혀들고
밤이슬 내리는 이랑 한복판에
락원의 창가에 더 높이 비끼길 행복의 웃음을 안고
주물장의 낮과 밤 표식없는 산촌길에
남모를 자욱을 찍어가고있나니

그 길에 한생이소문없이 묻힌대도
수령님 바라시는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걸어간 탐구의 험난한 굽이굽이
침침 시련의 비바람에
충성의 마음만을 닦고닦은 사람들
그 마음으로 조국을 빛낸 사람들

숨은 영웅- -
그들은
불뿔는 화점앞에서가 아니라
꽃이 웃는 들, 해빛 밝은 기대결에서

위대한 수령님 위하여
청춘과 한생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참된 삶의 빛발로 밝혀준
대답!
우리 시대의 충성을
새로운 높이에로 떠밀어올린
소박한 사람들!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벼꽃 피는 논머리
맹렬히 끓는 유리관앞에
부어낸 쇠덩이에 담배불 붙여물며
네결에
내결에
그렇다
우리의 일터마다에 서있나니

인류의 축복받을 거대한 공적도
소문없이 쌓아올린 보석같은 그 마음
은혜론 손길은
세월의 이끼속에 묻어두지 않아라
그 어느 이름없는곳에 있어도
아, 위대한 수령님의 찬란한 빛발속에
시대의 영광으로 빛을 뿜는것이어라

주체의 자양을 빨며
당의 품속에 태어난 숨은 영웅들
그 이름은 너의것
나의것
그 정신 그 모습을 닮아가며
온 나라 인민이 숲처럼 일어선다
격류하는 시대를 떠밀며
주체조국을 공산주의 하늘가에 받들어올리며 ...

항구도시

김재원

진주물결 배전에 속살대는
푸른 바다 갑판우에 서서
내 지금
내 사는 항구도시를 바라본다

노을 피는 아침저녁
삶의 희열에 넘쳐 이거리를 오갈 때
다 보지 못했고 다 느끼지 못했던것
이토록 놀라웁게 바라보는 마음이어

어디바루이나
나의 안해와 어린것들이 미소짓는 집
창가에 버드나무 스적이는
저 아담한 3층집에서 내가 사는가

손풍금소리 은은한 저 푸른 공원에
그 정다운 나무잎사귀들이 있어라
먼 항해의 피로를 풀며 거닐 때
어깨우에 고요히 스적이던 ...

수도에서 곧바로 내리쬘은
서해안 철길우에 기쁜 기적소리여
너는 그 무슨 알수 없는 행복 가득히 싣고
나를 찾아 이 도시로 그리 빨리 오느냐

오 항구도시 항구도시
바다멀리 떠난 항해사들
조국의표상으로 가슴에 안으라고

우리 수령님 비오는 진월에 찍으셨던
그 사랑어린 자옥우에 솟아오른 도시여

네 품엔 다 있어라,.
못잇을 생활의 모든것
꽃피났고 또 꽃피날
더없이 소중한 내 조국의 모든것

내 처음 당원증을 품고 돌아올 때
배고동 그리도 정답던 그 해변의 저녁길도
출항의 새벽에 귀항의 달밤에
갈매기 먼저 나를 반기던 그 푸른 손수건

잊을수 있으랴
대양의 파도를 넘고넘어 돌아오던 날
우리 수령님 몸소 갑판에 오르시여
함께 찍어주신 그날의 기념사진

아 사랑과 추억의 도시
네가 나의 집 나의 조국
내 삶의 전부가 속속들이 뿌리내린
네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래서 떠날곳은 많아도
돌아올곳은 언제나
너의 이 정든 기슭뿐이더라
조국이며, 나의 항구도시여

산천의 새봄

김명희

이른봄 어느 저녁무렵 회암덕포전에 두사람이 나란히 서있었다.

그들이 서있는 음달에는 아직 눈이 깊었지만 맑은켄 양지쪽에는 이미 거뭇거뭇한 땅이 드러났다.

시료배낭을 등에 진 몸매가 갈람한 청년의 젖은 바지가랭이는 얼어서 소가죽처럼 뻣뻣했다.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그옆에 서있는 몸집좋은 사람의 로동화는 웃등밖에 젖지 않았다.

서쪽 산마루에 내려앉아 느물느물 웃고있는 해가 그들의 그림자를 녹다 만 눈우에 길다랗게 눕혀 놓았다.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가두고성기의 경쾌한 선률, 수리분조에서 쇠불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두엄냄새며 짚검불 타는 냄새며가 매캐하게 풍겨온다.

《이젠 그만 내려갑시다. 해도 지는데.》

건강이 넘쳐보이는 사람이 담배공초를 눈우에 던지더니 옆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저는 저 18 호포전의 시료를 마저 떠가지고 가겠습니다. 미안해마시구 어서요.》

《그러면 소조책임자동무를 여기에 혼자 남겨두고 머리 큰 내가 내려가야 된단말이요?》

자기를 머리 큰 사람으로 치부한 건강이 넘쳐보이는 사람은 허허 ... 소리내여 웃었다.

《그리구 말이 났으니말이지 우리 기사장동무의 일숨씨는 빈틈이 없수다. 깐깐하기를 ...》

이렇게 말하며 그는 그냥 가볍게 웃었으나 그 웃음은 어딘가 좀 어색해보였다. 그럴것이 새로운 3대혁명소조책임자인 전승일이가 작년가을에 농장에서 해놓은 토양분석을 다시 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니 농장의 관리위원장으로서 두루 마음이 유쾌하지 못하기도 하고 먼구스럽기도 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승일은 관리위원장 박경철이와는 전혀 달리 생각하였다. 농장에서 한 토양분석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 농장에 와서 농사를 처음 해보게 되는 사람으로서 그는 직접 자기 눈으로

땅의 성질을 알아보고싶었던것이다. 그러는 과정에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얻기도 하리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온 농장이 쉬는날인 오늘까지도 이렇게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였던것이다》

《정 하겠으면 차라리 매일 마저 하든지 오늘은 그만 내려갑시다. 그러다 괜히 감기에라도 걸리면 야단이우다.》

박경철은 승일이의 언 바지가랭이에 자꾸만 눈이 갔다.

소조책임자인 승일이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고 뒤받침해줘야 할 관리위원장이라는 그 실무적인 사정도 있지만 그가 같은 대학의 5년 후배이기에 더욱 각별히 마음을 쓰는 경철이었다.

그러기에 승일이가 소조책임자로 파견되어 온날 박경철은 농장실정에 대한 소개의 《공식적》인 《순서》를 밀어놓고 대학시절에 대한 추억으로 화제를 이끌었었다. 그때에도 경철은 사회에 먼저 나온 사람으로서 승일이를 잘 뒤받침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지도원을 거쳐 이 농장에 와서 관리위원장이 된후 지금까지의 사이에 자신이 얻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고 승일은 두눈을 가느스름히 뜯쳐 묵묵히 그러나 매우 성실하게 들었었다.

그런데 경철은 그후 승일이가 앓음새없이 포전으로, 농장원들의 가정으로, 종자처리장과 이고장의 토배기들인 로인들을 찾아 부지런히 다니는 바람에 오뎀한 분위기에서 흥금을 터놓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게다가 상대방이 늘 먼저 편차가 있는 영농지표를 말없이 제대로 해놓거나 어느집부역을 손질해주는 등 감화교양을 하는것 같았기때문에 자연히 스스럼없이 대하기가 힘들어졌다.

어쨌든 경철은 승일이의 그 혈기가 부러웠다.

정의감이랄가, 성실성이랄가 하여튼 그것이 남아돌아가도록 푼푼하다는것은 곧 그만큼 젊었음을 의미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철이었다.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바로 자기자신이 저러지 않았던가.

당장 온 마을, 온 농장을 전변시킬것 같은 의욕에 가슴불탔으나 정작 복잡하고도 힘겨운 농사

일에 쫓기우면서 한해 두해 지나보니 그것은 하나의 실천하기 어려운 꿈으로만 남았었다.

승일도 자기처럼 이 농장에서 몇년 일해보면 어차피 알게 될 문제를 아직은 잘 모르고있는것이라구 경찰은 생각했다. 말하자면 나이와 사회생활의 경험에는 관계없이 말이 적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야말로 대하기가 무겁다는 그 점이였다.

《그럼 같이 내려갑시다. 래일 다시 올라와서 마저 할셈치고...》

승일은 경찰이가 그냥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것이 미안하여 시료배낭을 추슬러올렸다.

. 두사람은 마을을 향하며 언덕을 내리였다.

《이건 언제 한것입니까?》

승일은 진대통을 줄맞춰 눕혀놓은것처럼 희암덕으로 곧추 뻗어올라간 양수관을 가리키며 물었다.

살얼음이 씩씩 번들거리는 양수관우에서 금빛 노을이 뛰놀고있었다.

《3 년전에 해놓은건데 술한 품이 들었지요. 나 두 여기서 몇밤 고박 새웠구. 기사장동무가 제일 수골 많이 했수다.》

경찰은 이렇게 말머리를 떼어놓고 이 농장에 온 첫해 자신이 희암골개울을 물길을 파서 끌어오기 위한 공사를 벌리였다가 그만둔 사실을 이야기했다.

기사장동무가 도에 가더니 양수기며 이 배관들을 실어오지 않았겠소. 처음에 나는 이 자재를 탐탁치 않게 여겼지요. 국가자재를 쓰지 않고서도 물을 얼마든지 끌어올수 있는 조건인데 로력에 발목을 잡히웠으니말이웨다. 그러나 그해 희암덕의 농사가 끔찍이 잘되였다우. 자재를 쓴 봉창을 한셈이었지요. 나는 그때부터 통이 큰 기사장을 다시 쳐다보게 되였소.

그리구 농사일이란 내가 생각했던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걸 실천을 통해 깨닫구요.》

승일은 묵묵히 듣고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마을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 두사람앞로는 자루에다 무엇인가를 짚어 진 웬 로인이 걸어가고있었다. 부피는 크지 않으나 몹시 무거운 물건같았다.

《수리분조에서 일하는 아바인데 어디 가서 쇠붙이를 주어오는 모양이요.》

경찰은-혹시 그 아바이가 《자본주의》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승일에게는 귀맛이 좋도록 적당히 이야기한것이였다.

고요한 밤, 낫날같은 초생달이 어둡서린 집집

의 창문을 기웃이 들여다보고있었다. 내가에서 이따금 얼음장 꺼지는소리가 들려올뿐 마을은 고즈넉한 정적에 휩싸이였다.

이 밤 전승일은 소조원실에 숨저고리를 걸치고 앉아서 토양분석을 하느라고 밤가는줄 모르고있었다. 창문에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모포를 쳐놓았다. 소조원실에 온밤 불이 켜져있으면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마음놓고 자지 못할것을 고려하여 승일이가 쳐놓은 모포였다. 승일이 마주 앉은 책상우에는 시약병들과 실험기구들, 토양시료주머니들이 주런히 놓여있었다.

승일은. 마지막으로 몇봉지 남은 시료를 시약이 든 실험기구에 넣었다. 그 결과만 알아내면 이제 이 며칠사이 자기와 소조원들, 작업반 기술지도원들이 애써 벌려온 토양분석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는것이다.

훅이 약물에 풀리고 분해되기를 기다려 승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는 시원한 공기라도 마시고싶었던지 모포커튼이를 들고 밖을 내다보았다.

희웁스름한 달빛이 비낀 마을앞의 들판이 어슴푸레 내다보였다.

얼음장 꺼지는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이 깊은 밤에도 쉬임없이 봄이 오고있었다.,

승일은 년중 제일 바쁜 계절인 봄철에 소조책임자인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한동안 생각해보다가 도로 자리에 와앉았다. 그리고는 산도를 측정하면서 그 수치들을 분석표에 기입했다. 그다음은 계산자를 꺼내놓고 분석표의 수치들을 종합했다.

《아니 이렇게 차이날수 있나?》

승입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두번 세번 계산을 거듭했다. 마침내는 계산자를 탁소리가 나게 분석표우에 놓고 움쭉 일어서서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새로 한 분석표의 집계가 지난가을 기사장이 해놓은 분석표의 집계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것이였다. 지난해의것에는 농장 부침땅면적의 극히 적은 부분이 강산성토양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한것은 강산성면적이 그보다 훨씬 많았던것이다.

(어떻게 되어 이런 차이가 생기였을가. 내가 한것에 모순이 있었을가? 그럴수는 없겠는데 ...)

승일은 자기가 직접 시료를 뜨고 꼼꼼히 분석한것에는 더 의심을 품고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사장이 해놓은 분석표에도 허덕 의심을 품을수 없는 노릇이였다.

《...우리 기사장동무의 일습진은 빈틈이 없수다. 간간하기를 ...》라고 하던 경찰이의 말을 되

새겨보아도 도저히 지난가을의 분석표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이때였다. 밖에서 키가 꺾두룩한 사람이 안절부절을 못하고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는 기사장이었다. 새벽잠이 없는 그는 우연히 밖에 나왔다가 소조원실의 창문에서 한줄기의 불빛이 언뜻 내비치다가 사라진것에 의심이 들어 왔었다.

창문에 쳐놓은 모포짚으로 방안을 거닐고있는 승일이를 들여다보던 기사장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이 밤도 꼬박 뜬눈으로 새우면서 일했구나!)

기사장은 농사일을 두고 자기보다 더 걱정하는 것 같은 승일이를 보자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지 않아도 승일이가 토양분석을 다시 해보겠다고 할때부터 남모르게 편안치 않았는데 밤을 새운 그를 본 순간부터 더구나 가슴이 뛰는 기사장이었다.

그런가 하면 승일이의 눈앞에는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일군은 서로 두둔하려하고 감싸주려 하는것만 같았다.

(내가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건 아닐가? 정확한 실태를 본인들에게서 알아보기도전에 ... 아니야. 나타나는 사실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할수 있어? 말하는 취지로 보아 관리위원장은 토질상태가 이렇다는걸 전혀 모르고있었어 기사장도 모르고있을가? 아니 직접 토양을 분석한 사람이야 왜 모를수 있어? 형식적으로 분석했거나 아니면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랬을수도 있지. 알아보자. 알아보고 빨리 대책을 취해야지.)

승일은 이렇게 생각하며 책상우에 널린 물건들을 주섬주섬 거두기 시작하였다.

어디선가 닭울음소리는 련속적으로 들려왔다.

산간마을의 정서를 안겨주는 그 소리는 승일이의 머리속에서 피곤을 가져주는것 같았다.

관리위원회에는 두사람밖에 없었다. 그밖의 일군들은 현장으로 나간 모양이었다. 난로에서 쫓나무장작이 뿌유스름한 진을 떨 구며 살살 타고있었다.

승일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기사장과 마주앉았다. 책상우에는 두개의 토양분석표가 놓여있었다.

그 두 분석표의 종이색깔과 내용이 서로 다른 것처럼 승일이와 기사장의 표정은 달랐다. 기사장의 표정은 무안을 당한것처럼 보이고 승일이의 얼굴에는 진지하면서도 누를수 없는 의혹과 심

각한 사색이 흐르고 있었다.

승일이 조용히 침묵을 깨뜨리었다.

《기사장동무, 이 두 분석표에 차이가 있기에 좀 알아보자고 ...》

그 말에 대답해야 할 기사장은 담배만 피웠다.

《내가 기사장동무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농장 기술일군들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것 같아서 그러는것이니 좀 이야기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기사장의 눈에는 일순 섬광같은것이 스치였다. 그는 무거운 머리를 천천히 들었다. 그러더니 몇번 군입을 다시고나서

《소조책임자동무, 토양분석이 무엇을 위해 필요 합니까?》 하고 물었다.

승일은 당황했다. 기사장답지 않게 묻는 그 물음에는 어떤 건드리기 무서운 심각한것이 내포되어있는것 같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일은 당황해지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고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예? 그건 어떻게 하는 이야기인지 저로서는 선뜻 리해가 안되는군요.》

기사장은 자기의 물음에 자기가 대답하는격이었다.

《토양분석이라는것은 토양의 성질을 고치고 그 성질에 맞게.곡식을 심고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분석 그자체를 위해서 필요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은 해놓는다치고 무슨 재간으로 이 봄에 그걸 다 개량하겠습니까. 석회공장은 70 리밖에 있고 수송기재는 딸리고...》

이렇게면 기사장은 승일이를 《설복》하려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승일은 그 말속에 깔린 기사장의 자기 불만을 추리해보며 어처구니없어 웃고만있었다.

그러나 기사장은 승일이가 그러느라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듯 속을 털어놓았다.

《저도 처음에는 토양분석의 가치를 알고 토양을 개량하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

물론 땅을 분석하고 개량하며 농장의 기술적문제만 책임지는것이 기사장의 임무라면 저도 남이 하는것만치는 일을 하였을겁니다. 그런데 이 농장의 기사장은 약국에 감초처럼 끼우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일체 기술적인 문제는 쳐놓고서라도 영농계획을 짜야지, 종자확보정형을 알아보아야지지어 퇴비운반에 대한 노력조직까지 다 안고 뛰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발걸이가 시작되고 ... 눈을 떠야 별을 보지요. 정말 숨이 가쁩니다.

저도 군대의 참모장격인 기사장이 그 일을 다

해야 한다는것만은 알고있습니다만 …》

기사장의 말은 경철이가 들어오는바람에 중단되었다.

경철은 첫눈에 방안의 공기가 순조롭지 않음을 느꼈다. 그러나 소조책임자가 무슨 기술지표라도 어긋나는것을 기사장에게 듣고있는것으로 생각한 경철은 자기 책상에 가앉아서 사업일지를 펴놓고 무엇인가를 적어넣기 시작하였다.

저르기 심각해진 승일은 경철이에게도 화제의 몫을 주려는듯 의자를 약간 돌려놓고 기사장에게 순순히 물었다.

《그러면 이 분석표는 어디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까?》

경철이는 자못 신경이 곤두서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강구었다.

기사장은 더는 모든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듯 피로운대로 이야기했다.

《책임자동무, 말이 났으니말이지 나는 책임자동무가 오자마자 토양분석을 다시 해보겠다고 할 때부터 마음이 편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일손이 딸리다나니 3 년전에 작성한 분석표를 많이 참고하면서 그 분석표를 작성했더랬습니다. 농사가 잘 안되는 포전들을 위주로 시료를 떠서 …》

경철이가 흠칫 놀라며 기사장의 말허리를 끊었다.

《여보 기사장동무, 그러면 농사가 잘되는 포전은 분석을 안했단말이요?》

하지만 기사장은 그런들 어찌겠느냐 하는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 포전들은 별로 성질이 변화된것 같지 않아서 그전날의 분석표를 옮겨놓았습니다.》

《한심하구만》

성난 경철이를 승일이가 손을 올려 제지시켰다.

승일이 보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철이에게도 결함이 없지 않을것이였다. 그런데 경철은 자기 책임을 못느끼고 도리어 기사장을 추궁하려 들었다.

승일은 어처구니 없었으나 책임을 다지려는것이 아니라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하느니만큼 참았다.

기사장은 경철이의 말에 여기가 질리는지 한동안 애꿎은 담배만 피우다가 말했다.

《그렇든 저렇든 저도 기술일군의 량심으로 잘 못하였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승일은 배반당한것 같은 기분이였다.

사실상 그는 토양분석을 다시 할 때에도 기사

장이 해놓은 분석표만은 의심하지 않았었다. 다만 땅의 지력을 제논으로 확정해보고싶어서 다시 했을뿐이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정말 승일은 이런 결과를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승일은 안타가왔다. 토양분석을 통하여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의 머릿속을 들여다본것 같아서 안타가움이 더 컸다.

승일은 자기가 이고장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되자면 이런 문제들은 기사장이 자기를 믿고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되지 않았는가. 행정적인 지도 사업이나 어떤 검열을 내려온듯한 인상을 주지 않았는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파견하시면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오랜 일군들을 잘 도와주라고 가르치시였는데 나는 지금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있지 않는가.

저르기 마음이 무거워진 승일은 힘주어 말했다.

《어째서 기사장도우는 농장의 모든 일을 혼자서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일이 제기될수록 관리일군들과 기술지도원들에게 파업을 주고 그들이 다 움직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주고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총화하고 잘 집행하지 못하는 동무들은 도와주어 어떻게 하나 말은 분공을 제손으로 수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사업에서도 전진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렇게만 하였다면 지금처럼 분주히 뛰어다니지 않고서도 일은 잘되었을것이며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도 없어졌을것입니다.》

기사장은 담배연기속에 한숨을 섞어 내보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현실은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은 뻔한데도 도저히 그대로 하기가 힘에 겨웠습니다. 아래일군들에게 시키자면 갑갑해서 어디 견딜수 있어야지요. 신경질만 나고 차라리 제가 하는편이 빠르니 … 자꾸만 그렇게 되더군요.》

《그것은 자기가 데리고있는 일군들을 믿지 않는 표현입니다. 기사장동무가 그렇게 믿어주질 않는데 그들이 기사장이 준 분공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기사장은 말문이 막혀 입을 다물어버렸다. 듣고보니 옳았다.

승일은 경철이에게도 일깨워주고싶은것이 있었다. 하지만 기사장이 있는데서 관리위원장에 대

한 말은 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사람을 향하여 산성화된 땅의 성질을 알게 된이상 인제는 빨리 땅을 개량해야겠다고 말했을뿐이었다.

경찰은 승일이가 말하는 사이 줄곧 송곳방석에 앉은것만 같은 심정이었다. 기사장의 사업에 그런 결함이 있다는것은 곧 자기에게 결함이 있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편안치 못한 경찰이의 심중을 읽은 승일은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두사람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땅을 개량할수 있을까요?》

승일이의 눈길이 자기에게 미치자 경찰은 《글쎄요 ...》하고 애매한 대답을 했다.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미처 대책을 세워보지 못한 경찰이었다.

기사장은 머리를 떨구고앉아 승일이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럼 모두 꼼꼼히 대책을 세워보고 저녁에 다시 모여앉아 의논해봅시다.》

승일은 두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관리위원회를 나섰다. 그들 두 관리일꾼들이 스스로 자기량심을 들여다보게 하고싶었던것이다,

새로 분석된 자료대로면 석회는 상당한 량이 요구된다. 그 많은 량의 석회를 발갈이가 박두한 지금 실어온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발갈이전 정비작업과 퇴비운반때문에 트랙포트를 뒤흔을수 없는 사정이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것인가.

관리위원회를 나선 승일은 이렇게 생각하며 농장원들이 두엄을 내고있는 포전으로 걸음을 옮겼다. 농장원들과 일을 같이 하면서 의논해볼 작정이었다.지붕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수리분조옆을 지나갈 때였다. 대장간안에서는 떠영 떠영하는 메질소리에 반주나 하듯이 《그렇지 ...뒤손을 낮추고 ...한개만 더 ...》하고 섬기는 수리분조 좌상아바이의 목소리가 흥겹게 들려왔다.

승일은 무심히 그리로 발길을돌렸다, 자기가 걸어오며 생각하던 문제와 무슨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농사차비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수리분조의 대장간이 승일이의 호기심을 끌었다. 도시에서 자란 승일에게는 농촌지원을 나갔을 때 농쟁기자루가 마사져서 들고가본것이 수리분조들에 있는 대장간에 대한 상식의 전부였다.

《수고들하십니다.》

승일이가 이렇게 인사를 앞세우면서 대장간문턱을 넘어서자 모루우에 시뻘겑게 단 쇠불이를 올려 놓고 메질끈을 추슬러올리던 아바이가 일손을 멈추고 반색을 했다.

《이거 책임자동무가 어떻게 여길 다? ...어서

오시우.》

《지나다가 <뒤손을 낮추고...한개만 더...> 하시던 소리에 구미가 당겨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흥겹게들 일하십니다.!》

《 허, 내가 그랬던가 ...가부간 좀 앉으시우.》

아바이는 노루가죽을 댄 다리가 짧은 의자를 승일이의 옆에 들여다놓으며 담배까지 권했다.

승일은 의자도 담배도 다 사양하고 땀을 툇툇떨구는-청년이 들고 선 메를 잡았다.

《내가 좀 메질을 해보지요.》

그러자 화독안에서 집게로 숯불을 집어다 담배불을 붙인 아바이가 손을 내저었다.

《못하우다. 그게 보기에는 쉽지만. 손에 익지않구서는...》

《로인님, 이렇게 손에 익은 일만 하겠습니까. 해보다나면 손에 오르겠지요.》

승일이가 두손으로 거머쥔 메를 그냥 어깨우에 올리자 그제야 아바이는 그럼 어디 한번 때려보라는듯 화독안에서 시뻘겑게 단 호미를 집어다 모루우에 놓았다.

승일은 메를 휘둘러 벼락같이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메질소리가 제법 되알지다.

쇠가 거멸게 죽기전에 두드리려니 조련치 않았다. 그의 판자노리에는 오래지 않아 땀발이 짝 일 어섰다.

아바이가 식은 쇠불이와 단 쇠불이를 갈아대면서

《부친두 이런 일을 좀 하신게 아니우?》 승일이라도 어지간히 상쾌해져서 시물시물 웃었다.

《메맛이 땀뻘 모양이로군요?》

《암 땀자다마다! 땀동이나 먹은 메질이외다.》

그런뒤 승일은 쟁기자루도 꺾고 숯돌에 도끼를 갈아보기도 하면서 농쟁기수리실태를 료해해보다가 구석에 무쳐둔 돌맹이에 눈길이 미쳤다. 쇠불이와 숯과 쟁기자루만 있어야 할 이 대장간에 막돌이 쌓여있는것이 그의 눈에는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저 돌맹이는 어디에 쓰는것입니까?》

승일이의 물음에

《그것말이유?》 하고 로인은 심드렁하게 말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봄철위생사업이 벌어지겠기에 내가 좀...》

《위생사업에 저 돌맹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화독아다 구워대면 일등석회가 된다우. 내 그 회가루칠을 할때마다 관리위원장에게 손을 내밀기가 구차스러워서 ...》

승일은 로인의 말도 채 듣지 않고 움쭉 일어나서 돌멩이 하나를 넝름 집어들고왔다. 석회석이였다.

《이 돌멩이를 어디서 주어오셨습니까?》

로인은 익살궂게 어깨를 으쓱했다.

《허, 아 대장간 돌쩌귀가 아주머니들 성화에 불이 나는걸보려구 그러시우?》

로인은 이렇게 우스개를 던지고나서 회암산의 절벽에 이런 돌이 무진장하다고 했다.

《그렇습니까. 로인님, 이걸로 석회를 구워낼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은 바싹 다가앉아서 토양분 석실태와 농장이 처한 형편을 로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로인은 승일이를 멍하니 쳐다보더니 머리를 끄덕이면서 생각에 잠겼다. 로인의 생각은 구경도 못한 석회로를 세울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새로 온 3 대혁명소조책임자가 아직 서론도 되어보이지 않는데 사리가 밝고 불임성이 좋으며 농장의 큰일을 안고 설계를 하는 잡도리부터가 무심히 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메질을 하는것만 보아도 좀 서툰감은 있으나 농사준비에 바쁜 수리분조의 기세를 돕기기 위하여 애쓰는것이 느껴졌다. 그리하여

로인은 무작정 로를 세우자고 대답했다. 이런 청년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못하랴싶었다.

《내 이고장에 태를 묻었다는 사람이 여태 그런 생각을 못했수다. 그저 저 돌을 구워서 체집 바람벽에나 바를줄 알았지 ...고맙수다 책임자동무!》

로인의 감동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었다.

승일은 로인과 함께 점심시간에 현지확정을 가기로 약속하고 대장간을 나섰다.

한낮때 회암덕으로 숨가쁘게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박경철이었다. 그는 오후 3 시째스로 군에 갈 작정이였다. 그런데 수리분조로인과 함께 회암산으로 갔다는 승일이가 내려오지 않아 기다리다 못해 찾아떠난것이였다. 시간은 급하지만 승일이를 만나보지 않고서는 떠날수 없었다.

경철은 지금 마음속에 재가 들어있을 지경이였다. 승일이가 하는 토양분석을 마다했던 미안한 생각과 잘못된 자기가 저질러놓고서도 이제와서는 땅개량문제를 남의 일처럼생각하는것 같은 기사장에 대한 섭섭한 생각, 게다가 땅을 개량 못한채 발각이에 들어갈것 같은 위구로 그의 마음은 그지없이 타들었다.

경철은 아침에 승일이가 나가자 곧 기사장을 불러앉히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었다.

《나는 동무를 믿었소. 그래서 소조책임자가 분석을 다시 하려 할 때에도 꺾꺾한 우리 기사장이

한건데 무얼 또 하려구 그러느냐고 마다했소. 그런데 결국은 어찌됐나말이요. 동무는 기술자의 량심을 저버렸소.》라고 꾸중을 들이댈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철은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지 않다는것을 느끼고있고 또 그런 시비질보다는 사태를빨리 수습하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기사장을 군에 갔다오라고 권유했다.

《군에는 무엇때문에요?》

기사장이 눈이 덩돌해져 되물었다.

《다문 몇차라도 석회를 해결해와야겠소. 공장하구 직접 사업을 해서라도말이요.》.

《지도서도 없이말입니까.》

《그래서 사업하라는것이 아니요.》

경철이자신도 그런 방법이 잘못된것인줄은 알지만 땅을 개량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이 결정적순간에 농장을 위해서 그러는것인데 절차를 좀 어긴다고 누가 시비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우겼다.

그러나 기사장은 소조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생각되는바가 많으면서 한사코 응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리하여 경철은 자기라도 나서야 한다고 결심하고 승일이를 찾아떠난것이였다. 승일이가 저녁에 모여앉자고 한것도 한것이지만 석회문제가 일단 제기된것만큼 승일이의 동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할수 없어서였다..

경철이가 덕에 오른것과 때를 같이하여 절벽쪽에서 수리분조로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경철은 숨돌릴 사이도 없이 잠판목을 헤치며 그리로 다가갔다.

《저런!》

경철은 은연중 깜짝 놀라며 허아래소리를 질렀다. 절벽중턱에 웬 사람이 붙어선것이였다. 작업복색갈로 보아 승일이임을 대뜸 알수 있었다. 끔찍스러웠다.

(아니, 저 사람이 저기에는 왜 올라갔어?저러다가 실수나 하면 어찌려구 ...)

손에 마치를 쥔 승일은 벼랑을 안고 옆으로 가까스로 뚫어나가고있었다. 그밑은 너댓길 되는 낭떠러지, 아슬아슬한 순간이다.

바로 경철이의 눈앞에 있는 오미자덤불뒤에서 아바이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으로는 나가질 마오. 돌아설데가 없소》

경철이 로인의 옆에 다가서며 물었다.

《아바이, 저 벼랑에 무엇이 있기에 이럽니까?》

로인이 흠칫 돌아보더니 손을 내저었다.

《이사람, 저기 좀 나서게, 말을 시키지 말구, 말소리에 저 사람이 정신을 팔면 재미가 없네 벼

랑끝에 서있질 않나.》

경찰은 한걸음 비켜서는수밖에 없었다.

승일은 마지로 절벽을 까서는 까낸 자리와 떨어져나온 돌맹이에 백묵으로 무엇이가를 써서 그 돌맹이를 내리던지군한다. 그러면 로인은 부리나케 그걸 주어다 자루속에 넣는다. 언젠가 경찰이의 의심을 품었던 그 자루속에는 벌써 수자가 씌여진 돌맹 이들이 수두룩하다.

말을 시키지 말라고 손을 내젓던 로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의미있게 경찰을 돌아보았다.

《관리위원장, 우리 농장에 온 소조책임자가 어떤 궁냥을 했는지 아나?》

《예?》

경찰은 그 말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여 어리둥절 했다.

로인은 관리위원장이 여태 그런것도 모르느라고 힐책하는듯한 눈길로 경찰이를 힐끔 건너다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글썽 이 돌을 구워서 땅을 개량하겠다질 않나. 작업반마다 자그마하게 석회로를 하나씩 세워가지구서, 얼마나 기특한 생각인가! 자넨 이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나? 석회발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예?! 석회로를 세우자구요?》

순간 경찰은 산악을 안은것처럼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서 코마루가 찡해졌다. 기쁨에서만이 아니었다. 이 훌륭한 생각을 왜 주인인 자기는 여태 하지 못했던가 하는 자책감에서였다. 그럴수록 승일의 일군됨됨이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기사장에 대하여 꾸짖음이 아니라 고칠수 있도록 타일러주던 일이며 남 다 쉬는 날에도 시료배양을 메고 눈길을 헤치던 일, 그리고 산성화된 땅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저렇게 아슬아슬한 절벽에 올라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석회암의 질을 확정해보고있지 않는가.

물론 경찰이자신도 이 절벽이 석회암으로 형성되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희암덕물길 공사때 쓴맛을 본 그에게는 자체의 힘으로 능히 할수 있는 문제도 그 무슨 실정을 운운하면서 국가자재와 국가의 힘만을 바라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기에 순습계 구워서 쓸수 있는 석회문제도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것이다.

《여보게 관리위원장, 뭘 그리고 썼나? 이걸 좀 벌려주게.》

경찰은 로인이 큼직한 돌맹이를 안고와서 청했을 때에야 정신이 들었다. 그는 황급히 자루아가

리를 벌려주고 사뭇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두서없이 말했다.

《아바이, 정말 이제 석회걱정을 모르게 됐수다. 이것만 구워쓰면…나는 그래도 군에 가서 좀 해결해보려고 가는참이었는데.》

그 말에 로인은 싱긋이 웃었다.

《관리위원장 내 한마디 하려네, 자네 나같은것 두 허술히 보지 말구 더러 좀 의논을 해가면서 일하게나. 저 소조책임자를 보게, 대장간에 와서 땀을 흘리며 한참 메질을 하더니 나에게서 이런 좋은 생각을 뽑아내지 않았나. 이게 부질없는 소리 같네만 들어두면 꿀처럼 몸에 좋을거네.》

그러더니 로인은 자루아가리를 여며놓으면서 그냥 중얼거렸다.

《사람이야 어른이지, 늙은이들을 알아보구. 자그마한 일이라두 토론을 하구. 그러니 랑패가 없을수밖에.》

얼굴이 수수떡빛이 된 경찰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수 있으랴. 로인은 진실을 말하고있는데.

X X

두사람이 언덕을 내리고있었다. 석회로를 세울 자리까지 돌아보고 내려오는 승일이와 경찰이었다. 그들은 래일부터 로건설을 착수할 결심이었던것이다.

박경찰은 석회석이 든 자루를 등에 지었고 전승일은 곡괭이를 어깨에 메었다.

경찰은 승일의 발자국을 따라짚으며 침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책임자동무, 이 하루동안 나는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는구만.》

《…》

《관리위원장의 립장과 자세에 대하여, 그리고 풍년별로 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것도 이제야 비로소 절실히 깨달았수다.》

승일은 뒤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렇습니다. 관리위원장동지, 일군들이 관점을 바로가지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사란 석회나 기계나 좋은 종자만 있어가지고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바로 기계를 다루고 땅을 가꾸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풍년열쇠가 있는것입니다.》

승일이의 그 말은 열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경찰의 가슴에 차분히 안겨들었다.

겨우내 못밭길에 다져져 콩크리트바닥처럼 굳던 눈길도 훈훈한 봄기운에 녹아서 두사람의 한즐기의 발자국을 뚜렷하게 새겨놓았다. 그것은 풍년별로 가는길에 새겨진 그들의 첫발자국이였다.

미더운 사람

황승명

지평선 저멀리

초생달이 떠오르는 저녁

오리나무 둔덕 강냉이밭에서

그는 떠날줄 모른다

농장마을사람들

하루일 끝내고 불밝은 집에 들었건만

이 늦저녁도 작업반장과 함께

밭이랑 하나하나를 돌보는

우리의 3대혁명소조원

해종일 논밭에서 일하고도

아직도 그와

못다나눈 이야기,

다하지 못한 일이 있어-

길옆의 빈포기 하나를 두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본분을 다하자고

조용히 울리는

그 목소리 뜨겁구나

두툼한 배낭을 메고

이 마을에 처음 들어서던 그날에는

낮설던 고장

관리위원회사무실도 몰라

길을 묻더니

이제는 이고장의 래력도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3대혁명의 큰뜻을 심어주며

일깨워주는 그 마디마디

농사라면야 이 마을에서 스무해

군에서도 소문난 작업반장

그를 따를 사람 없건만

소조원의 그 마음엔

언제나 머리 숙여져-

별판에 나서도

마을에 들어서도

수령님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라고

온 농장 사람들이 믿고 따르며

얼마나 생활이 흥겨운것인가

찾아오는이들도 많아라

부모앞에 말못할 사연도 터놓고싶어

허물없이 만나려 오는 젊은 친구들

모대기던 기술창안의 새 도면을 안고

제집처럼 찾아드는 사람들

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빈자리가 있을세라

제일처럼 풀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논밭에도 한포기의 빈곳이 있을세라

때로 먼 출장길에서 오는 한밤에도

버릇처럼 논밭을 돌아보는 우리의 소조원

미덥다, 3대혁명의 전위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드리는 길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어

들판을 가꾸며

충성의 풍년날알로 가득채워라,

청춘들이 가꾸는 땅

김희중

이슬맺힌 푸른 담배모에 해빛내리자
피여오르나니 실안개인가 무지개인가
청년분조 동갑내기들아
우리 숨결로 자란 모를 어서 심자

어려서는 민들레꽃을 함께 꺾으며
동무들과 첫우정을 나누었더니
다 자란 이날에는 우리
조국의 큰 행복을 가꾸는구나
심어가는 포기포기들은
옮겨가는 이랑이랑들은
우기의 한마음을 적어가는 글줄갈구나

이 이랑 이랑들이
푸르게 설레이며
담배풍년의 첫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지면
아버이수령님 얼마나 기뻐하시랴
심어가는 포기마다 생각도 깊어져라

사람마다 수령님을 만나뵙고싶은 소원
단발머리 이른 나이에 이룩한
세상에 더없이 축복받은 세대들
아, 청년분조
아버이수령님 무어주시며 불러주신
이 믿음 높은 이름속에는
우리 청춘세대들의.
얼마나 빛나는 삶과
끝없는 행복의 지평선이 비껴있는것인가.

때아닌 눈서리 푸른 이랑을 휩쓸면,
청춘의 뜨거운 열정으로 녹여주리
가물의 불바람 몰아오면.
정춘의 가슴이 분수비로 식혀주리
아, 우리가 가꾸는 푸른 들은
이 땅우에 새날이 밝아올 때
우리 수령님 한없이 기쁘시여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대지의 새아침이다
젊어지는 농장의 새 모습이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서진명

해별에 얼굴이 탄
수수한 농민갈아라
옷섶에 기름내 배인
보통 노동자 갈아라
우리 일터,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 사는 사람들

누가 보든 말든
기나긴 세월을 하루와 같이
탐구의 길을 걷고걸은,
충성으로 불타는 심장의 뜨거움으로
온 나라에 기술혁명의 선풍을 더 크게 일으킨
숨은 영웅들!

령롱한 이슬방울에
해빛이 어리듯,
티없이 깨끗한 마음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릴
단 하나의 생각

노을피는 아침
꿈같은 행복에 잠겨
안아키운 종자를 쏘아보던 연구사
기쁨이 눈물로 맺히던 그 눈동자는
어찌하여 저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며
심장을 불태웠던가!

주체조국의 위용펼칠 비약의 나래
조국을 떠밀어가는 기술혁명에
한몸 선뜻 내대인 빛나는 그 모범
수령님과 당을 따르는 전사의 삶이
어떻게 꽃피어나야 하는가를
생활의 매 순간 일깨워주었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락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한걸음 또 한걸음
해와 달을 앞질러 만난을 헤친
진함없는 열정을 지녔기에
크지 않은 가슴으로
우리 마음 더웁혀준 숨은 영웅들!

꿈을 안고
못다한 일을 안고
포전과 기대머리를 떠날줄 모르던
그 열정은 우리의 열정!
그 념원은 우리의 념원!

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있어
발걸음도 하나같이
하나같이 심장은 뚫어올라라!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한초소
영광의 그 한길우에...

농장숙소의 창가를 바라보며

허수산

하나 둘
마을의 창문들이
밝은 불을 켜고
온 마을이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행복한 이 저녁
밝은 불빛 흘러넘쳐야 할
그대의 창문만은
아직도 불이 켜지지 않았구나

어디에 있느냐 창문의 주인이며
그대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로
온 마을이 밤마다 잠들줄 모르고
온 나라가 밤깊도록 불을 끄지 못하는데
그대는 이 저녁도
찬이슬 내리는 포전머리에 있느냐

그대는 이제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받아안았건만
그대는 따뜻한 아래목을 비우고
이 밤도 들길에서 보내려느냐

오 그랬더라 그랬더라
농장벌에서 사는 처녀연구사여
마을에 온 그날부터
그대는 10 여년을 하루같이
언제 한번 저 불밝은 창문가에
조용히 앉아보지 않았구나

온 마을이 정성모아 꾸려준
숙소의 따뜻한 아래목대신
찬비 찬눈 내리는 들판에서
청춘도 사랑도 다 바쳐온 그대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길우에
언제나 흐르는 세월이 안타까왔거니

명절처럼 흥성이는
수도의 거리를 멀리 떠나
때로는 별빛 새여드는 초막에서
때로는 이슬젖은 발이랑우에서
사랑하는 땅을 그리안고
지새운 밤은 그 얼마더냐

그대는 참으로 살줄 알았구나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것이 무엇인지
수천마디 말보다
온몸으로 가르치였구나
땅과 함께
땅처럼 묵묵히

어제날에는 그 누구도 다 몰랐어라
사시절 비여있는 땅의 사연을
그대와 함께 한들길을 걸으며
그대와 함께 한발이랑을 타면서도
그대가 품고 사는
그 뜻을 다는 몰랐어라

어제날에는 무심히 지나쳤건만
오늘은 후더운 눈길들이 바라보는 창문가
한생을 땅에 살면서도
그대처럼 살지 못한 자신들을 꾸짖으며
그대처럼 살 뜨거운 마음 다지며

아, 오늘은 온 마을 온 조국이
그대 다시 들에 사는 사연을 안다
숙소에 밝은 불은 켜지지 않았어도
그대 가슴에 타오른 불길은
진정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다는것이 무엇인지
이 가슴에 뜨겁게 심어주고있구나

병사의 가정

리동구

물안개가 얇게 떠도는 대지에 봄비가 실실이 내린다.

그 비발속으로 군용렬차가 차바퀴소리를 요란히 내며 질풍같이 달린다.

비물에 번들거리는무개화차들의 방수포밑에는 군수물자들이 실렸다.

긴 렬차의 뒤끝에 달린 유개차에는 보병중대가 타고있었다.

병사들은 차칸문을 활짝 열어놓고 흘러가는 산천을 다감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열려진 창문으로 휘뿌려드는 비발이 그들의 군복을 싸늘하게 적셨다.

얼굴에도 비물이 흘렀다.

하지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문쪽에 바투 나서려고 하였다.

밤에만 달리다가 다행히 적들의 비행기가 나뿔수 없는 이런 날씨를 만나 대낮에 렬차행군을 하는 병사들의 가슴은 느닷없이 설레었다.

흘러가는 도시와 마을, 전야와 산천을 바라보는것이 무등 즐거웠다.

간혹 학교로 가던아이들이나 밭에서 일손을 다그치던 녀인들이 손저어줄때면 군인들도문밖으로 손을 내밀어 열정적으로 흔들었다.

차칸 어느 구석에서 노래가 시작되면 곧 온차칸에 노래소리가 가득찬다.

노래소리는 철길을 따라 흘러가며 비발속으로 은은히 찾아들었다.

.....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전사들의 복판에서 가장 절절한 심정으로 선물을 뽑아 넘기는 사람은 중대장 최은석이다.

술진눈섭밑에서 빛나는 그의 눈과 거뭇한 얼굴에는 전에 없이 다감한 빛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노래의 결구를 더욱 열렬한 감정으로 부르려고 가득이나 설렁한 목을 길게 뽑았다.

차창밖 멀리에서 점점 다가오는 산천풍경은 최은석에게는 너무도 낯익은 모습이었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한시도 떠나본적이 없는 고향이었다.

저멀리로 하늘을 떠받들고 서있는 선녀봉이 보인다.

거기서 흘러내린 나지막 한 룡선(그 룡선을 가로질러 차굴이 지나갔으므로 차굴이라고 했다.)에

는 산비둘기가 얼마나 많았던가.

입술이 새까매지도록 머루랑 다래랑 따먹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얼핏 떠오르기도 한다.

달리는 기차는 또다시 산천어가 많은 열과강을 따라 떠처럼 오불고불 끝없이 뻗어간 길을 펼쳐 보였다.

바로 저길로 아침이슬을 차고 도민청회의에 가던 일이며 문맹퇴치를 위해 울퉁불퉁한 달구지길에 발길을 채이며 걷던 그밤길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저 길을 따라 산굽이를 돌고 열과강철교를 건너면 차굴덕에서 얼마멀지 않은 고향마을이 나질 것이다.

끝없이 밀려오는 다감한 추억속에 묻혀 한껏 흥분되었던 최은석은 문득 차칸벽의 어두운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병사를 발견하자 낮빛이 굳어져버렸다.

나이가 지숙한 그 병사로 말하면 한달전에 입대를 한 신입병사였다.

서로 체온을 나누며 잠들고 한가마밥을 먹으며 생활하는 중대에서는 병사들이 서로 만나자바람으로 뜨거운 우정속에 살뜰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그 신입병사는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다.

지금처럼 외롭게 앉아 침중한 생각에 잠기기가 일쑤였다.

그에 대하여 별로 아는것이 없었던 대원들은 그가 거울진 외양과는 달리 성욱이라는 녀성적인 이름을 가졌기때문에 콩하다느니 자존심이 강하다느니 하고 제 나름의 불만스러운 뒤소리들을 하였다.

사상뿐만아니라 감정과 정서까지도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야 하는것이 중대의 생활이다.

그래서 은석이는 성욱이와 조용히 마주앉아 몸이 불편하지나 않는지 또 다른 사연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어 은근히 묻곤했다.

성욱은 무거운 표정을 짓고 한 숨을 내쉴뿐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밤 은석은 성욱의 가슴속에 서려 있는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다.

중대가 잠들었을 때 은석은 직일등을 마주하고 앉아 《사랑하는 안해에게》라고 서두를 떼 편지를 쓰고있었다.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던 그는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한달에 한번씩은 꼭 꼭 안해한테 소식을 전하곤하였다.

다른 중대장들은 기동수에게 슬며시 편지를 찢어주는 그를 볼 때마다 《애처가가 다르긴 달라.》 하고 유쾌한 톤담을 던지었다.

안해를 끔찍이 사랑하는것이 결코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고보면 그 별명이 그다 나쁠것도 없지만 은석은 여간만 거북해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원들의 귀에까지 미칠가봐 무척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오래전부터 그의 편지는 이처럼 남모르는 깊은 밤에 씌여지곤하였다.

《여보, 태남이랑 다 무고하오?》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첫줄을 썼다.

그랬을 때 얼굴이 동그스름한 안해와 눈알이 까만 아들애의 얼굴이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고 해방후 단란하게 꽃피던 신혼생활의 추억이 차분히 가슴에 젖어들었다.

그는 첫사랑에 불타던 총각시절에 편애편지를 쓸 때처럼 가슴 울렁이며 잠시 멈추었던 펜을 고누어잡았다.

《우리는 며칠후에 전선으로 가는길에 차굴덕을 지나게 될것 같소. 기차로 야간행군을 하는만큼》

이렇게 써나가던 최은석은 별안간 들려오는 긴 한숨소리에 펜을 멈추었다.

은석의 입가에 피어나던 애뜻한 미소는 사라져 버렸다.

방금 들린 한숨소리가 그의 열렬한 감정을 일순간에 날려버릴만큼 절통하게 울렸던것이다.

은석은 나란히 누운대원들의 얼굴들을 굽어보았다. 림시로 숙영하는 병실 한쪽구석에서 성옥이가 모로 돌아누웠다.

은석은 어떤 예감에 이끌리어 그한테로 다가갔다. 자기 생각에 골몰했던 병사는 곁에 사람이 가도 모르고있었다. 등불에 비친 성옥의 너부죽한 옆얼굴은 침통한 빛이 어려있었다. 머리맡에 놓여진 작은 수첩갈피에는 반쯤 가려진 한장의 사진이 끼여있었다. 대여섯살잡이 아들애를 안고 찍은 행복스런 녀인의 모습이였다.

《가족이요?》

사진을 빼들며 은석이 조심스럽게 물어서야 성옥은 피곤킨듯 돌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앉았다.

《.....》

《애가 귀엽구만, 몇살이요?》

《여섯살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애도 안해도 다 없지요...》

《그렇구만!》

은석은 측은한 눈길로 그를 이윽히 지켜보다 그옆에 엉치를 붙이고 앉았다,

《말해보오. 언제 그렇게 되었소?》

《...입대하기 한달전이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군수공장에서는 기능공이라고 저를 군대에 못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을 당

한 저는 제손으로 원쑤를 갚기전에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뿌리치고 총을 잡았습니다.》

은석은 대원의 슬픔과 복수심이 그대로 제가슴에 옮겨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연연한 동경과 편민은 병사의 비분을 강조해주는것밖에 안될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말마디에 힘은 주어 따지듯이 물었다.

《그런데 왜 진작 그런 사연을 말하지 않았소?》

새로 만난 동무들에게 무슨 좋은말이라고 퍼트리겠습니까?》

《아무리 가슴아픈 일이라도 동무가 형제들과는 슬픔을 함께 나누었을거요.》

《슬픔을 함께 나눌 발은 혈육이라도 있었으면 제마음이 지금처럼 괴롭지는 않을것입니다.》

《병사에겐 가까운 사람들이 많소! 혈육보다 가까운 사람들이말이요!》

은석은 나지막하나 지력있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군복주머니를 뒤져서 담배갑을 찾았다.

제먼저 한대 불이고는 성옥에게 권하였다.

성옥은 눈섭을 지켜올리며 피곳 중대장의 표정을 살피고 서슴없이 담배를 붙여물었다.

마음이 피로왔던 그는 담배생각이 간절하였던것이다.

마주앉은 두사람의 입에서 내불린 담배연기는 곡선을 그리며 한줄기로 엉키더니 병실안의 공기속에 녹아내렸다.

은석은 잠시 끊었던 말끝을 이었다.

《동무는 전우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줄 알아야 하오. 마음을 꼭 가라앉히구 중대생활에 습관되어야겠소. 기름방울은 물에 뜨기마련이요. 알겠소?》

《저에게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듣는 사람의 가슴이 저릴만큼 뼈에 사무친것이다.

은석은 더 말이 없었다.

그 어떤 말로도 사납게 혈관속을 사뭇치는 성옥의 격한 피를 진정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성옥은 아무래도 잠들수 없었던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기관총을 잡고 탄알을 닦아 탄띠에 채우기 시작했다. 비분과 증오를 그대로 채우듯이 ...

그러한 성옥이에게 가슴에 혼장을 달고 그리운 부모처자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중대의 합창은 심한 자극을 주었다.

경련도 아니고 미소도 아닌것이 그의 얼굴에

비졌다.

자기에게는 전승의 그날에 고향에 돌아가도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할 부모처자가 없다는 생각이 가슴저리도록 파고드는 것이었다.

가정을 잃은 사람이 남들이 느끼는 가정적인 기쁨을 볼 때 자신의 외롭고 불행한 처지를 저도 모르게 되새기는 것은 피할길 없는 감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보면 성옥의 처지를 미처 생각지 않고 부모처자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 은석에게는 마음이 걸리었다.

중대의 말형인 중대장 자기에게는 개인의 감정만을 앞세울 권리가 없었다.

지휘관으로서 누구만 못지않게 대원들을 사랑한다고 자부해오던 은석은 이 순간에 비로소 자기를 돌이켜보았다.

그는 신이 나서 노래의 다음 절을 부르기 시작하는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노래 그만!》

후회의 감정때문에 돌발적으로 울린 그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숙하였다.

목청을 뽑던 대원들은 노래를 그치고 멍하니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지휘관의 표정과 구령의 어음에서 그의 내심의 변화와 조성되는 정황의 긴박성 정도까지를 예민하게 감각할 줄 아는 구대원들은 딱히 찍어서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 없어도 성옥이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전히 차벽에 기대어 부릅뜬 눈으로 한곳을 응시하며 침중하게 앉아있는 성옥을 의문스레 혹은 불만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성옥이 자신은 그 모든 것에 아랑곳없이 이곳에 서려드는 원한과 비분에 휩싸여있었다.

노래가 그치고 침묵이 서린 차칸안에 달그락달그락 레루의 이음새를 넘는 렬차바퀴의 가락맞는 음향이 높게 울리었다. 렬차는 별관을 지나 계곡해진 산밭들이 련줄련줄 지나간다. 그러나 은석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잊지 못할 고향산천의 모습이었다. 얼마를 더 가면 고향마음이 보이는 나지막한 차굴덕이 나지리란 생각으로 은석은 벌써부터 가슴이 울렁거렸다.

자오록이 내리던 비발이 점차 성기여지더니 하늘은 어느사이 씻은듯이 맑아졌다. 뒤설레이며 흩어지는 구름장사이로 군데군데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기적을 길게 울리며 맹렬히 달리던 렬차는 기차굴속에 이르자 멈추어섰다.

날이 개였으니 놈들의 비행기가 나뎠을 수 있기 때문였다.

중대는 렬차에서 내렸다. 어차피 날이 어두워

렬차가 다시 떠날 때까지는 휴식을 하기 마련이다.

비가 개인 뒤에 쏟아지는 해발은 유난히 찬연하고 따뜻하였다. 허파에 스미는 공기는 천만시름도 일순간에 잊으리만큼 상쾌하면서 군복에 오른 먼지와 탄재조차 그 신선한 대기속에 털어 버리기 서슴어졌다.

한창 물이 오르는 왜짜리가 한벌 덮인 철쭉에 병사들은 굳어진 습관처럼 중대장을 중심으로 모여서서 해빛과 공기를 즐겼다. 성옥이조차 두팔을 쫓히며 허파가 열리도록 탐스럽게 대기를 마셨다.

은석은 다감한 눈빛으로 멀지 않은 산기슭의 마을쪽을 줄곧 바라보았다.

병사들의 눈길도 그 마을로 향해졌다.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계절만은 숨길 수 없었던 지 마을북편에 서있는 버드나무가지에는 봄빛이 푸르렀다.

그우에로 칠색찬연한 무지개가 곱게 비끼었다.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중대장동지, 마을에 들러 식사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특무장의 말이었다.

《식사를 한다?!...》

《가까운데 뭐랍니다. 마을도 마음에 들구...》

《마음에 드오?》

《예.》

《그럼 좋소.》

은석은 빙그레 웃으며 승낙하였다.

《어서 내려들 가보오 그러나 마을인심이 그렇게 후할것 같진 않소. 허허허.》

《그런가야 중대장동지보다 특무장인 제가 더 잘 알지요. 녀려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한번 인심박한 마을에 들러본적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소.》

《그런데 중대장동진 안내려가겠습니까?》

《먼저 내려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은석의 표정에는 서서히 미소가 가셔지면서 그 어떤 알 수 없는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마을녀인들의 환대속에 이야기를 나누며 고향에 두고온 생활과 인정을 느끼는 것은 군인들의 류다른 즐거움이다. 서둘러 쌀주머니와 소금에 절인고등어들을 찾아든 대원들은 저마끔 어서 내려가자고 중대장의 손을 이끌었다. 성옥이까지도 휴식의 한때를 함께 보내자고 인사말을 건넸었다. 그랬을 때 은석은 형언할 수 없이 절박한 표정으로 차칸을 비워놓고 중대가 모두 마을로 내려갈수야 있느냐고 하면서 가볍게 성옥의 등을 밀어주었다. 하는수없이 대원들은 중대장을 남겨두고 마을로 향했다. 철쭉에서 마을로 뻗은 오솔길은 물매가 급하고 비물에 씻겨 미끄러웠다. 조심스레 저거디디다가는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웠다. 전사들은 두팔을 벌

려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나는듯이 내려달렸다. 어쩌면 언덕길자체가 마을로 가는 병사들의 걸음을 재촉하는듯싶었다. 남겨둔 중대장을 돌아볼새 없이 마을에 이른 중대는 몇명씩 패를 무어 집들을 찾았다.

성옥이와 다른 세명의 병사가 찾아간 집은 유감스럽게 비어있었다. 돌아서서 삼작을 나서려는데 담장을 에돌아 달려오던 녀인이 앞을 막아섰다. 녀인은 가쁜숨을 몰아쉬며 머리수건을 벗어 이마와 코등에 쌀알같이 돋은 땀발을 씻었다.

《굴세 군대동무들이 언덕을 내리는걸 보고 급히오느라는게 하마트면 돌려보낼뻔했군요. 어서들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침부터 들일을 나갔었는지 비에 젖은 허드레 옷을 입었지만 어쭙게 옷은 동그스름한 얼굴과 그윽하면서도 어딘가 진실한 감정이 느껴지는 독특한 눈빛은 젊은 녀인의 아름다움을 숨길수 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오흘한 코날과 콧이 좁은 입술은 굳센 기풍을 간직하고있었다.

군인들은 일터에서 일부러 달려온 녀인의 행동에 감동되어서 성옥이조차 자기의 기분이 밝게 개여 오르는것을 의식했다.

《바쁘실텐데 패를 끼쳐서 안되었습시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들 집으로 들어가세요.》

녀인은 병사들이 주는 쌀주머니와 고등어를 반아들고 친절히 안내했다.

이때 너덧살가량의 사내애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군대들을 빠끔히 치며보았다.

성옥은 어린애의 다부룩한 머리에 손을 얹고 아이의 얼굴을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애는 자기의 아들애를 너무도 방불케 했던것이다. 그의 아들애도 이 아이처럼 그렇게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바다가의 해풍에 타서 피부색이 가무스름한게 다를뿐이다. 그는 자기 아들애를 만난듯한 환각에 사로잡혀 허리를 굽히고 아이를 덥석 안았다.

다른 병사들은 녀인을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성옥은 어린애의 따뜻한 체온을 즐기며 그냥 마당에 서있었다.

어린애는 눈을 까박거리며 연신 질문을 하였다.

미국놈을 뗏놈이나 죽였는가? 가슴에 왜 훈장이 없는가?...

신입병사인 성옥이로서는 대답하기가 난감한 질문들이었으나 그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어린애의 끝없는 호기심을 받아주었다.

하고는 번쩍 머리우에 추켜들고 맴을 돌았다.

아이는 손뼉을 치며 캐들거리더니 마을복판에

틀지게 자리잡고 서있는 버드나무를 가리키었다.

《아저씨, 버들피리 만들어줘,》

《그래, 만들어주지》

성옥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버드나무밑으로 갔다.

손에 잡히는대로 한창 물이 오르는 가지를 칼로 잘라서 피리를 만들었다. 저 먼저 한번 불어보고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불우물이 움푹 패였던 랑불을 불록하게 내밀며 입바람을 부는대로 제법 맑은 피리소리가 울려나왔다.

성옥은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버드나무와 조금 사이드게 솟아나는 샘터(아마 무지개는 거기에 뿌리박았을것이다.)의 아래쪽에서 세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실오리같은 버들피리를 씻어내리며 남실남실 두덩을 넘쳐흐르는 샘물을 넘나란 손바닥에 떠서 얼굴을 씻으니 거뜬하게 정신이 맑아지는듯 하였다.

어린애는 연신 피리를 불어대는데 비록 선물이거나 가락은 없어도 청아한 그윽함은 노긋한 봄날의 대기속에 멀리까지 울려갔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훑치고 허리를 펴며 무심히 굴쭉을 바라보던 성옥은 그때까지 철쭉에 서있는 중대장을 보았다. 거리가 먼탓에 얼굴모습도 알아 볼수가 없었지만 줄곧 이쪽을 향해 서있는 걸 보면 마음에 내려오고싶은 유혹을 물리칠수가 없는 모양이다. 정말이지 체고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번 들려보고싶오리만큼 오붓한 농촌마을이다. 후방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으나 군복을 입고 긴장한 전투훈련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마을에 들리니 류다른 정회가 느껴졌다. 물론 성옥이로서는 그것이 총잡은 병사만이 가질수 있는 조국의 모든것에 대한 예민한 사랑의 감정이라는것을 아직은 알수없었다. 아무튼 성옥은 실로 오래간만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그런데 중대장이 마을로 내려오지 못한것이 아쉬웠다.

(지휘관이니 그럴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언제나 대원들과 섭썰려서 그렇게도 호탕하게 웃고 유쾌하게 노래를 하던 사람이 하필 이런 때를 놓치다니 하는 생각이 불쑥 들며 중대장에게서 어떤 피박한 성미를 보는듯 하였다.

뒤에서 가벼운 발걸음소리가 울리었다. 돌아보니 녀인이 물동이를 이고 걸어왔다.

어린애가 구슬듯이 달려가며 사랑을 하였다.

《엄마, 군대아저씨가 피리 만들어줬다.》

《너 참 좋겠구나.》 하고 성옥을 마주보는 녀인의 얼굴에는 말없는 고마운 정이 실렸다. 그는 샘터에 동이를 내려놓고 아롱아롱하게 들여다보이는 조약돌사이로 퐁퐁 솟구치는 샘물을 퍼담았

다.

그리고는 동이굽도리에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을 손으로 털어버리며 머리에 이었다.

성옥은 녀인을 얼없이 바라보았다. 물을 길는 그 동작이 무척 낮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아침과 저녁에 수도가에서 자기가 세수를 할때면 안해가 저렇게 알뜰한 동작으로 물을 길어동이굽도리를 훑치며 머리에 이군하였다.

성옥은 그때에 느끼던 즐겁고 부드러운 감정에 잠겨버렸다.

녀인은 제먼저 걸음을 떼며 말하였다.

《군대아저씨, 밥이 다 됐어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군인들에게 차례진 식사는 푸짐하였다.

비록 색다른 음식은 오르지 못했어도 그릇마다에 알뜰한 정성이 깃들어서 어느것을 집어도 구미가 당겼다. 잘 퍼진 밥과 알맞추 구운 고등어로막도 맛이 좋았지만 시금치국은 이 봄에 접어들어서 처음 맛보는것이였다.

어느덧 식사를 마친 군인들은 상을 물리였다.

그러자 녀인은 쟁반에 배를 가득 담아올려보내었다. 겨우내 움속에서 제풀에 한껏 무르익은 배알들은 조금만 다쳐도 말강게 엷어진 껍질이 터지며단물이 흐를것 같았다.

어느새 제집 아래목에라도 앉은듯한 가정적분위기에 취해버린 병사들은 조금도 서슴어하는 기색이없이 배를 한알씩 집었다.

어린이가 두손이 벌도록 큼직한 배알을 들고 부엌에서 올라오더니 성옥의 무릎에 안기였다.

《이녀석 언제 보나 푸짐이 좋거든》

어린이는 배알들을 골라서 군인들에게 주었다.

《울 엄마가 아버지 오면 주겠다고 하던거다.

아버지두 인민군대야. 배를 좋아한대.》

군인들은 배를 든 손을 허공에 멈춘채 서로 얼굴들을 마주보았다. 언제든지 남편이 돌아오면 맛보이려고 고이 간직했던것을 축낸다고 생각하니 목이 그득해졌다. 모두들 집었던 배를 다시 쟁반에 내려놓았다.

상을 거두던 녀인은 당황하여 아이에게 눈총을 주었다.

《이리 내려와.》

《허허, 뒤두십시오. 너도 아버지가 보고싶은냐?》

그렇게 묻는 성옥의 목소리에는 류다른 흥분이 울리고있었다.

지금껏 애무를 보내던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낮모를 군인의 아들이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가졌던것이다.

《해해, 보고싶지뭘, 울 엄마두 아버지 보곤했다.》

얼굴이 붉어진 녀인은 다시금 아이에게 눈을

흘렸다. 그리고나서 행주치마로 손에 묻은 물기를 씻고 배를 권하였다.

《그 애가 공연한 말을 해서... 어서드세요.》

《두어두십시오. 주인님이 우리처럼 지나다가 들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란 뜻밖에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애 아버지는 편지마다 집에 군대들이 들리면 자기가 들렸다고 생각하고 대접을 잘해야 한다고 쓰곤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전우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국땅 어데를 가나 제집에 들린것 같다더군요.》

《우리도 아주머니 집에 오니까 자기 집에 온것 같습니다.》

녀인은 성옥의 대답을 서둘러 부정하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된다면 사양하시겠어요?》

병사들은 말문이 막혔다. 녀인들이란 자기의 성의를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게 만드는 선량한 기지가 있는것이다.

병사들은 하는수없이 녀인이 집어주는 배알을 받았다.

맛을 보기에 앞서 탐스러운 배알의 상긋한 향기가 녀인의 정성에 감동된 병사들의 허파에 스며들었다.

이때 별안간 귀청을 켜는 놈들의 비행기소리가 들리였다. 화기가 넘치던 방안에 일순 무거운 긴장이 드리웠다. 비행기소리가 조금 멀어지자 병사들은 밖으로 뛰어나왔다. 성옥은 기차굴쪽을 향해 달리면서 피곳 하늘을 쳐다보았다.

적기편대가 산봉우리를 스칠듯이 낮추며서 선회하였다. 그러더니 겨금내기로 내려꽂지며 철길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신통한 목표물을 발견하지 못한 분풀이로 철길이라도 파괴해보려는 심산이였다.

적기를 노려보던 성옥은 더욱 맹렬히 달리였다.

가족을 잃은 그날부터 가슴에 서리고 쌓여서 돌처럼 굳어졌던 복수의 일념에 전신의 피가 거꾸로 흘렀다. 원한을 담아 탄피에 채웠던 그 탄알들로 가슴이 후련하도록 놈들을 쏘아버리자! 자기로서도 알수없는 충동에 떠밀리우며 설퍼를 지나 미끄럽던 언덕을 단숨에 치달아올랐다. 보복의 기회를 놓칠가봐 초조하였다. 음폐한 유개차에서 기관총을 가져다가 적기를 쏘자면 차굴반대편등성이에 올라가야 했다. 그러는 사이면 놈들이 마음껏 포탄을 퍼붓고 달아날수 있었다. 그는 절박감에 몸 부림치고싶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굴반대편등성이에서 기관총소리가 터져 올랐다. 꿈이런가싶어 번쩍 머리를 드니 소나무가지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자기의 마음

을 앞질러 적기를 쏘아대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중대장 은석이었다!

성옥은 환성이라도 지를듯한 보복의 패감에 사로잡혀 비탈진 산기슭을 치달아올랐다.

적기들은 굴과 반대편등성을 향하여 뽕방 내려 쏘이며 포탄을 마구 퍼부었다. 타래치는 폭연과 솟구치는 흙기둥속에 은석의 모습은 파묻혀버리었다.

성옥의 얼굴에도 열풍과 흙먼지가 덮여있고 파편이 양갈진 소리를 내며 귀뿌리를 스치었다.

하지만 성옥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채 등성이를 향해 계속 달려갔다.

일순 숨을 죽인듯 하던 기관총에서 또다시 세찬 불줄기가 내뿜어졌다. 은석의 주변에서 연이어 폭탄이 튀어오르고 불길의 휩쓸어갔다. 은석의 단정하던 군복은 불품없이 파편에 찢기었고 땀과 흙먼지에 옥개여진 얼굴에서는 세차게 부릅뜬 눈빛만을 가려볼수 있었다. 그러나 적기를 조준하여 기관총의 압철을 누르는 그의 동작에서는 세련된 침착성이 느껴졌다. 적기가 기관총좌지를 향해 내려쬘었다.

《중대장동무!》

성옥은 중대장을 부르며 달려갔다. 그를 발견한 중대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엎드렷!》

그러나 성옥의 귀에는 중대장의 명령이 들리지 않았다.

은석은 몸을 날려 자기몸을 덮친채 몇바퀴 아래로 뒹굴었다. 그순간에 그들이 방금 피해버린 자리에 폭탄이 떨어졌다. 몸부림치는 대지의 진동이 엎드린 그들의 몸에 끊임없이 느껴졌다. 놈들은 덩지가 작은 둔덕을 뿌리채 날려버릴듯이 폭탄을 쏘아부었다.

무서운 폭발과 폭음이 휩쓸어가고 휩쓸어왔다.

놈들이 또 한차례 선회하기 시작하자 은석은 덮쳐온 흙먼지를 털어버리고 몸을 솟구쳤다. 기관총을 걸었던 소나무는 간곳이 없다. 번개같은 시선으로 사위를 더듬어 흙속에 반나마 묻힌 기관총을 찾는것이였다. 나는듯이 달려간 그는 총체를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쓰러졌다. 《중대장동지!》

중대장이 부상당했다는것을 깨닫자 성옥은 급히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안됩니다. 중대장동진 부상당했습니다.》 《ներմայօ. ցնայօ.》

《기관총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저놈들을 제가...》

《종소, 그럼 성옥동무가 쏘오.》

기관총을 거머쥐자 성옥은. 불길이 황황 이는 눈길로 다가드는 적기를 노려보았다. 드디어 사랑하는 안해와 아이를 무참히 학살한 간악한 놈

들에게 자기 손으로 죽음을 안길수 있는 기회가 차례졌다.

그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이가 갈리는 분노로 기다려온 운명적인 시각처럼 생각되였다. 기관총을 틀어잡고 번쩍 일어난 성옥은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대공사격을 하려면 기관총을 높다랗게 올려놓고 의지할만한것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몇번이나 파헤쳐진 등성이에는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적기는 벌써 이쪽으로 기수를 꺾었다.어찌했으면 좋을가? 성옥은 일순간에 가슴이바작바작 타들었다.

그 찰나 은석이가 성큼 일어서며 등을 돌려댔다.

《자, 내 어깨우에 기관총바퀴를 올려놓고 사격하오!》

성옥은 피가 흐르는 그의 어깨를 보았을 때 불로 지지듯이 눈뿌리가 화끈 달아올랐다.

《중대장동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은석이가 책 머리를 돌리며 성옥을 쏘아보았다.

《동무의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우리는 천백배로복수해야 하오! 기관총을 내 어깨에 올려놓소!》

성옥은 거역할수 없는 은석의 위압적인 요구에서 가장 강렬한 전우의 사랑을 느꼈다. 온몸에 전류처럼 흐르는 감동을 의식하며 병사는 중대장의 피흐르는 어깨우에 둔중한 기관총을 올려놓았다.

하고는 내려쬘지는 적기를 겨누었다, 그러나 신입병사의 사격솜씨는 서툴었다. 은석은 거연히 서서달려드는 적기를 쏘아보며 성옥이가 정확히 묘준을 하도록 필요한 조언을 주었다. 마침내 꽃망안에 적기가 잡히자 성옥은 압철을 눌렀다. 가슴에 서린 분노가 터져오르듯 멸적의 총탄이 끊임없이날았다. 요동치는 기관총바퀴가 상처받은 은석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려쳤다. 그러나 은석은 불사신처럼 굳세게 서있었다. 다만 고통을 참기 위해 모질게 깨문 입술에서 피가 흐를뿐이였다.

마침내 적기 한대가 검은 연기를 길게 끌며 산너머에 곤두박혔다. 그러자 적기들은 질겁하여 쫓무니를 빼고달았다.

성옥은 은석의 어깨에서 기관총을 내리웠다. 사격을 할 때 세찬 충격을 받은 그의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즐겁하게 흘렀다. 성옥에게는 그가 이겨낸 아픔의 고통이 헤아려졌다. 《중대장동지...》하고 성옥은 목메이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석이가 천천히 돌아섰다, 땀과 흙으로 엉망이된 얼굴에서 유난히 빛나는, 그래서 더욱 스미는듯한 침투력을 느끼게 하는 그의 눈동자가 성옥을 바라보며 피자국이 뚜렷한 입술이 조용히

열리었다.

《성옥동무, 아무러면 가슴에 입은 상처보다야 더 아프겠소?》 성옥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었다. 성옥은 중대장의 그 말이 조금도 가식없는 진정이라는것을 이해하였다. 격전의 시각에 중대장의 심장이 자기의 심장과 복수의 피맺힌 일념에 하나로 고동치고있었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다.

그의 머리에는 문득 세상에서 가장가까운 사람은 전우들이란 말이 상기되었다. 그것은 마을녀인에게서 들은 낯모를 군인인 그의 남편이 안해에게 써보낸 편지의 구절이다. 배를 권하던 마을의 녀인에게서 전해들을 때는 심상하게 넘겨버렸던 그 말의 의미가 뜻깊게 되새겨졌다.

산기슭에서 《중대장동지!》, 《성옥동무!》 하는 웨침소리가 터져올랐다. 중대의 전우들이 등성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은석이와 성옥은 마주 올라오는 전우들의 흥분된 얼굴들에서 전우애의 뜨거운 마음을 가슴뿌듯이 느끼었다.

은석은 그들에게 소리쳤다.

《동무들, 올라오지 마오. 우리도 인차 내려가겠소. 차출입구에 가서 정렬하시오. 떠날 시간이 됐소.》

서컨에 기운 해는 마지막빛을 뿌리고있었다.

몇번이나 돌아가라고 성한 팔로 대원들에게 손짓을 하고난 은석은 성옥에게 돌아섰다.

《내 야전가방에 개인봉대가 있소. 얼른 상처를 대강 싸대주오.》 갱도속에서 둔중하게 기적이 울리었다. 출발을 앞둔 예비신호였다.

성옥은 파편에 한귀가 찢어진 중대장의 야전가방을 뒤지었다. 그러다가 수첩갑피속에서 사진 한장을 발견하였다. 성옥은 불시로 굳어지며 사진을 받쳐든 손을 떨었다. 사진속에서 아들을 품에 안은 은석이쪽으로 머리를 갸웃이 기울이고 수줍은듯 웃고있는 녀인이 바로 배를 권하던 방금전에 본 그녀인이었다!

사랑하는 안해와 아들이 기다리며 그렇게도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이 꽃피던 정다운 고향집을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끝내 마을로 내려가기를 단념하던 중대장의 심정이 한순간에 헤아려졌다. 그는 자기가 안해와 아들을 포옹하며 행복의 한순간을 보낼 때 가족을 잃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으며 모진 슬픔을 체험하리라고 생각했었다. 과연 중대장이 그토록 사려깊은 사람인줄은 미처 몰랐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가 왜 오늘따라 그렇게 열렬한 감정으로 차창밖으로 흐르는 전야와 산천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는지 그리고 왜 문득 노래를 그치고 침묵해버렸는지 그 모든 까닭이 날날이 헤아려졌다. 그때 만일 내가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중대의 우렁찬 노래의 화음속에

자기의 목소리를 혼연히 합치었던들 중대장은 준엄한 싸움의 길에서 헤여져 그리웠던 가족들과 상봉의 기쁨을 누리었으리라. 모든것은 편협하고 웅졸했던 자기때문이었다.

성옥은 은석에게 머리를 돌리었다.

은석은 등을 돌려대고 앉아서 하염없이 마을쪽을 바라보고 있었다.그에겐들 어찌 살뜰한 남편으로서 정겨운 안해의 눈빛을 바라보며 서리고 쌓인 회포를 나누고 귀여운 아들의 볼을 비비며 애무의 기쁨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랴.

하지만 그는 자기의 한가정이 아니라 중대라는 크나큰 집단을 조국앞에 책임진 성스러운 의무를 자각하고 자기의 개인적욕망을 누르는것이다.

그를 지켜보는 성옥의 총이 센 살눈섭은 삽시에 젖어들었다. 《중대장동지!》

돌발적으로 다급히 울린 성옥의 부름은 자기 상념에 잠겼던 은석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무슨 일이요?》 성옥은 사진을 내보이며 말하였다. 《알고보니 저는 바로 중대장동무의 집에 들렀습니다.》

은석은 대원의 눈귀에 고인 물기와 눈에 띄우게 들먹이는 어깨의 파동에서 격동된 그의 마음을 읽었다.

그래서 그의 흥분을 능처주려는듯이 험한 표정으로 응수하였다.

《우리 집에 들렀다면 동무는 필경 푸대접을 받았겠구만, 우리 집사람은 산골녀자인데다가 워낙 됴됨이 후하지 못해서 손님접대를 영 할줄 모른다오. 실상은 동무들을 집에 데려갔다가 녀편네 때문에 이 중대장 위신이 깎일것 같아서 내려가지 않았댔소. 그런데 끝내 동무한테 뒤가 드러났소.》

중대장이 속이 뻐한 말을 하자 성옥의 얼굴은 내심의 자책때문에 사납게 이그러졌다. 허우대가 거칠진 그는 워낙 잔정을 모르는 사나이다.

어려서부터 거칠은 세파에 부대끼며 고아로 자라났던 이르러진 그의 성미는 동무들에게서 진정으로 뜨거운 우정이나 감사의 정을 느낄 때면 싸움이나 하는것처럼 오히려 상대의 잔등에 주먹다짐을 울리었다. 지금도 그는 마음같아서는 중대장을 와락 쓸어안고 볼을 비비며 잔등을 두드리든가 하다 못해 서로 불안고 격전터를 몇바퀴 덩굴고 싶었다.

은석이가 부상당한 몸만 아니더라도 상대가 중대장이라는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끌어안았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었던 성옥은 제 등가슴을 주먹으로 광광 울리었다.

《난 오늘 마을에 내려가서 잃어버렸던 일가친척의 정을 느꼈습니다. 적기를 쫓때 중대장동지

한테서 저는 전우의 사랑이 어떤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제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중대장동지가 저보다 더 마음을 버리고 있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된 제 가족밖에 모르고 한낱으로만 마음을 쓰면서 중대동무들을 처음 만난 남들처럼 생각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진정할줄 모르는 성옥이고보니 자신의 감동과 뉘우침을 설토하는데서도 거침이 없었고 불을 뿜는것 같은 열기가 느껴졌다. 가슴을 치던 주먹으로 눈시울을 뺨 흠치고 폭 고개를 떨구었다.

은석은 암반같은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성옥동무가 오늘 많은것을 깨달은 모양인데 진정하오. 어데를 가나 후방인민들은 우리 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오. 그리고 우리 군인들로 말하면 지휘관이든 대원이든 하나의 공통된 사상감정으로 필요하다면 서로의 희생까지를 대신하면서 싸우고있소.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를 친아버지로 모신 우리 인민이나 군대가 하나의 혈연적관계로 이어졌기때문이요,

이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어찌 동무뿐이겠소. 우리 중대에도 그런 동무들이 많소. 그런데 병사는 원쑤가 강요한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조국이 입은 그 모든 상처를 통감할줄 알아야 하오.

그래서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원쑤에 대하여 누구나 무자비하거던. 그리고 설사 개인적슬픔이 있다하더라도 전우들과 인민들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락관의 웃음속에 노래를 부르오. 자 어서 상처에 붓대를 감소.》

성옥은 은석의 오른팔과 어깨부위에 붓대를 감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아서 생각보다든 상처가 가벼운 편이었다. 성옥은 중대장의 체온을 느끼면서 상처에 흘러내린 붉은 피의 고귀함을 낱알이 헤아리는것처럼 알심있게 씻어내고 헤어진 살가죽을 아무리었다.

또다시 기적이 굴쪽에서 울려왔다. 해는 이미 지고 서편하늘에 노을이 피빛으로 불타고있었다. 기적소리에 번쩍 정신이 든 성옥은 붓대끝을 열른 땀과 성큼 일어섰다.

《중대장동지, 제가 먼저 기관사한테 달려가겠습니다.》

《아니 함께 가야지.》

《중대장동지는 집에 들러봐야 할것 아닙니까? 제가 기관사에게 사정을 말하면 한두시간쯤은 늦어 떠날겁니다.》

《전선으로 나가는 군용렬차를 지체시키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은석은 앞을 막아서는 성옥을 비켜돌며 차굴쪽으로 걸었다. 하는수없이 그의 뒤를 따라 언덕을 내리는 성옥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버지가 보고싶다던 어린애와 남편은 그리며 겨우내 배를 보관해온 소박한 녀인의 얼굴이 눈앞에 어려왔다. 인정 깊던 그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떠난다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이 차굴입구에 이르자 기다리던 전우들이 전투승리를 축하하여 뜨겁게 손을 잡아주었다.

성옥은 자기와 함께 중대장의 집에 들렀던 전사에게 속삭이듯 조용히 물었다.

《동문 중대장동지의 집이 저 마을에 있었다는 걸몰랐나?》

몸매 다부진 전사는 말귀를 새길수가 없어 성옥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껌벅거렸다.

《중대장동지 고향이 저 마을인가?》

오히려 자기한테 반문하는 전사를 보니 성옥은 저도모르게 큰소리가 나왔다.

《나야 신대원이니까 미처 몰랐지만 동무야 알아두었어야 할것 아닌가?》

《난 중대장동지가 집에도 편지하는걸 한번도 보지 못했네. 더구나 전사인 내야 상관들의 고향까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자 성옥은. 버럭 성을 내었다.

《한심한 소릴 작작하게. 지휘관만 대원의 사정을 낱알이 알아야 하구 대원은 지휘관의 사정을 몰라야 하나? 우린 친형제들이네.》 전사는 성옥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는것이 하도 놀라와서 새삼스레 성옥을 쳐다보았다.

《허, 동문 하루사이에 전혀 판사람이 됐구만.》
《그렇다면 고마운 일이지. 난 오늘 가정을 찾았네. 참다운 병사의 가정을 말야.》《...?!》

전사는 성옥의 말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다.

어느덧 스러져가는 저녁노을의 마지막빛이 사위를 곱게 물들이었다.

성옥은 상처입은 중대장을 부축하며 기차가 서있는 굴간을 향해 걸었다.

얼마후 중대를 태운 군용렬차는 어둠을 헤치며 전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전사는 돌아왔다

김정춘

비발치는 총탄
기여드는 원쑤의 중땅크
보복을 안은 소대의 진격
여기서 멈춰서는가

앞에는 전사들을 부르는
수난의 땅
뒤에는 저녁노을 피어오르는 언덕에서
손저어 전선길을 내려주던 어머니모습
떠나온 일터, 타오르는 용광로불길이
멈춰선 전사의 눈앞에 비껴와—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물러설수는 더더욱 없었다
오 수류탄뭉음을 안고
비발치는 탄우속
한치 또 한치 원쑤를 맞받아
배밀이해가는 전사의 모습이여

그대 한치한치 헤쳐가는 그 가슴에
잊지 못할 그 봄날
첫 쇠물이 흐르던 용해장에서
우리러 장군님 맞이하던 기쁨
그 행복을 그대로 간직한것인가

어린 동무가 수고한다고
넓으신 품에 안아주실 때
어버이수령님 사랑에 목메이며
새 조선의 강철기둥이 되리라
쇠물처럼 끓던 전사의 마음이어

그 마음, 그 눈빛에서

무섭게 내뿜는 서리발같은 증오
한몸 그대로 내달려
원쑤의 중땅크를 날려보내며
불길과 퇴성으로 솟구쳐올랐다

보복을 안은 소대는
원쑤를 짓부시며 불을 토하고
만세소리 높이 내닫는 전우들앞에
그 폭음소리
진군의 쇠북처럼 메아리쳤거니

그대 이렇게 간것인가
승리의 날 또다시 용광로앞에서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쇠물을 뽑겠다던
그날을 그리며 달려온 그 전사

…전선은 앞으로 멀리 나갔고
부대의 전과와 함께 그 전사의 위훈
최고사령부에 보고될 때
아 우리의 수령님
뜨겁게 불러주신 그의 이름이어

전투의 불길속에서 떨친
빛나는 그 위훈
그래 이름과 함께
조국은 영원히 새겨안았거니

갔어도 그는 다시 돌아왔다
살아도 죽어도 그 품에 안겨 행복한
위대한 수령님의 아들로
전사는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

내 사랑하는것 증오하는것

로승모

과일나무 설레이는 높은 언덕
멀리 황금벌이 내다보이는 밝은 창문들
내 나서자란곳이어서
고향아
너를 언제나 못잊는것만이 아니다

문 열고 푸른 벌로 나서는 아침
별빛은 들에서 돌아온 저녁
행복의 물결이 가슴에 차는 순간마다
나는 생각한다
가장 뜨겁고
가장 귀중한것
사랑과 증오에 대하여...

아 잊을수 없으랴
수령님 나눠주신 분여지에서
첫이삭 이고오던 이웃 처녀
달처럼 웃던 그 모습의 아름다움보다도
땅에 대한 사랑을 먼저 느꼈고

물소리 높은 시내가
새로 놓은 무지개다리 건너 벌로가던 길
철새의 울음소리 높던 고향의 들길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이 함께 움텄다

무르익은 과일향기에 취하여 거닐 때면
날을 따라 그 사랑은 커가고
누런 벼이삭 물결치 들에 나서면
세월따라 그 사랑 새로와만지는
이 고마운 땅, 고마운 품을 짓밟으려는
원썩이 있음을 알았거니

미제침략군이 던진 폭탄에
새 교실도 해박은 선전실도.
산산이 깨어져 날아오를 때
이 심장속엔 꺼지지 않는 불길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오 눈앞에서 지워질수 없으랴
예광탄 날아넘던 초원우
깨여진 기와장 밟으며
불타던 고향생각을 안고 지나온 마을들...
진한 초연내속에서
사랑과 증오를 나는 익혔다

함께 떠났다가
함께 돌아오기 어려운 습격의 길을
우리 모두 웃으며 떠난것도
고향아 승리한 오늘의 네 모습을
그토록 뜨겁게 그려왔기때문이 아니었던가

사랑할줄 아는것을 배워준 어머니품
증오할줄 아는것을 배워준 내고향
조국 없이 고향이 없음을 나는 알았고
수령님 계시여 조국이 귀중함도 나는 알았다

이제는 싸움이 끝난지도 퍼그나 오래
벼이삭 물결치는 아득한 들판
흔들리는 운전대에서 나뭇기는 붉은 머리수건
이 레사로운 정경도
옛 병사의 생각을 뜨겁게 자아내고있으랴

영원토록 보고싶으랴
전변된 강산 전변된 마을
불타던 전야에는 풍년새 날고
돌격나팔소리 울리던 그날의 산기슭엔
해저무는 저녁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어머니들의 다정한 목소리
이 땅의 모든것을 무심히 스칠수 없는 마음이어

아 맞는 날
보내는 나날이 행복할수록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
원썩이에 대한 증오
꽤불처럼 이 가슴에 불타고있으랴
예나 다름없이 예나 다름없이 -

전시가요를 들으며

박창민

야영지에 밤이 왔다.
 동녘하늘에 둥둥 날아오른 쟁반같은 보름달이
 대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있는 밤.
 주절주절 계곡을 누비며 흐르는 맑은 물은 달
 빛을 받아 마치 은구슬이 굴러가는것 같다.
 찌르륵 찌르륵 달빛이 흘러드는 고요한 숲속에서
 우는 풀벌레의 울음소리, 소쩍 소쩍 밤새의
 구성진 울음소리...

이 모든것은 얼마나 이 밤의 신비로운 정서를
 자아내는가.

아름다운 밤이다. 황홀한 달밤이다.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일당백병사들의 훈련모습
 을 취재하기 위하여 나도 배낭을 메고 강행군길
 을 이어 예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구분대장동무와 함께 천막을 나섰다.

달빛에 번뜩이는 철갑모들, 배낭에 비스듬히
 기대여 하모니카를 부는 병사들, 총창을 비껴들
 고 전호가에 엄숙히 서있는 미더운 보초병...

숙영지의 밤은 얼마나 전투적이고 낭만적인가!

나는 숙영지밤의 정서에 심취되어 가슴이 설레
 었다.

달빛은 이 밤의 고요한 서정속에 얼마나 거세
 찬 혁명적 기백과 낭만이 흘러넘치는가.

얼마나 전투적인 모습이 여기 조국의 이름 없
 는 산기슭에 펼쳐졌는가!

어데선가 병사들이 부르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
 조국땅을 보위하러 총을 멘지 삼년석달

《전호속의 나의 노래》!

나는 저도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구분대장동무도 노래의 세계에 이끌려갔다.

무대에서가 아니라 달밝은 밤에 전호속에서 병
 사들이 부르는 이 노래!

지난날 전우들이 화선에서 부르던 노래를 남녘
 땅이 바라보이는 여기 분계선고지에서 들으니 감
 개무량하기 그지없다.

나는 구분대장동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
 다.

《저 노래는 들을수록 좋습니다.》

《전시를 추억케 하는 잊지 못할 노래입니다.》

《이렇게 분계선고지에서 전시가요를 들으니 구
 분대장동무는 정말 감회가 깊겠습니다.》

《예, 화선에서 저 노래를 부르던 때가 어제같
 은데 벌써 30년이 돼옵니다.》

조국해방전쟁참가자인 구분대장동무는 저으기
 흥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조국해방전쟁
 에서 집단적영웅주의와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패려부시고 조국의 독
 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잊지 못할 전화의 그날을 그려보는듯 한동안
 말이 없던 구분대장동무가 침묵을 깨뜨렸다.

《저 노래를 들으니 미제를 때려부시던 전쟁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불타는 전호속에서 저 노래를 부르며
 힘을 키우고 용맹을 떨쳤지요. 정말 싸우는 전사
 들의 심정을 그대로 담았기에 우리는 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구분대장동무는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이야기와 더불어 나의 눈앞에는 불구름
 타래치던 1950년대의 가렬한 전투장이 펼쳐졌다.

구분대장동무가 속한 인민군 한 보병중대는 전
 선동부 철원계선의 무명고지에서 참으로 힘겨운
 전투의 날을 이어가고있었다.

적들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통제》
 작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이 고지를 타고
 앉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대대가 녹아나면 런대를 들이밀었다. 그것이
 괴멸되면 증강한 또 다른 런대를 내몰았다.

그러나 우리 전사들에게는 싸우다 쓰러져 묻힐
 땅은 있어도 살아서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었
 다.

이렇게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는 화선에도 전쟁
 마당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믿어지지 않는 고요한
 때가 있었다.

포연에 달빛마저 빛을 잃은 화선의 밤에 전사
 들은 전호속에서 승리한 조국에 대하여, 고향의
 아름다운 저녁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

하루에 여섯차례의 적들의 공격을 물리친 어느
 날 밤이었다. 바람도 이 밤을 위하여 포연을 물
 아갔는가, 하늘엔 휘영청 달이 밝기도 하였다.

《아, 고향에도 저렇게도 달이 밝겠지요?》

중대의 꼬마전사로 불리우던 동무가 경기사수

아바이에게 물었다.

《밭구말구, 고향에서도 저 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생각할지도 모르지.》

경기사수아바이는 전선으로 나오기전 달밝은 그 밤에 전쟁승리를 위하여 군량미를 실어보내던 때를 더듬었다.

…마을의 늙은이들, 처녀들, 애기어머니들이 소달구지를 끌고가는 멀고먼 산길을 저 달이 밝혀주었다.

목적지를 얼마 앞둔 시간에 잠깐 쉬는데 맞은편에서 짜그르 웃음소리가 터졌다.

알고보니 며칠전에 전선에서 날아온 남편의 편지를 받고 연필에 침을 발라 또박또박 회답장을 쓰던 돌이 어머니의 미완성편지가 화제거리였던 것이다.

돌이 어머니는 《…미국놈을 많이 잡고 이기고 돌아오세요.당신이 돌아올 때는 아마 돌이가 두팔을 벌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거예요. 돌이가 벌써 걸음마를 떼기 시작…》 하고 쓰다가 끝을 맺지 못하였었다.

처녀들은 제가 안기고싶은 마음인데 돌이핑계를 댔다고 깔깔댔고 늙은이들은 대통에 옆초를 담으며 땡글거렸다.

그들은 벌써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하고있었던 것이다.

아바이전사와 꼬마전사가 주고받는 다정한 말전사들의 가슴속에 고향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자아냈고 누구의 선창인지 모르게 이 노래를 불렀다.

전사들은 《파발총》 탄창에 복수탄을 채우며, 달빛에 번쩍이는 보병총의 총창을 닦으며, 무너진 전호를 보수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부르면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눈앞에 보고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으며 우리 행복 삼키려는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이 솟구쳐올랐다.

우리 행복 삼키려는 원쑤 미제 쳐부시고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

이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귀전에는 미제야수놈들에게 무참히 쓰러지며 이 원쑤를 갚아달라고 하던 고향사람들의 피타는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장군님의 전사답게 잘 싸워 공세우고 돌아오라 하며 바람부는 동쪽길에 오래도록 서있던 흰옷입은 어머니의 모습도 안겨왔다.

《잘 싸우세요!》

심중에 품고있는 그 많고많은 말을 이 한마디에 담아 부탁하던 사랑하는 안해의 얼굴이, 전승

의 그날에 다시 만나자고 하며 삼년을 하루와 같이 편지를 보내오는 그리운 처녀의 얼굴이 눈앞에 어리기도 하였다.

사나이로서 조국을 지켜내고 공을 세워 앞가슴에 주렁주렁 훈장을 달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앞에 땃땃이 나서고싶은 그 마음,

전승의 그날 것처럼 꿈결에도 그러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감격에 울며 웃으며 맨발로 달려와 두팔벌려 맞아줄 부모형제들의 뜨거운 그 가슴에 승리자로 부끄럽지 않게 안기려는 그 생각, 그 마음이 멸적의 힘이 되고 결전으로 부르는 호소가 되어 전사들은 총창을 비껴들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하기에 이 노래를 부르는 전사들의 가슴에서는 슬기와 용맹이 솟구쳐올랐다. 틀어진 총창도 복수에 몸부림치며 서리발을 뿔었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전사들은 이 노래를 사랑하였다. 이 노래의 구절구절속에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 결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때문이다.

구분대장동무가 속한 보병중대 전사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증강한 적 한개 연대의 발악적인 공격을 끝까지 물리치고 피로써 고지를 사수하였다...

그때로부터 근 30년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 노래는 예나 지금이나 전사들이 사랑하는 노래로 조국의 방선 그 어디에서나 불리우고 있다.

혁명의 계승자, 조국의 수호자들인 우리의 일당백병사들이 지난날 용사들이 피로 지킨 조국의 고지-영웅전사들의 불멸의 위훈이 깃들어 있는 그날의 전호속에서 대를 이어 부르고있다.

화려한 무대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두목미제와 총부리를 맞댄 초소에서,반제반미 전선의 제일선참모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가 나온지도 어언 30년세월이 되오지만 오늘도 화선에 선 전사의 마음으로 조국의 방선을 지켜가기에 예나 지금이나 병사들의 마음을 울려주는것이다.

만약 미제침략자놈들이 또다시 분별없이 덤벼든다면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50년대의 영웅전사들처럼 싸우리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피로 지킨 고지의 전호속에서 승리자의 자랑을 안고 이 노래를 부르리라!...

참으로 잊을수 없는 밤이었다.

나는 솟구치는 흥분을 누를길 없어 달빛을 밝으며 야영지를 걷고 또 걸었다.

전사들이 부르는 은은한 노래소리가 은하수 흐르는 저 멀리 밤하늘로 조용히 메아리쳐갔다.

나도 마음속으로 따라불렀다.

아- 《전호속의 나의 노래》!...

그 마음 불보다 뜨거운 사람들

정영호

-인평광산 리기수채광소대를 찾아서-

얼마전에 우리는 인평광산 송동갱 리기수채광소대를 찾았다.

7개년분과제를 이미 작년 5개월말까지 1년 5개월간에 끝낸 이 채광소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의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 제6차대회를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맞이 하기 위해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광산의 주요갱의 하나인 송동갱으로 들어서자 쇠돌을 만재한 광차들이 꼬리를 물고 줄 달음쳐나오는데 하면 그어느 지점에선가는 지축을 흔드는 발파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쳐나왔다.

이 광산의 들끓는 모습이 단번에 가슴에 안겨왔다.

우리를 안내하던 이 광산 초급당비서는 리기수채광소대가 7개년분과제수행에서 1년분과제는 이미 1978년 4월 15일까지 해냈고 그해 연말까지는 4년분과제를 수행해냈다고 하였다. 이런 놀라운 속도로 작년 5월말까지에는 7년분과제를 전부 끝내었고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없이 제2차 7개년분과제까지는 7개년계획을 3배로 넘쳐해낼 불같은 결의를 안고 지금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채광소대 작업장으로 안내되였다.

그런데 들어서자바람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막장의 눈부신 불빛아래 원통형마광기가 굉음을 지르며 쇠돌들을 분쇄해내고 원통형금망이 세척수를 슬슬 감아안고 돌아가며 그 분쇄된 쇠물들을 보드랑게 쳐내고있었던것이다. 정선된 쇠돌들은 런결관을 따라 뚝뚝이 경사진 일어잡기관에 질서정연히 렬을 맞춰서더니 주기적인물동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다시 세척수를 타고 정광과 미광으로 갈라져나오고있었다. 이 자그마한 지하선광장이 어찌나 탐탁한지 우리는 발걸음을 뻘줄 모르고 한참이나 지켜보고 서있었다.

그러자 초급당비서는 웃으면서 《하! 아마 놀라실테지요. 지하막장에 이런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밖이겠지요... 이 동무들이 자체로 만들어낸 소형선광장입니다.》라고 말머리를 떼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제2차 7개년계획을 하루빨리 앞당겨수행하기 위해 채광소대앞에는 첫째로 품위 높은 광맥을 찾아내는것이 문제였고 다음으로는 쇠돌들의 실수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정광을 조금도 허실하지 않고 다 잡아내는것이 문제로 나섰던것이다. 특히 짝어 말해야 할 사실은 채광소대에서 캐낸 쇠돌은 품위가 높기때문에 바깥 선광장에 그대로 내보내면 그 실수율에 있어서 일정하게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것이였다.

그래서 이들은 대이행이작업으로 자체가 선광작업을 해낸 쇠돌들을 선광직장에 넘겨주곤하였다. 그러나 기계화수준을 높이는것은 물론 실수율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소규모적방법만으로는 원만할수가 없었다. 방도들을 거듭 연구토론하던 끝에 이들은 광산의 이곳저곳에 사장되어있던 설비들을 가져다 살리기도 하고 없는것은 자체로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실수율을 한 계단 더 높일수 있는 훌륭한 소형선광장을 차려놓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이 확고히 앞서나가야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가공공업에 원료를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천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한그람의 쇠돌이라도 더 캐내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참으로 아글타글 노력해가고있음을 깊이 느끼며 다음 채광소대 채광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십고개를 훨씬 넘어섰으나 젊은이들처럼 날파람이 있고 눈정기가 빛나는 소대장 리기수동무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가 소대전투원들이 다 어데 갔는가고 물으니 지금 막 영양제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와서 휴식중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휴게실로 안내되였다.

《이 동무가 소대전투원이지요. 그리구 이 아바이는 광산에서 30년도 더 일해오는 우리 작업반 좌장인데 년세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자꾸 쉬라고 권고해도 젊은이들 다름없이 일해가는 윤선화아바이입니다. 아바이네는 량주가 다 광산에 다닙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급당비서의 소개로 우리는 채

광소대원들과 하나하나 손을 마주 잡으며 인사하였다.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저희들은 별로 한것이 없습니다. 다 당조직에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해가는 일들인데요!》

오히려 그들은 계면쩍어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인사치레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것이 느껴졌다.

7개년계획을 단 1년 5개월만에 수행해낸 사람들!

세상이 들썩하도록 당당하게 자랑할 위훈을 세워놓고도 또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추없이 7개년말에 가서는 7개년계획과제를 3배로 넘쳐해낼 기세로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광부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물속이건 불속이건 서슴없이 뛰어들어 지하천길 땅속을 드림없이 뚫고나가는 그들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두고 마음을 쓰며 열정을 불태워가는 진실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볼수록 미더웁고 사랑과 진정이 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사람 한사람 뜨거운 마음으로 눈여겨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소대장동무에게 전투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였다. 거들 재촉해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채광소대가 한창 품위 높은 광맥을 불이 번쩍나게 캐나가는데 갑자기 맥이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하루에도 그 몇번, 어떤 날은 지어 열네차례나 작업장을 옮겨가며 힘겨운 맥찾기전투를 벌리었으나 좀처럼 맥줄기는 나타나주지 않았다.

주저앉아버리느냐 아니면 필사의 힘으로 광맥을 찾아내어 결정적인 전투를 다시금 벌려가느냐, 심각하고도 어려운 길에서 소대전투원들은 모두 맥을 찾기전에는 결코 한걸음도 작업장을 뜨지 않겠다고들 하였다.

갱분초급당비서를 비롯한 갱지휘성원들은 그들의 등을 떠밀어 집으로 내보내군하였다.

하루는 소대장 리기수동무가 교대를 마치고 들어간 작업장에 남몰래 나타났다. 그는 잃어진 맥줄기를 찾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느닷없이소대전투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만나자 바람으로 불이 잔뜩 부어 불만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소대장동무! 이런 법이 어데 있습니까?》

전용성동무의 말이었다.

《소대장동무! 우린 책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병섭동무가 한수 더 떴다. 소대장은 아쩔줄 몰라하는데 이런 공격까지 퍼부으니 사실 어리둥절해졌다.

《아니 책벌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지휘관을 전투에 홀몰로 내보내고 뒤전에 앉아 땀이나 씻고있는 병사들을 용납할수 있습니까.》

그제사 소대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속으로 웃지 않을수 없었다.

(영글한 녀석들같이니라구… 일을 하겠다는 말부터 선뜻 할 노릇이지 술술 에돌긴…)

《예끼, 이녀석들, 어서 냉큼 일들을 시작못할가!》

소대장은 소리치고야말았다. 그러자 일시에 《하하하…》 통쾌하고도 시원스런 웃음이 터지었다.

갱내를 들썩이는 그 웃음소리…

그러나 소대장 리기수의 눈굽에는 저도모르게 이슬이 피어있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막어나셔어도 이렇듯 조금도 구김살을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난관을 뚫고나가고야말 드림없는 한마음으로 한순간도 신념을 흐리울줄 모르는 이런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인들 못해내랴싶었다.

가슴뿌듯이 차오르는 기쁨과 긍지로 하여 그는 행복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만을 다해가는 그 불같은 마음과 마음을 안고사는 미더운 광부들이었다.

이러한 잊지 못할 나날들이 흘러 드디어 찾고 찾던 그 품위 높은 광맥을 찾아내고야말았다. 온 소대가 서로 열싸안고 환성을 울리며 더운 눈물을 감출길 없던 일들…

난장에서 일하는 가정부인들이 구미가 당길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만들어가지고 와 남편들의 입맛을 돋구어도 주고 예술공연도 해주던 일, 통장갑을 만들어가지고 왔다가 그들이 때마침 점심식사를 끝내고 휴게실에서 쪽잠든 남편들이 깰세라 조용히 버력을 담아내주던 일…

맥을 찾느라고 휴식마저 미루며 애쓰는 남편들을 잠시나마 쉬게 하려는 그마음들이 소대전투원들의 가슴을 뜨거이 흔들고 흔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소대전투원동무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만을 더 들어보기로 하자

어느 일요일 아침 초소장 윤선화아바이네 집에서 있는 일이었다. 아바이네 집에는 윤제옥이라고 부르는 11살난 막내딸이 있었다.

이날 아침밥을 짓자고 이머니가 막 일어나던 참인데 막내딸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머니! 오늘은 몇시에 나가시나요?》 하고 묻는것이였다.

《원, 애두… 중변교대니 오늘도 오후 4시지… 그런데 그건 또 왜 갑자기 묻냐?》

그러자 제옥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에

게 베개 피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내가 아침밥을 지어드릴테어요. 그러니 꼭 쉬고 오늘도 꼭 500%를 해내야해요!》

딸의 말에 랑주는 그만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밥을지어 가마안에 넣어둘테니 이따 아버지랑 잡주세요!》

제 먼저 부엌으로 나간 제옥이는 이날 끝끝내 어머니를 못 일어나게 하였다.

랑주는 그가 가마속에 따끈히 들여놓고 간 밥을 상위에 올려놓고 술을 들지 못하였다.

늘 말끝마다 더 많은 광석을 캐내어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하는 11 살난 어린것의 가슴에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토록 어른스러이 어머니를 위할줄 알랴!

《그날 초소장아바이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소대 전투원들은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아안았구, 하루계획을 제옥이 당부대로 700%나 해제했습니다...》

선동원동무가 싱글벙글 웃으며 맺는 말이였다.

그렇다! 지하천길 억만보화를 캐내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가 그 얼마나 많고값으랴!

잠시후에 채광소대의 오후전투가 벌어졌다.

우리는 이들이 한막장 보기 좋게 쪽 밀어내는 풍성한 발파를 직접 보았다.

《야! 이거 정말 보기에도 희한한 보화들이군요!

꼭 동화속의 신비경만 같습니다!》

우리들은 저마끔 한덩이씩 쇠돌을 집어 들고 탄성을 울리었다. 그러자 초급당비서도 쇠돌을 하나 집어들더니 뜻있는 미소를 지었다.

《이 쇠돌들은 그대로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 광부들의 뜨거운 마음 그대로라고 말할수 있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 5 기 제 19 차전원회의에서와 올해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제 6 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 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진군하고있는 광부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과 마음들이 아니라!

푸른 꿈 피여나는 들이 좋아 ...

김영근

하나같은 얼굴
하나같은 마음들
노래도 일손도 하나와 같은
청산벌의 처녀들
열아홉 나어린 청년분조처녀들아

미더웁다
청제비 물을 차는
5 월의 들판에
뜨락또르 몰아, 모내는 기계 몰아
풍년모 심어가는 너희들 모습

푸른 꿈 설레이는 들이 좋아
모판에서 울리는
너희들의 웃음소리
하늘가에 비껴가는
너희들의 노래소리

스무해전 그날에
석두재를 넘어
달빛을 이고
소문없이 목밭을 안아일으킨
그날의 그 처녀의 마음을 안았는가

열아홉 하나같은
그 나이또래 처녀들이
오늘은 청산리 넓은 들에
기계화의 새노래 울려가누나

위대한 정신이 빛발친 이 땅
농촌의 미래가 펼쳐진 이 땅에서
사랑의 해빛안고 자라난 새세대들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 새겨진 이 벌에
해마다 만풍년의 기쁨을 꽃피우리라
손잡고 달려온 하나같은 마음들아

낮에는 푸른들에 사랑을 심고
밤이면 마주앉는 배움의 자리
기술도 지혜도 한뜻으로 합치며
지새운 밤들은 그 얼마더나
포전머리 설참마다 사람들속에
과학농사 밝은 리치 깨우쳐주던 나날이여

꿈도 미래도 함께 나누며
끝없는 행복에 가슴 부푸는
청산벌의 미더운 처녀들아
온 나라에 더 힘차게 올려갈
기계화의 봄노래도 너희들이 안았구나
만풍년의 노래도 너희들이 안았구나

축복하노라 청산벌의 새세대들아
이 땅에 기계화의 동음을 울려가는
미덥고 사랑스러운 너희들의 모습으로
이 나라 온 들판은
끝없이 푸르러 젊어지고있구나

앞날을 축복한다

장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수 있습니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숨은 영웅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품모를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날을 따라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나는 수도 멀리 험준한 아호비령 심산속의 광산마을-만년골의 한 청년을 두고 생각에 잠기게 된다.

28살나는 제대군인 청년 리달현.

그의 집은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에 있으나 그는 여기 만년광산에 와서 굴뚝기공으로 일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중앙이 자리 잡은곳이어서 온 인민이 것처럼 그리워해마지않는 수도 평양으로, 흙어머니와 다정한 누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가 자진하여 이 깊은 심심산골 만년광산에 찾아들어 제대배당을 풀어놓은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만년골은 그가 태어나서 인민학교와 중학교 3학년까지를 다닌 고향이였다. 하다면 생의 첫 고고성을 터뜨리고 소꿉놀이의 못잇을 추억과 송아지동무들이 있는 고장이여서 그가 수도의 창밖은 대학으로 가지 않고 여기 수천척지하막장으로 왔는가?

아니였다. 그에게는 언제부터인가 그 스스로가 자각한 어길수 없는 의무감이 있었다. 그것은 피흐르는 락동강 격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와 관련되어있는것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전까지 만년광산의 이름있는 굴뚝기공이였다. 리달현은 나서 한번도 아버지를 본적이 없었다. 만삭이 된 안해와 일곱살짜리 딸애를 산기슭의 아늑한 세칸짜리 기와집에 남기고 떠나간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받고 야전우편으로 리달현이라는 이름을 지어보낸후 최후의 결사전으로 나갔던것이였다.

지금까지 청년이 품고있는 이제는 누렇게 황이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지금 나는 무척 기쁘오. 우리 집에 대를 이어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해나

갈 광부가 생겼으니말이요. 장군님께서 산 넘어 구름 넘어 아득히 먼 고장 우리 광산에 몸소 찾아오시여 광부들의 거친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면서 광산을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하실 때, 아 그때 투박한 사내들의 눈굽에 차흐르던 뜨거운 눈물... 장군님의 교시는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야 하오. 달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무엇보다먼저 그에게 장군님께서 우리 광산에 주신 현지교시를 알려주오.》

아버지의 절절한 이 부탁은 행복한 학창의 나날과 성스러운 복무의 나날에 더욱 가슴깊이 새겨졌다. 그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당에서는 쇠돌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청장년들을 채취공업부문으로 부르르고있었다. 그리하여 청년은 일가친척들의 권고와 마음속의 온갖 동요를 물리치고 고향-광산마을로 돌아온것이였다.

광산으로 온 이튿날 새벽, 잠든 합숙을 깨우는 기상나팔소리는 없었어도 리달현은 병사시절에 체질화된 습관대로 일어났다.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원곡천에서 옷등을 활활 벗어제끼고 랭수마찰을 한 그는 때마침 합숙근처에서 한창 벌어지고있던 새 침전못건설장에 맨 먼저 뛰어들었다.

그가 망치를 휘두르며 돌벽을 쌓아나갈 때 뒤미처 달려나온 동무들은 고향에 돌아온 첫날인데 하루 폭 쉬라고 만류했다.

그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고맙네. 그러나 나는 쉬수 없어. 제대명령은 한 초소에서 다른 초소예로의 대렬조동명령이지 결코 휴가명령은 아니거던. 그리니 아직 휴가명령을 받지 못한셈이지.》

이렇게 그의 광산생활은 시작되였다.

굴뚝기공으로 막장에서도 제일 깊은곳으로 자진해나선 청년.

안전교양기간을 참아내기 어려워 낮에는 안전교양을, 밤에는 남몰래 간데라 불을 낮춰들고 막장에 찾아들던 청년.

아직 서툰 솜씨로 착암기를 밀던 때에 그는 벌써 쇠돌생산을 훨씬 늘일 새로운 고리를 찾아냈다.

착암기대수를 훨씬 늘이자니 압축기바람이 걸리고있던 때였다.

바람, 바람, 센바람 - 굴뚝기공들은 압축기장에 대고 애타게 호소했다. 압축기는 만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량이면 늘어나는 착암기모두에도 만부하를 걸수 있는 량이었다. 배관도 새는곳이 없었다. 그러나 막장까지 미쳐오는 바람은 세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리달현은 뒤교대에 막장을 인계하고는 함숙으로가 아니라 배관을 따라 온 광산막장을 누비고 또 누비었다. 그리고 밤을 밝혀 이 부문 기술서적을 뒤지고 또 뒤지었다. 그러기를 몇수십번...

드디어 그는 압축기장을 떠난 배관의 굽기가 막장끝까지 일매지지 못한데서 바람의 세기가 낮아지는 원인을 발견했다.

알고보면 명백한 리치였지만 오랜 기능공들도 해결하지 못했던것이였다.

배관은 고쳐졌다. 모든 착암기들에 만부하를 걸게 되었다. 쇠돌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온 광산이 그를 칭찬했다. 그러나 리달현은 여전히 안타까운 기색으로 뛰어다니고있었다.

내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취재에 응한다기보다 자신의 애타는 심정만을 하소연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건설에 우리 광산의 쇠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쇠돌생산을 지금보다 배로 높여도, 아니 수십배로 높인다 해도 우린 만족할수 없습니다. 무슨 신통한 방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슴속을 터치는듯한 그의 목소리-

그에게 이것! 하는 생산방도를 알려주어줄수 없는 나 자신이 한스러웠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달현동무, 혁신이 어떻게 일조일석에 이루어지겠소. 그렇게 모두 애타하고 분발하느라면 반드시 생산이 오를것ियो.》

하는 막연한 고무를 주었을뿐이였다.

그때 청년은 고집스럽게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획기적인 쇠돌생산방도는 한순간이라도 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으나 열풍과도 같이 뜨거운것이였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관심하시는 문제를 한순간이라도 빨리 풀고싶은것이 청년의 불타는 마음의 전부였다.

나는 종내 청년의 제대후 생활에 대해 그에게

서 들을수 없었다.

《저는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걸요. 숨은 영웅들에 비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후날 제가 무엇인가 해놓은 일이 있을 때 다시한번 찾아주십시오.》

청년은 나에게 사죄라도 하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이로서 그에 대한 나의 취재는 끝났었다. 취재수첩에는 그의 이름과 제대날자 등 불과 몇자밖에 써여지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그에 대해 별로 아는것이 없는셈이다.

그러나 나는 그 청년을 잊지 못하여 자주 생각하게 된다. 한것은 그와 긴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못했어도 그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고 타록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었기때문이었다.

전사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것처럼 가고싶어 마음달리는 수도로가 아니라 광산지하막장으로 달려온 청년.

한순간이라도 빨리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뛰고 또 뛰는 청년.

위대한 수령님 계신곳 수도에서 아득히 먼곳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 가장 가까이 살고있는 만년골 청년 리달현.

그 가슴속에 간직된 그런 높은 자각과 신념, 불타는 충성의 열정은 쇠돌생산에서의 전례없는 양양으로 표현될것이다. 그리하여 광산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그대로 만년토록 귀중한 쇠돌을 캐내는 만년광산으로 빛내어나갈것이다.

숨은 영웅들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 고결한 품모는 지금 리달현은 혁명적인 자각과 신념과 열정에 힘있는 활력을 가해주고 있다.

숨은 영웅들처럼 그는 그 어떤 사리와 공명,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이 근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스스로 택한 지하수천척막장에서 충성의 발과소리를 높이 울려나가고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끊임없이 빛을 뿌리는 저 하늘의 별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충성의 빛을 뿌리는 지하의 별!

만년골 청년 리달현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한다!

영화문학현상모집 심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화문학작품이나 희곡 같은것도 대중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사업에 동원되면 여러가지 특색있는것이 나올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것이 이 사업을 대중적으로 장려하는것으로도 됩니다.》

은 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9차전원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진행된 영화문학현상모집사업에는 전국각지의 노동자, 협동농장원, 사무원, 군인, 학생들이 광범히 참가하였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모든 작품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생동한 화폭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습니다.

1979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2월 15일까지 현상모집한 영화문학작품들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편영화문학

2등 《동트는 포전길》

원동특, 함경남도 단천군 답동협동농장 농장원

3등 《변함없는 자세》

리동국, 자강도 전천군 자동차사업소 노동자

〃 《행복한 가정》

김재룡, 함경남도 금야군 련동협동농장 농장원

〃 《설은령의 한가정》

류건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합성촬영직장 촬영가

〃 《평범한 녀성》

리석흥, 조선직업총동맹 강원도위원회 지도원

〃 《높은곳으로》

동의희,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식물방역소 지도원

〃 《교원일가》

럼태려, 함경남도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문화회관 지도원

〃 《시대의 주인들》

문성, 평안남도 순천군 창리인민학교 교원

△단편영화문학

2등 《만형의 심정》

림영일,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사무원

3등 《과장동무의 열쇠묶음》

김정남, 함경남도 단천군 룡양지질탐사대 노동자

〃 《어디에 걸렸는가》

김홍구, 강원도 원산 원동기공장 노동자

〃 《천천히 모오》

박 인, 평안북도 꾁산군 석동고등학교 교원

〃 《절실한 문제》

송정삼, 평양영화대학 학생

〃 《잘 선택했소》

홍장근, 자강도 만포시 봉화동 10반

영화문학창작사